

# 重峯 趙憲과 그의時代

李河俊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게으름 부리지 말고  
대오(隊伍)를 잃지 말고 자리를 떠나지 말라  
남을 침해(侵害)하지 말고 적병(敵兵)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군령(軍令)만을 생각하고  
국란(國難)만을 생각하고 진격(進擊)만을 생각하라  
감히 물러나지 말고 오직 큰 적을 죽이며  
작은 이(利)를 탐하지 말고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하면  
마침내는 공훈(功勳)이 있을 것이나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하지 않으면 벌(罰)이 있고 후회(後悔)가  
있으리라 오직 「의(義), 자(字)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라」

題字：清凡 陳泰夏 博士

重峯 趙憲斗 工의 時代

重峯 趙憲과 그의時代



李河俊

## ◆ 머리말

중봉(重峯) 조헌(趙憲) 선생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동향(同鄉)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내 고향 김포에서 나고 자라셨지만, 한 지역이 다 품을 수 없는 대단한 의기(義氣)를 지니셨던 그 분의 흠어진 흔적을 더듬으며 인식의 깊이를 더했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탁월한 정치개혁가로, 동국18현에 모실 정도의 뛰어난 학자로, 의(義)의 실천적 표상(表象)인 의병장으로서의 피와 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셨던 선생은 정치(定處)를 상실한 현대, 이기(利己)와 권모술수(權謀術數)가 판치는 이 세상에 올곧은 삶의 이정표(里程標)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불멸의 중봉 조헌』 간행이라는 선생에 대한 작은 선양(宣揚) 사업을 계기로 그 분을 흠모(欽慕)하기 시작한 이래, 선생의 그 거대한 학덕(學德)과 의지(意志)와 용기(勇氣)를 만나면 만날수록 스스로 초라해지는 것은 위인(偉人)에 대한 경외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분을 더 오롯이 모실 수 없음에 대한 자책(自責) 때문이었다. 그러하기에 선생의 삶과 사상을 담은 이 책으로 어찌 이 부끄러움을 다 가릴 수 있겠는가. 다만 이를 계기로 선생에 대한 논의의 폭과 깊이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중봉 선

생에 대한 세간의 관심 부족과 스스로의 한계가 늘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중봉 선생에 대한 정당한 재평가(再評價)는 궁극적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거국적(學國的)인 사업이라는 확신은 여전하다.

이 책이 얼마나 거국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반성할 점이 많지만, 일반인들에게 여전히 낯선 중봉 선생을 되도록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중봉 선생은 우리 역사에서 한 가지 색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분이다. 학자(學者)로, 정치개혁가(政治改革家)로, 시인(詩人)으로, 의병장(義兵將)으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되도록 이 모든 것을 망라(網羅)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풍부한 일화(逸話)를 통해 그 삶의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도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 책은 이른바 중봉 선생이라는 거대한 실체(實體)에 대한 하나의 입문서(入門書)에 해당한다. 중봉 선생이라는 성(城)에 들어갈 각문의 핵심 열쇠를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일러두기의 역할(役割)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요즘의 신세대들이 중봉 선생에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점이다. 존경할 만한 위인, 더 간단하게는 인생의 멘토를 쉽게 설정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중봉 선생은 정신적(精神的) 또는 실천적(實踐的) 청년정신(靑年精神)의 표상으로 다가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 책의 간행은 스스로에게도 중봉 선생 선양(宣揚)에 대한 가편(加鞭)이라 할 수 있다. 저서 간행과 학술발표대회 개최, 유적답사,

중봉조헌문학상 제정, 중봉 선생 동상 건립 등 선생을 모시는 여러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늘 턱없이 부족함을 느낀다. 시대의 흐름과 문화(文化)를 향유(享有)하는 사람들의 정서(情緒)에 따라 역사와 위인을 새기고 모시는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 문화유산은 이미 형성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간행을 기점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중봉 선생의 정당한 자리를 폭넓게 확보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 이것이 위대(偉大)한 역사(歷史)에 대한 그리고 중봉 선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다.

중봉 선생의 선양에 관계하시고 또 관심 가지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0. 09.

重峰趙憲先生の 齋室, 金浦에서

## 重峯 趙憲과 그의 時代

### 目次

- ◇ 머리말 • 5
  
- I. 중봉 조헌의 현재적 의미 • 11
  
- II. 중봉 조헌의 세계인식 • 21
  - 1. 전심(專心)의 토대 • 21
  - 2. 의기(義氣)의 전개 • 31
  
- III. 중봉 조헌의 기대지평과 실천 • 55
  - 1. 교우(交友)로 가치관 확립 • 55
  - 2. 현실의 질곡(桎梏) 간파 • 71
  - 3. 도학(道學)의 세계 • 78
    - 1) 호학(好學)과 이천지학(履踐之學) • 78
    - 2) 위민(爲民)의 의리사상(義理思想) • 84
    - 3) 개혁사상의 실체 • 88
    - 4) 현실의 폐해와 해소 방안 • 93
    - 5) 현실성과 실용성의 균형 • 103
  - 4. 경제개혁의 험로(險路) • 109

5. 실천적 자세로 미래를 대비 • 118

IV.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실천과 의병활동 • 127

1. 전운(戰雲) 감지 • 129

2. 의병과 함께 • 147

3. 혈전(血戰)으로 탈환한 청주성 • 200

4. 죽음으로 승리한 금산전투 • 209

V. 다시 중봉 조헌을 위하여 • 231

◆ 年譜 • 235

# 여 백

## I. 중봉 조헌의 현재적 의미

중봉(重峯) 조헌(趙憲)은 1544년에 태어나서 1592년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의병(義兵)을 일으켜 금산에서 칠백의사와 함께 순절하신 의병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의병장으로만 활약했던 것이 아니고 당시 사회의 여러 제도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혁해 보려고 한 개혁사상가였음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그는 과거시험(科擧試驗)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가 벼슬도 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관직(官職)은 주로 교육에 종사하는 직책이 많았다. 특히 울곡(栗谷) 이이(李珣) 선생과 우계(牛溪) 성혼(成渾), 토정(土亭) 이지함(李之函) 같은 분을 스승으로 섬기며 그들로 부터 학문적 영향을 받음으로 해서 당대 사회의 그릇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중봉이 성장하고 활동하던 16세기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해 모든 문물제도가 운영되던 조선전기의 체제가 새로운 사회여건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를 단순히 조선 전기의 문물제도가 흐트러지고 사화(士禍)나 붕당(朋黨)의 발생으로 인해 지배층의 분쟁(分爭)이 심했던 때였다고만 생각하기 보다는, 농

촌에서 농사짓는 법이 바뀌고 지방도시에서 시장이 발달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발전과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선조(宣祖)의 즉위는 조선전기의 정치상황을 매듭짓고 새로운 사림(士林) 세력(勢力)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이른바 사림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림세력 사이에서는 종전의 훈구파(勳舊派)들을 처벌하고 새로운 사림(士林) 정치(政治)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맞지 않아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으로 갈라지는 붕당(朋黨)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를 종전에 일본인(日本人) 사학자(史學者)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정권쟁탈에만 몰두했다는 당쟁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사림파(士林派)에 의해 이루어진, 성리학(性理學)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정치형태(政治形態)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즉 붕당정치(朋黨政治)란 학문적 이론을 같이하는 학자들이 붕당을 만들어 서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건전한 정치형태로써 이는 지방의 중소지주(中小地主) 출신들이 농업생산력(農業生産力)의 증대에 힘입어 그 지위를 높여가면서 사림파라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해간 16세기 사회발전의 한 면을 반영한 결과였다. 중봉은 이 같은 붕당정치의 전개 속에서 을곡학파(栗谷學派)의 학자로서 정치개혁안을 제시하여 동인(東人)을 비판하고, 백성을 으뜸으로 여겨 이들을 잘 살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 사림정치의 시행을 주장(主張)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제개혁

(經濟改革)의 주장이나 군사제도(軍事制度)의 개혁 주장도 그의 정치개혁론과 마찬가지로 16세기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 조선전기의 토지제도인 과전법(科田法)은 각기 주어진 직분(職分)에 대한 대가(代價)로 토지를 나누어 준 것인데 15세기 말에 이르러 세금을 거두는 권리를 가진 국가의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는 눈에 띄게 약해져 갔다. 때문에 과전법은 직전법(職田法)<sup>1)</sup>·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sup>2)</sup>·녹봉제(祿俸制)<sup>3)</sup>로 바뀌어져 갔으나 그것도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개인이 많은 땅을 갖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의 토지가 많아지는 경제변화 속에서, 종래의 훈구파(勳舊派)가 특권을 갖고 옳지 못한 정치를 시행하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간 것이 바로 사림파(士林派)다.<sup>4)</sup>

16세기의 사회변화(社會變化)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나라에 특산물(特產物)을 바치는 공물제도(貢物制度)와 군대의 의무를 지는 군역제도(軍役制度)였다. 공물은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충당하기 위해 백성들이 각종 토산물(土產物)을 바치는 것인데 토지세보다도 더 부담이 컸으며, 또한 현물(現物)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폐단(弊端)이 따랐다. 더구나 병역의무인 군역(軍役)

1) 세조(世祖) 12년(1466)에 과전법을 대신해서 만들어졌으며 현직자(現職者)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제도이다.

2) 성종(成宗) 원년(元年)(1470)에 도입된 제도로 관청에서 직전(職田)의 조(租)를 받아 수조자(收租者)에게 해당액을 지급하던 제도이다.

3) 국가에서 관리에게 미곡(米穀)이나 포(布) 등의 현물(現物)로 지급하는 급료 제도이다.

4) 이석린, 『丁亂義兵將趙憲』, 신구문화사, pp.11~12.

은 토지에 대해 세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정(壯丁) 개인을 대상으로 책임을 지웠기 때문에 일반 양민(良民)들은 군대에 가거나 혹은 군에 입대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른바 봉족(奉足)<sup>5)</sup>이나 보인(保人)<sup>6)</sup>으로 군역의 의무를 다해야 했다.

이러한 병역의무는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양민만이 부담하였으며 세조(世祖) 때 보법(保法)<sup>7)</sup>으로 바뀌고 나서는 그 제도의 허술함 때문에 가난한 농민들의 파산(破産)이 급속히 일어나 16세기에는 군역 자체가 일종의 노동(勞動)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군대에 다른 사람이 대신 복무하는 제도가 생기고 그 대가로 받는 물건이 삼베로 고정되는 현상이 크게 유행하였다. 이와 같은 조선 전기의 세금 받는 제도가 변한 것은 당시의 전반적인 사회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농민들이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조헌은 이와 같은 사회 변화 속에서 농민들의 파산을 방지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安定)시키기 위해 세금 거두는 제도를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와 군사 제도의 개혁안(改革案)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16세기는 조선전기의 제도나 문물이 변화되어가는 시

5) 평민이나 천민이 출역(出役)을 하였을 때에 출역치 않은 남은 장정(壯丁)을 한두 사람 두어 집안일을 돕게 하는 일.

6) 군역을 면제 받은 장정으로 보미(保米)나 보포(保布)를 상납(上納)할 의무가 있는 사람.

7) 호패법을 실시하여 2정(丁)을 1보(保) 단위로 묶어서 1정(丁)은 정군(正軍)으로 초출하고 나머지 1정(丁)은 보인(保人)으로 남은 가족의 생계를 돕게 하였던 법.

기였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중봉이 많은 개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그가 선조(宣祖) 7년(1574)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뒤 중국에 대한 견문(見聞)이 넓어진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그것은 중봉이 명나라에서 돌아온 후 「팔조소(八條疏)」와 「십육조소(十六條疏)」를 지어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제도의 개혁을 주장한데서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그는 명나라의 문물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좋은 점은 배우고 맞지 않는 것은 버리자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의 개혁 주장은 명나라의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기보다는 오히려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변화에 바탕을 두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것은 그가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공부하였고 또 관직에 나아가서는 백성들의 실정을 잘 알 수 있는 낮은 직책을 가졌던 데도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선조 11년(1578)에 관리들의 업적을 돌아본 경차관(敬差官) 이산보(李山甫)는 “충청도(忠淸道)에서 제일 백성을 잘 다스린 분이 보은현감(報恩縣監)인 조헌”이라고 보고했던 것을 보면 백성을 아낀 중봉의 일면(一面)을 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백성을 위한 제도의 개혁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의 개혁안은 16세기 우리나라의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한 바탕 위에서 제시되었으며, 배운 것과 실천함을 함께 갖추고 백성을 근본으로 하여 오직 백성만을

위한 개혁안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그의 학문과 사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울곡(栗谷) 이이(李珣)를 비롯하여 토정(土亭) 이지함(李之函), 우계(牛溪) 성혼(成渾) 같은 학자들에게 배우면서 이루어졌다.<sup>8)</sup> 또 이지함의 소개로 알게 된 구봉(龜峰) 송익필(宋翼弼), 고청(孤靑) 서기(徐起) 등과는 평생 친구로 사귀었는데 이들이 인격과 실력을 갖추었으면서도 신분 때문에 나라를 위해 일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중봉은 조선사회의 신분제도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중봉은 단순한 의병장(義兵將)이 아니라 위대한 개혁사상가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sup>9)</sup>

그러나 민본정신(民本精神)을 바탕으로 한 중봉의 개혁주장이 담긴 「팔조소(八條疏)」는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으며 때문에 뒤이어 지은 「십육조소(十六條疏)」는 아예 나라에 올리지도 않았다. 이 두 개의 소(疏)에는 중봉의 개혁주장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가 죽은 후인 광해군 14년(1622)에 은봉(隱峰) 안방준(安邦俊)에 의해 『동환봉사(東還封事)』로 편집·출판되고 나서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그의 개혁안이 당시의 정치에 반영(反映)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그가 당시의 정치인들에게 인정(認定)받지 못한 점이라 생각된다. 선조(宣祖)를

8) 이석린, 『壬亂義兵將趙憲』, 신구문화사, p.13.

9) 이석린, 위의 책, p.13.

비롯하여 동인(東人)들은 중봉을 가리켜 “항상 옛 중국의 좋은 정치를 단시일 내에 이룩하려고만 했지 융통성이 없어 시끄럽고 요란하기만 하다”라고 평가하였으니 이는 중봉의 과격하고 지나치게 굳은 성격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는 당시의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이이, 성혼을 존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존중하는 사람들만 훌륭하다고 평가하여 일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율곡의 영향을 많이 받아 스스로 율곡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후율(後栗)이라는 호를 지어 불렀다. 따라서 그의 개혁론은 부분적으로 율곡 보다 더 구체적이고 훌륭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율곡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그러던 중 선조 17년(1584)에 율곡이 세상을 뜨게 되었는데 이는 정치적으로는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의 본격적인 대립을 가져오는 일이기도 했지만, 중봉 개인에게 있어도 스승과 후원자(後援者)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커다란 타격이 되었다. 따라서 그의 개혁론은 율곡과 서인을 감싸려는 입장에서 동인들의 세력 확장을 막으려한 경계(警戒)의 성격도 있지만 비교적 객관적이고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봉당(東西朋黨)의 대립이 진행되는 현실 속에서 정책에 반영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이다.<sup>10)</sup>

이와 같이 중봉은 조선중기의 사회에서 나타난 모순을 고쳐보려

10) 이석린, 앞의 책, p.14.

고 노력했던 개혁론자의 한 분인 동시에 임진왜란(壬辰倭亂) 같은 국가의 위기를 미리 내다보고 그 방비를 주장하기도 했으며 실제 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의병을 모아 싸우기도 했던 국난극복의 실천자(實踐者)이기도 하였다. 그는 백성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당시의 사회적 폐단을 고치는 길만이 국가를 튼튼히 하고 이민족의 침입에 대비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다. 특히 왜란에 대비하자는 그의 주장은 일찍이 율곡이 주장했던 십만양병설(十萬養兵說)과 비교되는 것으로, 국방을 강화하고 군사제도를 개혁하자는 토대(土臺) 위에서 제안된 것인데 실제 왜란이 일어나고 그 진행된 상황을 살펴볼 때 매우 적절한 대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왜란이 일어나면 중국(中國)이나 유구(琉球) 및 남방(南方)의 여러 나라들과 연합하자고 제안한 것은 매우 훌륭한 대비책(對備策)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의 주장이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영호남지역에 대한 대비책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했던 구체적인 제안이었으며 이후 실제 왜란이 일어나게 되자 그는 평소에 주장하던 대로 실천하고자 의병활동(義兵活動)을 전개하였다. 그는 관군(官軍)들이 연달아 패전하는 가운데 충청도지방에서 제일 먼저 의병을 일으킴으로써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게 한 지도자적(指導者的) 역할을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청주성(淸州城)을 왜군(倭軍)으로부터 되찾고 금산성(金山城)에서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어 충청도와 호남지방을 지키는데 큰 몫을 해냈으니 이는 임진

왜란사(壬辰倭亂史)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차지하는 부분이다.<sup>11)</sup>

그동안 임진왜란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왔고 또 임진왜란 중에 활약했던 장군들이나 의병에 대한 책도 몇 권 나온 것이 있다. 그러나 아직 증봉에 대한 변변한 책이 없어 아쉬움을 갖던 중 이제 조그만 책을 내놓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증봉의 일생을 엮어 어렵고 불우했던 그의 어린 시절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이 배울 점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하며, 그가 당시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었으며 그 개혁안은 무엇이었는가를 정치개혁안(政治改革案)·경제개혁안(經濟改革案)·국방강화책(國防強化策)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왜란이 일어나기 전의 왜에 대한 그의 외교적(外交的) 생각은 어떠했고, 왜군이 침입할 것을 확신한 그가 어떤 방법으로 왜군침입에 대비하고자 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 왜란이 일어난 후에 증봉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의병을 모으고, 그가 모은 의병들이 왜군과 어떻게 싸웠으며 군율(軍律)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실제 전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고 청주성 탈환의 상황과 그 역사적 의미는 어디서 찾을 것인지 또 금산에서 칠백의사(七白義士)와 함께 장렬(壯烈)히 순절(殉節)하였는데 금산성 전투의 가치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어떤 것인가를 검토해 봄으로써 조헌의 조국에 대한 참된 사랑의 교훈(教訓)이 무엇이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11) 이석린, 앞의 책, p.15.

여 백

## II. 중봉 조헌의 세계인식

### 1. 전심(專心)의 토대

조헌은 조선(朝鮮) 중종(中宗) 39년(1544) 6월 28일 경기도 김포시 서쪽 감정동에서 아버지 응지(應祉)와 어머니 용성 차씨(車氏)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황해도 백천군이며 휘(諱)는 헌(憲), 자(字)는 여식(汝式)이다. 그는 자신의 호(號)를 후율(後栗) 또는 도원(陶原)이라고 했다. 중봉(重峯)이라는 호(號)는 후인들이 자주 불렀던 것이다.

조헌의 가계는 아버지는 비록 벼슬은 하지 않았으나 대대손손(代代孫孫) 문무(文武)를 겸한 핏줄을 이어받은 가문의 자손이었다. 그의 12대조인 문주공(文冑公)은 고려 원종 때 지금의 국방장관(國防長官)격인 병부상서의 벼슬에 올랐다. 당시 고려는 몽고의 침략에 전 국토가 초토화 되다시피 한 난국(亂局)이었다. 문주공은 원종의 명으로 원나라의 서울에 가 임금을 알현(謁見)하고 원나라 군사들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온갖 살상(殺傷)과 방화(放火) 및 약탈(掠



우저서원(牛渚書院) :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서원. 1648년(인조 26)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선조 초기에 통진현감으로 있으면서 유생을 훈도한 조현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69년경 김포 유생들이 청액소를 올려 사액을 청하였지만 한창 침설(蠶設)에 따른 폐단이 논의되던 때라 실현을 보지 못하였으며, 1675년(숙종 1) 남인 정권하에서 총절장려책의 일환으로 현판을 하게 되어 '우저(牛渚)'라는 사액을 받았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며 1868년(고종 5)경 홍선대원군의 서원철폐시 훼손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 중의 하나이다. 1973년에 보수하고 단장을 신축하였다. 경내의 건물로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으로 된 사우(祠宇),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된 강당과 비각(碑閣), 내삼문(內三門), 외삼문(外三門) 등이 있다. 사후에는 조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매년 봄과 가을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이 서원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다.

奪)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등의 폐단(弊端)을 간곡하게 아뢰므로써 원나라 군사를 철수(撤收)시키게 하였다.

8대조 천주(天柱)는 고려 공민왕(恭愍王, 1361년) 때 지금의 대장격인 상장(上將)으로 있으면서 홍건적의 난을 평정하다 안주 싸움에서 장렬히 전사한 이름난 용장이었다.

조선에 들어와 5대조 환(環)은 초야(草野)에 묻혀 있던 선비로 세

종에게 알려져 특별히 경기도사(京畿都事)에 제수(除授)되고 품계가 통정대부(通政大夫)로 나주 목사를 지냈다.

할아버지 세우(世佑)는 조광조(趙光祖)의 문인(門人)으로 충무위 부사직(忠武衛副司直)을 지냈으며 처음으로 통진(通津) 석현(石峴)으로부터 김포시(金浦市) 서쪽 감정동(坎井洞)으로 이사하였다.



조현 선생 부모님의 묘소(김포시 감정동 소재)

아버지 응지(應祉)는 성수침(成守琛)의 문하(門下)에서 수학(受學)하였으며 묘(墓)는 김포시(金浦市) 서쪽 감정동(坎井洞)에 있다.

이런 혈통과 가문을 이어온 아버지 응지(應祉)가 김포시 감정동에서 살게 된 것은 조광조(趙光祖)의 문인(門人)으로 충무위(忠武衛)

부사직(副司直)을 지낸 할아버지 세우(世佑)가 통진(通津)으로부터 감정동으로 이사를 온 뒤부터였다.

응지(應祉)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권세(權勢)도 없었고 가진 것이라곤 초가삼간(草家三間)에다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발밖에 없었다. 비록 가난하고 한미(寒微)한 가정이었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혈통(血統)과 가문(家門)에 대해서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봄이 되면 밭을 일구어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화목(和睦)하게 집안을 꾸려 나갔다.

조헌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부모에 대한 효성(孝誠)이 지극하였고 비록 가난하기는 하였지만 부모의 뜻에 언제나 순종(順從)하였다. 그의 행동거지(行動舉止)는 오직 부모의 명령에만 따랐고 평소의 용모(容貌)도 단정(端正)하고 엄격하였으며 한눈을 팔지 아니하여 동료들도 함부로 행동하거나 농담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조헌을 일러 당시 사람들은 기저귀를 면하면서부터 부모를 섬기는 예절(禮節)을 알았고 부모의 분부가 있으면 반드시 꿇어앉아 대답하고 모든 행동을 공손(恭遜)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런 조헌의 모습은 여러 일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조헌은 다섯 살 때 하루도 빠짐없이 서당(書堂)에 나가 천자문(千字文)을 배웠다. 어느 날 그가 동네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임정(林亭)에서 천자문을 배우고 있을 때의 일이다. 갑자기 나팔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며 밖이 소란하였다.

마침 이 지방을 다스리는 고관(高官)의 행차가 있었던 것이다. 여러 아이들이 앞을 다투어 나아가서 그 행차를 구경하였으나 조현은 홀로 단정히 앉아 글만 읽고 있었다. 이를 본 고관이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에서 내려와 그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꿇어앉아서 “전심(專心)으로 글을 읽는 것은 아버지의 분부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고관은 크게 칭찬하며 그의 부친을 찾아보고 말하기를 “이 아이는 뒷날에 반드시 큰 선비가 되어 세상에 도(道)를 심을 것이니 공을 위하여 깊이 경할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조현은 몸과 마음을 다해 효(孝)를 행하며 자신 성장의 근본으로 삼았다.

또한 선생은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하여 추운 겨울에 옷과 신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참으며 스승을 쫓아 눈바람을 피하지 않았다. 곡식이 익을 때면 아버지의 명(命)으로 들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다. 이 때 이웃에 사는 아이들도 선생을 쫓아 들에서 같이 자면서, 배운 것을 밤이 깊도록 읽었다. 이웃 아이들은 글을 읽다가 앉은 채로 먼저 잠이 들었지만 선생은 글 읽기를 그치지 않았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닭이 울면 또 일어나 책을 읽었다. 이웃 아이들은 선생의 글 읽는 소리에 놀라 깨어나서 늘 선생의 정진(精進) 하는 모습에 이르지 못함을 한(恨)스럽게 여기고, 있는 힘을 다하여 경쟁하였으나 끝내 선생을 따르지 못하였다.

조현은 들에서 소를 먹일 때도 반드시 책을 가지고 다녔으며, 비가 오면 샷샷 밑에 감추고 읽다가 때로는 소의 간 곳을 몰라 찾아

헤맸다. 매일같이 스스로 나무를 하여 아버이의 방을 덮히고 불을 다 피우고는 그 불빛을 찾아 글을 읽었다. 점차 장성(長成)하여서는 농사를 지어 아버이를 봉양하였다. 들에 가면 두렁에 나무를 가로 질러 놓고 그곳에 책을 두었다가 여가(餘暇)만 있으면 책 읽기를 한결 같이 하였다.

열 살이 되던 해(1553) 조헌은 낳아 주신 차씨 부인을 여의게 되었다. 뜻밖에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만 같았지만 그는 결코 당황하지 않았고 그 애모(哀慕)함은 어른과 같았다. 그 후 계모(繼母) 김씨(金氏)를 맞아서도 조헌은 친어머니를 섬기는 것과 같이 공경과 효성이 지극하였다. 계모 김씨는 성품이 꼭 엄한 편이었고 조헌을 아주 까다롭게 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서운한 기색이 없이 오히려 새 어머니를 항상 웃는 낯으로 대하고 부름이 있으면 늘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하였다.

하루는 그가 외가(外家)에 갔었는데 외조모(外祖母)께서 계모 김씨의 행실(行實)을 들어 울면서 말하기를 “너의 어미가 너에게 대하는 것이 이러하니 장차 어떻게 살아가겠느냐?”하니 선생은 고개를 숙이고 앞드려서 대꾸도 하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 뒤 몇 달 만에 다시 외가에 가니 외조모가 “너는 어찌 오랫동안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헌이 대답하기를 “전에 왔을 적에 할머니께서 제 어머니의 잘못을 직접 들어서 말씀하시니

자식으로서 그 말씀을 차마 들을 수가 없어 오랫동안 오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이때 외조모는 그의 말을 듣고 크게 어질게 생각하여 이 뒤로는 계모 김씨의 잘못을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선생이 부친을 여윈 뒤에도 김씨는 그를 맞기를 더욱 엄하게 하여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준엄하게 꾸짖었으나, 선생은 지극한 효도로써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고 종일(終日) 조심하여 그 마음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김씨가 혹 몸이 불편하면 의관(衣冠)이나 신발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바삐 돌아다니면서 시중을 들었으며 밤낮으로 내실(內室) 문 밖에 엮드려 있기도 했는데 혹 십수일(數十日)이 되어도 그 정성이 더욱 두터워만 갔다.

선생이 순국(殉國)한 후에 김씨는 친자식을 잃은 것과 같이 슬퍼하여 주야로 울부짖으며 탄식하기를, “어찌 이런 훌륭한 인물이 세상에 다시 있으리요. 슬프구나! 참으로 내 아들이로다. 생모는 단지 낳아 주었을 뿐!”하고 탄식을 하였다. 계모 김씨는 조현이 순절한 뒤 8년 후에야 세상을 떠났는데 죽을 때까지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증봉을 애도하기를 자기 친자식처럼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그의 효(孝)의 실천은 모든 사람을 감동(感動)시키기에 충분했다.

열두 살이 되던 해(1555년) 증봉은 김황(金滉)에게 비로소 시서(詩書)를 배우게 되었다. 아직은 개구쟁이 노릇을 할 나이인데도 이

미 사서(四書)의 진리를 거의 깨닫고 마침내 경서(經書)를 대하게 된 것이다. 어려서부터 효성도 지극하였거니와 채주가 남달리 뛰어나고 고집까지 센 중봉은 경서를 읽고 또 읽으며 거기에 담겨진 진리(眞理)를 하나하나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참으로 즐거워하였다. 대학자(大學者)로서의 면모를 유년시절부터 보인 것이다.

조헌이 다니는 서당(書堂)은 그의 집에서 그리 멀지는 않았지만 서당으로 통하는 길은 숲이 우거진 산길이었고 또 으스스한 고개 하나를 넘어야 했다. 현재까지도 김포에는 조헌과 이 고개에 관한 전설(傳說)이 내려오고 있어, 이곳을 여우재 고개라 한다.



현재의 여우재 고개

서당으로 가는 길목인 이 고개는 백년 묵은 여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중봉이 이곳을 지나갈 때 매일 같이 변신하여 “지나가시는 어린 선비 양반(兩班)님 나를 떼어놓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며 그를 유혹하곤 하였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같이 이렇게 어여쁜 처녀가 나타나 중봉을 피자 어린 그는 한편으로 겁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好奇心)도 동(動)하였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중봉은 어느 날 스승에게 이 사실을 숨김없이 고하고 묘책(妙策)을 강구해 줄 것을 청하였다.

스승은 그의 사연을 다 듣고 난 후 “그 미녀(美女)의 입안에는 틀림없이 구슬이 들어있을 것이니 그 미녀가 너를 핏 때 주저하지 말고 그 구슬을 빼앗아 삼켜라. 그리하면 너는 후에 반드시 크게 성공할 것이니라.”라고 일러 주었다. 중봉은 스승이 일러주는 대로 그 미녀의 입안에 든 구슬을 빼앗아 삼켜버렸다. 그러자 그 미녀는 돌연 여우로 변하여 울며 달아났다는 얘기이다. 현재 이 고개에는 구두물과 통하는 넓은 길이 뚫려 옛 모습은 바뀌었지만 현재도 선생을 추억할 수 있는 장소로 회자(膾炙)되고 있다.

조현은 매일 밤에 『중용(中庸)』·『대학(大學)』과 『이소경(離騷經)』·『출사표(出師表)』를 외우고 읊고 강개(慷慨)하여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으며 닭이 울면 일어나서 또 이를 암송(暗誦)하였다. 또 『주자대전(朱子大全)』을 가장 좋아하여 모두 암송하였으며 먼

길을 여행(旅行)할 때에도 그 목록(目錄)만을 뽑아 가지고 다니면서 번갈아 외웠으며 어류(語類)도 또한 그렇게 하였다.

선생은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품으로 하루는 동리의 아이들과 개울에서 낚시질을 하였는데 다른 아이들은 고기를 많이 낚는 데에만 뜻이 있어 자주 자리를 이동하였지만 선생은 한 곳에 오래도록 머물며 고기를 낚았다. 저녁 무렵에 잡은 고기를 비교하면 늘 선생이 더 많이 잡는 것이었다. 선생이 살고 있는 곳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었다. 깊이는 한 길이 넘고 물고기가 매우 많았다. 하루는 동리의 아이들과 그 연못가에 놀러 갔다가 동리 아이들에게 “이 연못의 물을 다 퍼내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하고 친구들과 더불어 그 물을 퍼내고 있었는데 어느덧 해는 저녁 무렵이 되었으나 물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 동리 아이들은 싫증이 나서 선생에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이에 선생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말하기를, “산도 평탄하게 할 수 있고 하천도 막을 수 있거늘 이 일도 벌써 반은 했는데 어찌 포기 할 수 있는가?” 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가 버려 오직 몇 사람만이 남았다. 날이 저무니 남은 아이들까지도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집에 돌아갔다가 내일 다시 와서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그렇지 않다. 오늘 밤 이것을 중지하면 이 물이 도로 연못에 흘러들어 올 것이니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한 일이 수포로 돌아간다.”라며 남은 아이들을 강제로 권하여 밤을 새

위 그 물을 다 퍼내고 그 다음 날에 고기를 잡아 가지고 귀가하였다.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한 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끝을 내  
고야 마는 외곬지고 고집이 센 조현은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더욱 학문(學問)에 정진(精進)하게 되었고 어버이에 대한 효성(孝誠)  
또한 날로 지극해 갔다. 이러한 사실로 우리는 선생의 그 올곧고  
흐트러짐이 없는 실천력(實踐力)의 원동력(原動力)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 2. 의기(義氣)의 전개

조현의 유년시절에서 그의 강직한 성격과 부모에 대한 효행, 학  
문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성년(成年)이 되  
어서도 그칠 줄 모르는 학문에 대한 갈구(渴求)와 돈독한 사제관계  
(師弟關係) 그리고 벼슬에 나아가서도 자신의 신념(信念)을 굽히지  
않는 실천적(實踐的) 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생은 성년(成年)이 된 이후에도 침식을 잊어가며 경서(經書)와  
시서(詩書)에 몰두하여 진리를 깨닫고 되새기며 “아~ 하늘이 대장  
부를 낸 뜻이 어찌 우연이겠는가(天生男子之意 豈偶然哉)”하며 옛  
성현의 도를 실천할 것을 매일 같이 스스로 다짐하였다. “사람의  
자손이 되어서는 효행(孝行)에 그치고 사람의 신하(臣下)가 되어서

는 공경(恭敬)에 그친다.”라는 『대학(大學)』의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몇 번씩이나 되풀이하여 그 뜻을 되새겼는가 하면, 요순탕무(堯舜湯武)의 도(道)가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고 공맹정주(孔孟程朱)의 학문이 아니면 배우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그는 소를 물고 들에 나가 밭갈이를 할 때에도 밭두렁에 책걸이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책을 두었다가 틈이 나는 대로 읽었을 정도로 학문에 심취(心醉)되어 침식을 잊을 정도였지만, 낮에는 집안 농사일을 도와 아버지의 바쁜 일손을 덜어 주었고 봉양(奉養)에도 남다른 정성을 쏟았다.

또한 선생은 일찍이 보령지방(保寧地方)으로 이지함 선생을 조상(弔喪)하러 가는데 날이 저물어 가갯집에 투숙하여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마침 이생(李生)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이르렀다. 그도 하루 밤을 쉬어 가려던 터에 선생의 행색이 초췌한 것을 보고는 떠돌아다니는 친한 사람으로 여겼으나, 가만히 보니 용모가 뛰어난게 홀륭함이 서민과 같지는 않은 것이었다. 이에 곧 점사(店舍)를 떠나 다른 집으로 가려 하니 선생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이 집도 꽤 넓으니 하루를 같이 지내는 것도 무방(無妨)할 것이오.”라고 하였다. 이생(李生)은 이 말을 듣고 되돌아와서 머리를 조아려 성명(姓名)을 묻고는 곧 선생과 한 방에 머물게 되었다. 저녁에 선생은 종을 불러서 관술불을 밝히고 큰 주머니에서 책을 꺼내 의관을 정제하고 단정히 앉아 밤이 깊도록 책을 보았다. 그 책은 바로 송(宋)나라 때

의 명신(名臣)들의 언행을 수록한 책이었다. 선생은 이생이라는 사람이 선비로 가히 이야기 할 만함을 알고, 울곡 선생이 지은 『격몽요결(擊蒙要訣)』을 꺼내어 이생에게 보이면서 “일찍이 이 책을 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생이 못 보았다고 대답하니 선생은 말하기를 “수신(修身)과 응사(應事)의 중요한 점은 여기에 갖추어져 있어서 선비로서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하니 이생이 송구(悚懼)한 마음으로 경청(傾聽)하였다. 선생은 곧 큰 주머니 속에서 종이를 꺼내어 책을 만들고 베껴 써서 그것을 이생에게 건네주고 새벽닭이 울 무렵에야 자리에 누웠다. 잠시 후에 또 일어나 앉아서 책을 읽는데 이생이 며칠을 동행하였지만 한시도 책 보기를 폐(廢)하는 일이 없었고 말은 항상 수기독행지사(修己篤行之事)<sup>12)</sup>가 아님이 없었다. 이생이 조현이 타고 온 말에 실린 것을 살펴보니 그것은 모두 책과 관솔뿐이었다. 이처럼 선생은 힘써 배우며 또 후생(後生)들을 권장(勸獎)함이 이와 같이 매우 모범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가 되던 해(명종16년 : 1561년) 그는 영월신씨(寧越辛氏) 가문인 신세성(辛世誠)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다. 장가를 든 후에도 그는 항상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아 때로는 먼 길을 걸어 비슷한 연령의 선비나 학덕(學德)이 있는 웃어른들을 찾아 서로의 학문을 논(論)하고 가르침을 받기를 청하였다. “오! 학문을 배우기가 이렇게

12) 자기 스스로 행동을 성실히 함.

도 어렵단 말인가. 그러나 오직 학문을 배우고 닦는다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으랴.”하며 중봉의 마음속에는 늘 학문의 깊은 경지에까지 도달하고 싶은 욕망이 불꽃과 같이 훨훨 타오르고 있었으나 이제 그에게 새로운 진리와 학문을 가르칠만한 스승이나 선비를 만나보기란 아주 힘든 것이었다. “그렇지. 체계적(體系的)이고 높은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성균관(成均館)으로 나가 배우는 수밖에 없겠구나.”하며 중봉은 최고의 학문 전당(學問殿堂)인 성균관(成均館)에 유학하게 되었다. 그때가 조헌의 나이 22살 때(1565년)였다.

성균관에 유학한지 얼마 후 선생은 유생(儒生)들과 함께 요승(妖僧) 보우(普雨)를 배척하는 상소(上疏)를 올리고 몇 달 동안 대궐문 밖에 엎드려 임금으로부터 비답(批答)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당시 보우(普雨)는 명종(明宗)의 어머니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섭정(攝政)할 때 강원 감사 정만중(鄭萬鐘)이라는 사람의 천거(薦擧)로 봉은사(奉恩寺)에 있으면서 봉은사를 선종, 봉선사(奉先寺)를 교종의 총 본산으로 정하여 조선 초에 크게 억제했던 도첩(圖牒)을 주는 등 불교를 부흥시킨 장본인이었다. 이렇게 되자 태조(太祖)부터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던 나라의 기본 정책이 어긋나게 되었고 마침내 명종(明宗) 20년(1565년)에 문정왕후가 세상을 뜨자 유생(儒生)들이 들고 나섰던 것이다. 이 때 선생은 보우(普雨)를 배척(排斥)하는 운동에 함께 나섰던 것인데 몇 달이 지나자 다른 유생들은 피

로하고 싫증이 나서 어떤 사람은 바깥 숙소에서 쉬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왕래(往來)하였으나 선생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대궐 앞에 꿇어앉아 임금의 하답(下答)을 기다렸다. 이때 함께 있던 모든 유생들이나 이를 지켜보던 군중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결국 보우는 그 해(1565년) 제주도로 귀양 갔다가 이듬해 그곳에서 피살되었다.

이와 같이 조현은 매사 항상 의연하고 대범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20살이 되어 증봉은 서울에 불일이 있어 갔다가 집으로 오던 중 지금의 양화도[陽花津] 지역인 양천강(陽川江)을 건너게 되었다. 이 강은 한강(漢江)의 지류로서 김포(金浦)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김포로 오가려면 꼭 건너야 하는 길목이었다. 나룻배는 작은 편이었지만 증봉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사공이 노를 저어 절반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큰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치기 시작하였다. 갑작스런 큰 바람에 강물은 파도가 심하게 일고 배는 바람에 못 이겨 거의 뒤집혀질 지경이 되었다. “아이구! 나죽어, 사람 살려!”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죽을상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고불고 야단이었다. 그러나 오직 증봉만은 꼼짝도 하지 않고 태연하게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렇게도 세차게 불어 대던 광풍(狂風)도 언제 불었느냐는 듯이 곧 멈춰버리고 나룻배는 다시 맞은 편 나루터로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한바탕 홍역(紅疫)을 치르고 난 뒤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지

금까지 가만히 앉아 있던 증봉의 태도가 못 마땅하여 “여보시오 젊은 양반, 한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을 지경으로 위태롭게 되었는데 도대체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인데 꼼짝도 않고 앉아서 수수방관(袖手傍觀)하는 거요”하며 증봉에게 막 대들며 손찌검까지 하려하였다. 이에 증봉은 “죽음과 삶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울고불고 야단법석을 떠다고 그것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증봉은 오히려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웃으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의 나무람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증봉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흥분하여 “무엇이 어찌고 어찌! 인명(人命)이 재천(在天)이니 하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다 아는 일인데 당신이 얼마나 유식(有識)해서 인명이 재천이니 하며 훈계(訓戒)하는 거요”하며 한바탕 싸움을 해올 기세였다. 이때 이 배에 탔던 김후재(金厚載)라는 사람이 중간에 나서서 “여러분 잠깐 진정하십시오 이 분(증봉)은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으니 그렇게 무모하게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하며 주위 사람들을 만류하여 모두가 조용하게 되었다. 이런 인연(因緣)으로 증봉은 김후재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서로 예의(禮儀)로써 인사를 한 후 헤어졌다고 한다.

조헌의 인생과 학문과 사상의 근거에는 항상 스스로와 세계에 대한 자신감 있는 태도가 가로놓여 있다. 그 자신감은 정당함에서 배태되어 나오는 것으로 보편적인 원칙에 충실하려는 그의 일관된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조헌은 성균관(成均館)에 유학한지 1년만인 1566년 함경도(咸境道) 최북단에 위치한 온성도호부 훈도(訓導)에 제수(除授)되었다. 그

후 1년 후인 24살 때는 감시(監試)에 나가 동당삼장(東堂三場)<sup>13)</sup>에 모두 합격하였고 그 해 11월에는 병과(丙科)에 9번째로 급제, 교서관(校書館) 부정자(副正字)에 임명되어 경서와 서적 인쇄 등의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 비록 낮은 벼슬이었으나 이때부터 중봉은 강직한 성품과 끈은 의리로 여러 중신과 유생들로부터 총망의 눈길을 끌기 시작하였다.

25세가 되던 이듬해 선생은 평안도 북쪽 서남 해안에 있는 정주목(定州牧) 교수(教授)에 임명되었다. 정주라는 곳은 중국과 국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땅이라 옛날부터 북쪽 오랑캐의 침입이 잦았던 지방이며 선비의 기풍(氣風) 같은 것은 찾아보기가 힘든 곳이었다. 그러나 선생은 이곳에 부임을 해와 만 2년 동안 교육에 힘을 써서 선비의 기풍과 교육이 크게 진보(進步)하였다.

조현은 이후 27세 때에 파주목(坡州牧) 교수(教授)로 28세에 홍주목(洪州牧) 교수(教授)로 임명되었다.

그 해 가을 선생은 파주로 울곡을 찾아뵙고 배움을 청하는 한편 그와 함께 송도(松都)에서 서로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기기도 하였다. 울곡은 이때 48세였는데 그의 학문은 조선시대를 통해 성리학(性理學)의 최고봉을 이룬 대학자이었다. 대스승이요, 대선배인 울곡에게 직접 학문의 깊고 그윽한 경지를 듣고 배우니 선생은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었다. 그 후 선생은 집에 돌아와 울곡과 토정, 우

13) 문관의 등용자격 시험으로 시험 형식이 초장(初場), 중장(中場), 종장(終場) 등 3장(場)으로 나뉘어 있었다.

계 선생으로부터 배운 것을 밤이 새도록 읽고 음미(吟味)하였으며, 이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으니 그의 학문은 놀랄만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비록 관직에 있으면서도 배우기를 자청하여 학문에 심취한 선생은 후에 점(占)을 치거나 예언(豫言)하는 일에 거의 어긋남이 없을 정도로 통달(通達)하였다고 한다.

29세가 되던 해(1572) 그는 교서관(校書館) 정자(正字)에 임명되어 옛 관례에 따라 궁중 향실(香室)의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 그 해 6월 교서관(校書館)에서는 궁중의 불공(佛供)을 드리기 위한 향(香)과 자수궁(慈壽宮) 성숙청(星宿廳)에 바칠 향을 그에게 친히 봉하게 하는 일을 맡겼다. 선생은 이때 임금께 상소를 올려 이런 일은 유학을 숭상하는 나라의 시책(施策)에 위배되는 일이므로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간곡하게 청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 상소가 화근(禍根)이 되어 선생은 임금의 미움을 받아 관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관직을 그만두게 된 선생은 토정 선생과 충남 부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곧 그리로 내려가 그곳의 강사(江寺)에서 풍류를 즐기며 학문과 시세(時勢)를 논한 뒤 그와 함께 두류산(頭流山)으로 서기(徐起)를 찾아가 서로 학문에 대해 토론하였다.

중봉의 삶과 사상에 대한 신뢰인지 30세가 되던 해 그는 다시 임금의 명으로 교서관(校書館) 저작(著作)에 승진하여 임명되었다. 이때 맡은 직책 역시 교서관(校書館) 정자(正字)로 있을 당시와 마찬

가지로 궁중 향실(香室)의 봉향(封香)이었다. 선생은 다시 임금에게 글을 올려 “입으로는 성현(聖賢)의 글을 읽으면서 손으로는 부처에게 올릴 향을 봉하는 것은 신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청하였다(論香祝疏). 이 글을 받아 본 선조 임금은 크게 진노(震怒)하여 선생을 장차 엄한 극형(極刑)에 처하려고 하였으나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 홍문관(弘文館)은 물론 조정 대신들의 극구 반대로 벌을 면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던 후로 선생의 곧은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 그를 아는 사람이 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가 그와 친분(親分)을 맺기를 원하였다.

박순(朴淳), 소제(蘇齊), 이산해(李山海), 류성룡(柳成龍), 김성일(金誠一), 이발(李潑), 홍사신(洪司臣), 정여립(鄭汝立), 윤선각(尹先覺) 등 그 당시의 명사들이 국가의 안위가 선생에게 달려 있다고까지 할 정도였으니 그의 의로움과 인품이 어떠한가를 넉넉하게 짐작할 수 있다.

31세가 되던 해(1574년) 5월 10일 조헌은 질정관(質正館)으로 성절사(聖節使) 박희립(朴希立) 등과 함께 명나라에 가게 되었다. 가는 도중에 송도(松都)에 이르러 정몽주(鄭夢周)의 사당에 참배하고 박연폭포를 구경하였으며 평양(平壤)에 이르러서는 기자묘(箕子廟)에 배알(拜謁)하였다. 6월 26일 압록강을 건넜고 8월 4일 명나라 서울에 도착하여 17일 황제를 알현(謁見)하였다. 조헌(趙憲)은 명나라에서 약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고국을 떠나 그곳에 체류하는 동안

기행일기인 『조천일기(朝天日記)』를 썼으며 명나라의 눈부신 문물 제도와 발달된 모습들을 머리 속에 담는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청백리의 상징인 백이숙제(伯夷叔齊)의 사당인 청성사(淸聖祠)도 찾아보았다.

선생은 명나라에서 돌아와 다시 저작(著作)을 하였는데, 중국에 갔을 때 면밀히 살펴 본 명나라의 문물제도에서 본받을 만한 것을 팔조(八條)로 소(疏)를 지어 올렸다. 그것은 곧 성묘(聖廟)의 배향(配享), 내외(內外)의 서관(庶官), 빈천(貴賤)의 의관(衣冠), 연음(宴飮)의 식품(食品), 사부(士夫)의 음양(揖讓), 사생(師生)의 예접(禮接), 향려(鄉閭)의 습속(習俗), 군사(軍師)의 기율(紀律) 등이었다. 또한 별도로 명나라 조종(祖宗)의 착한 행실과 좋은 정치 등 십육조소(十六條疏)를 지었으나 앞선 팔조소(八條疏)가 채택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를 올리지 않았다.

이듬해 32세가 되던 해(1575년) 조헌(趙憲)은 교서관(校書館) 박사(博士)에 올랐고 그 해 호조좌랑(戶曹佐郎) 및 성균관(成均館) 전적(典籍),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 등을 거쳐 12월 통진(通津) 현감(縣監)에 제수(除授)되었다. 그는 통진 현감으로 있으면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였고 스스로는 검소하여 옛 폐단을 없애기에 힘쓰는 등 선정(善政)을 베풀어 관리들과 백성들이 모두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조헌(趙憲)이 이곳에 유임한 기간은 만 2년 동안이었는데, 어느 날 이 지방에 권세(權勢)를 믿고 모진 행패(行悖)를 부리

는 노비(奴婢) 한 사람이 있었다. 조헌(趙憲)은 그의 못된 짓을 법으로 다스리기 위해 엄한 매질을 하다 그만 그가 죽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는 후 이 지방의 간사한 무리들이 사방으로 조헌을 헐뜯고 무고하여, 결국 34세(1577)가 되던 해 겨울 누명을 쓰고 인근 부평(富平)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그가 귀양간 지 얼마 안 되는 이듬해 1월 24일 부친 응지 공(應祉 公)이 세상을 떠났다. 귀양을 간 곳은 그의 생가에서 불과 몇 십리밖에 안 되었으나 선생은 죄인(罪人)의 몸이라 조상(弔喪)도 못하였다.

비록 집안은 가난하였지만 늘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좌우명(座右銘)처럼 말씀하시던 부친, 그것도 유배 중에 상을 당하여 마지막 임종마저 지켜보지 못한 조헌에게는 평생(平生)에 이보다 더 큰 슬픔은 없었다. 조헌은 부친을 잃은 슬픔에 아침저녁으로 땅을 치며 통곡하니 듣는 사람마저도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 조헌은 후에 귀양에서 풀려나 부친이 임종 때 소고기를 드시는 게 소원이었으나 집이 가난하여 드리지 못했다는 집안 식구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후부터는 소고기를 대하면 늘 눈물을 흘렸고 평생토록 소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그 해 윤 4월 그는 충남 보령으로 가서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 선생의 묘소를 찾아 제사를 드렸다. 조헌은 토정(土亭) 선생을 제사지낸 뒤 명곡서당(鳴谷書堂)을 찾아가 몇 달 동안 그 지방 유생들에게 강학(講學)을 하였고 그 해 가을에는 해주 석담(石潭)으로

스승 율곡(栗谷)을 찾아 이곳에서 여러 달 동안 율곡(栗谷)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한편 유생들에게 강론도 하였다. 조헌의 사상 형성에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율곡(栗谷)이다. 조헌은 그의 호(號)까지 율곡(栗谷)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후율(後栗)’이라고 정하고 평생 동안 율곡(栗谷)을 존숭(尊崇)하였다.

38세가 되던 해(1581년) 봄 조헌은 이조좌랑(吏曹佐郎)에 임명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전라도사(全羅道事)로 부임하였다. 그는 전라도사로 있으면서 연산군(燕山君) 때 실시해온 곡물(穀物)로 바치는 세금이 너무 과중하여 이를 혁신할 것과 율곡이 동인 세력의 미움을 받자 율곡(栗谷)을 옹호하는 「병술소(丙戌疏)」를 올려 율곡(栗谷)을 극구 두둔하였다.

중봉은 전라도사(全羅道事)에 부임한지 1년 후(1582년) 임기가 만료되어 종묘령(宗廟令)에 전임 되었다가 그해 8월 보은 현감(報恩縣監)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중봉이 현감을 택한 것은 어머니를 보양하기 위해 한직인 외직(外職)을 자청(自請)했기 때문이다.

보은 현감에 부임한 지 몇 달 만에 중봉은 비언칠사(備言七事)의 소(疏)를 지었으나 임금께 올리지는 못하였다. 중봉은 이 소를 통해

오늘날 수령(守令)된 자들은 모두가 농업(農業)과 상업(商業)을 성(盛)하게 하고 호구(戶口)를 증가시키며 학교를 일으키고 군정(軍政)을 닦으며 부역(賦役)을 고르게 하고 사송(詞訟)<sup>14)</sup>을 간결

14) 소송(訴訟)에 관한 규정인데 지금의 민사(民事)에 관한 각종 소송으로 볼 수 있다.

하게 처리하고 간사하고 교활(狡獪)한 무리들을 없애는 칠사(七事)<sup>15)</sup>를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나 신(臣)의 생각으로는 한 가지도 능(能)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당시의 시폐(時弊)를 한탄하였다.

중봉이 보은 현감(報恩縣監) 재임(在任) 2년째에 접어든 이듬해(1583년) 가을 이산보(李山甫)가 경차관(敬差官)이 되어 호서지방의 민정(民情)을 두루 살피고 돌아와 복명(復命)할 때 임금이 그에게 백성을 잘 다스리는 수령(守令)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때 이산보(李山甫)는 “신(臣)이 살피 본 바로는 충청우도(忠淸右道)의 보은(報恩) 현감으로 있는 조헌(趙憲)이 백성 다스림이 제일이라 하옵니다.”라고 아뢰었다.

그해 겨울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송순(宋諄) 등이 사사로운 원한(怨恨)을 품고 중봉을 파직(罷職)시킬 것을 임금께 간(諫)하였다. 이때 선조 임금은 이미 경차관(敬差官) 이산보(李山甫)로부터 중봉이 백성을 잘 다스린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었기 때문에 “조헌은 백성을 잘 다스릴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없다.”며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해인 선조17년(1584) 겨울 이들 소인배들의 계속적

15) 새로 임명된 수령(守令)이 대궐을 하직하고 임지(任地)로 떠날 때 계판(啓版) 앞에서 수령으로서 해야 할 7가지 일 즉 농상성(農桑盛), 호구증(戶口增), 학교흥(學校興), 군정수(軍政修), 부역균(賦役均), 사종간(詞訟簡), 간활식(奸猾息)의 7조목을 외우던 일.

인 모함(謀陷)으로 중봉은 마침내 파직(罷職)을 당하게 됐다. 억울하게 관직에서 물러난 중봉은 이러한 당쟁의 소굴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마음먹고 서울을 떠나 옥천(沃川) 안읍(安邑) 밤티(栗峙) 산속에 들어가 두문불출(杜門不出)하며 은둔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는 이곳에다 후울정사(後栗精舍)를 짓고 학덕이 있는 선비들과 더불어 지내면서 학문을 강론(講論)하고 몸 닦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한편으로는 가끔 밭에 나가 동복(僮僕)이 하는 일을 몸소 보살피기도 하고 이산 저산을 오르내리며 나라 일을 근심하다 돌아오곤 하였다.

1586년 나라에서는 명나라의 학제(學制)를 본받아 계도제독관(界道提督官)을 별도로 설치하여 오로지 교양의 책임을 맡아보게 하는 직책을 마련하였다.

이때 중봉은 교수(教授)겸 제독관(提督官)에 임명되어 공주(公州)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모함을 받아 파직 돼 옥천에 은거한 지 거의 1년 반이 넘었을 때다. 중봉은 공주에 내려와 선비를 양성하는 규범(規範)과 규약(規約)을 엄하게 하고 이를 몸소 실천에 옮기니 원근(遠近)에서 배우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꽤 많았다. 제독관이란 벼슬이 비록 한산한 자리이긴 했으나 당시 조정(朝廷)에서는 옳고 그른 판단의 뒤바뀐이 예사였고 또 스승과 벗들이 무고(誣告)를 당하게 됨을 슬퍼하여 중봉은 늘 “위망(危亡)의 환난(患難)이 아침 저녁으로 임박하였다.”라고 세상을 내다보았다.

이듬해(1587년)는 당쟁(黨爭)이 극도로 심화(深化)되었던 해이다. 그래서 중봉은 정여립이 장차 반란을 꾀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의 행패를 논박하는 「만언소(萬言疏)」를 지어 충청도 관찰사 권징(權徵)에게 주어 이를 임금께 올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권징은 중봉의 상소가 임금께 올라갈 경우 앞으로 큰 화(禍)가 미칠 것을 우려하여 슛제 중봉의 상소를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중봉은 이렇게 소를 올리기 다섯 차례(6월~9월 사이)나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중봉은 나라를 걱정하는 자신의 상소가 임금께 올라가지 못함을 개탄하여 관직을 버리고는 다시 옥천(沃川)으로 돌아와 두문불출(杜門不出)하며 후학(後學) 양성에 일생을 마치려 하였다.

1578년 11월 왜(倭)의 풍신수길은 사신(使臣)을 파견시켜 조선의 정세를 세밀히 파악해 오도록 하였다. 조헌은 왜국(倭國)의 사신을 극구 배척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소를 지어 당시 관찰사 이성중(李誠中)에게 주어 임금께 올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관찰사 이성중은 그의 소를 임금께 올리지 않았다.

중봉은 이처럼 자신의 상소가 관찰사에 의해 계속 묵살되고 있음을 크게 분개하여 그해 12월 몸소 머나먼 길을 걸어 대궐 앞에 나가 다시 지은 소와 올리지 못한 두 개의 상소를 아울러 올렸다. 중봉의 소를 받아 본 선조 임금은 크게 노하여 그 소를 불태우도록 하고 승정원(承政院)에 이르기를 “내가 차마 볼 수가 없어 이제 이

미 이것을 불태우게 하였다. 원컨대 사관(史官)은 짐(朕)의 악(惡)함을 크게 써서 후세를 일깨우게 하라.”라고 하였다.

1589년 여름 조헌은 도끼를 갖고 대궐에 나가 시국(時局)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소(疏)를 올렸다. 특히 이 소(疏)에서 당시 재상(宰相)이었던 이산해(李山海)가 권력과 당쟁에만 눈이 어두워 나라를 그르치고 있다고 통렬히 비난하였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소를 올렸지만 번번이 무위로 끝나고 만 중봉은 나라 안이 이처럼 어지럽고 위태로우니 이번만은 임금께서 반드시 자신의 소를 받아 줄 것으로 믿고 임금의 비답(批答)을 기다리고 있는 참이었다.

그때 중봉이 머무른 곳은 종루(鐘樓) 옆에 있는 초라한 민가였다. 그는 그곳에 유숙하면서 밤낮없이 초조와 근심에 싸여 임금의 비답을 기다렸는데 이를 보다 못한 집주인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 중봉은 묵묵부답(默默不答)인 채 눈물만 흘렸다. 당시 그 집은 지은 지가 꽤 오래되어서 자칫하면 기둥이 내려앉을 만큼 낡고 찌그러져 있었다. 마침 주인이 이런 사정을 미리 알아채고 하루는 큰 기둥나무를 구해다 지주(支柱)로 받쳐 놓았다.

임금님으로부터 혹 무슨 비답(批答)이 없을까하고 밖에 나갔다 돌아온 중봉은 낡은 기둥 옆에 큼직한 새 기둥이 받혀 있는 것을 보고 새삼 주인의 기지에 놀랐다.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하였다.

아, 슬프도다! 다 쓰러져가는 주인집도 이제 새 기둥으로 바꾸어 앞으로 몇 년간은 무너지지는 않을 텐데…… 만약 나라가 장차 기울면 누가 그것을 받혀줄 것이며 또 무슨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버티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단 하루라도 나라 일을 걱정해보지 않은 날이 없는 중봉은 불길처럼 떠오르는 분함과 울분에 못 이겨 눈물을 그칠 줄 몰랐다. 그러나 중봉의 슬픔은 바로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중봉의 이 상소로 말미암아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높고 낮은 벼슬아치들이 많았다. 그중 몇 몇들은 위에 아부(阿附)하고 잘 보이기 위해 그가 유숙(留宿)하고 있던 집주인을 관아(官衙)로 끌고 가 매질을 하는 등 괴롭히는가 하면 중봉을 유숙시켰다는 죄(罪)를 뒤집어 씌워 벌을 주기까지 하였다.

중봉의 상소(上疏)를 받아 본 사간원(司諫院)과 사헌부(司憲府), 홍문관(弘文館) 삼사(三司)에서는 소(疏) 내용에 현 대신(大臣)들의 비리(非理)가 날날이 밝혀져 있자 자신들의 과오(過誤)는 생각지 않고 중봉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가만히 두면 아주 위험한 인물(人物)이라고 단정, 그를 귀양 보낼 것을 선조(宣祖)께 매일 같이 아뢰었다.

선조(宣祖)는 처음에는 이들의 청원(請願)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삼사(三司)에서 계속 중봉의 귀양을 고집(固執)하고 나서자 어쩔 수 없이 그를 함경도(咸鏡道) 길주(吉州) 영동역(嶺東驛)에 유배(流配)하

도록 명(命)하였다. 당시 중봉은 대궐에 나가 소를 올린 뒤 임금의 비답이 없자 서울에서 옥천으로 내려와 있었다. 중봉의 유배(流配) 소식을 전해들은 의금부(義禁府) 나졸(羅卒)들은 “조대인(趙大人)은 너무나 충직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런 화(禍)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나 같이 탄식(歎息)하였다.

임금의 명(命)을 받고 내려온 나졸(羅卒)들이 이 사실을 중봉에게 알리자 그는 그 즉시로 귀양 채비를 서둘렀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곳에 도착할 수 있었으나 떠나 올 때 저희 동료들이 ‘조대인(趙大人)은 어진 분이라 유배(流配)의 명(命)을 받으면 한 시각도 지체(遲滯)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저녁에 도착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밤에 행장(行裝)을 꾸리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오니 원컨대 날이 밝는대로 떠나도록 하십시오.

나졸(羅卒)은 중봉의 사람됨과 그의 끈은 명성(名聲)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편의를 주기 위해 이렇게 말하였으나 중봉은 오히려 “임금님의 명(命)은 밤을 새울 수가 없는 것이다.”라며 그날 밤 굳이 길을 떠났다. 중봉은 귀양을 떠나는 날부터 유배지에 도착할 때까지 40여 일 동안 매일 매일 일기(日記)를 썼는데 이 일기가 바로 「북적일기(北謫日記)」이다.

중봉이 유배길에 나섰을 무렵은 장마철이어서 두 달 동안이나

계속된 비로 길이 흠탕으로 변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었고 기호(畿湖)에서 영동(嶺東)에 걸쳐 전염병이 창궐(猖獗)하여 이 병에 걸렸다면 10명 중 7~8명은 사망하였다. 중봉은 도보(徒步)로 길을 떠났는데 18세밖에 안 된 막내 아우 전(典)과 아들 완기(完基)와 더불어 옥천(沃川)에서 영동(嶺東)에 이르기까지 2천리의 험한 길을 가느라 발이 붓고 피가 터져도 그 의기(義氣)는 자약(自若)하였다.

중봉이 유배지(流配地)에 도착하니 온 마을이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아우 전(典)과 아들 완기(完基) 그리고 두 몸종도 길주(吉州)로 가는 도중 모두 이병에 전염되었는데 아들 완기(完基)는 겨우 살아났고 아우 전(典)과 두 종은 전부 사망하였다. 중봉은 동생과 아들이 전염병에 걸려 앓기 시작하자 온갖 간호(看護)와 정성(精誠)을 쏟았지만 귀양길이라서 한시도 지체(遲滯)할 수 없는 형편에다 약(藥)도 제대로 쓸 수 없어 결국 동생을 잃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의술(醫術)에도 정통하여 병을 앓고 있는 동네를 지날 때마다 침(針)도 놓고 약을 써 주어 살아난 사람이 매우 많았다고 한다. 동생을 잃은 슬픔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지만 중봉은 이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고 동생의 시체를 고향 김포(金浦) 선영(先塋)으로 보내어 안장(安葬)하기로 하였다.

그가 유배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되어 왜국(倭國)은 사신(使臣)을 파견, 우리 조정(朝政)과 통호(通好)할 것을 다시 요구해 왔다. 이에 조정에서는 의견이 엇갈려 결국 황윤길(黃允吉)과 김성일(金誠一)

등을 통신사(通信使)로 일본(日本)에 파견(派遣)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통신사의 일본 파견이 현 정세(情勢)에 비추어 볼 때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소(疏)를 지어 임금께 올렸다. 그러나 중봉의 이 상소(上疏)는 그곳 관찰사(觀察使)에 의해 묵살되어 결국 선조께 상달(上達)되지 못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정여립(鄭汝立)의 난이 일어난 이후 정여립의 난을 미리 예견하고 대책 강구를 설파(說破)한 조헌을 조정(朝廷)은 물론 전국 각지의 뜻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호남(湖南) 유생(儒生) 양산숙(梁山燾)과 양천회(梁千會) 등은 중봉을 유배(流配)에서 풀어 줄 것을 선조(宣祖) 임금께 청원(請願)하였다. 이들의 청원서를 받아 본 선조(宣祖)는 “당초에 중봉을 귀양까지 보내게 된 것은 사실 내 뜻이 아니었다.”라며 중봉을 귀양에서 풀어주게 하였다.

유배(流配)생활에서 풀려난 중봉은 귀향길에 북령(北嶺)에 이르러 감격에 찬 시(詩) 한 수를 지었다.

대궐(大闕)에 계신 임금님의 은혜가 무겁고  
 남녘땅에 계신 어머니의 병환(病患)이 깊고나  
 마천령(磨天嶺)을 되돌아오는 날에  
 감격의 눈물이 옷소매에 흥건하도다

1590년 봄 중봉은 역적모의(逆賊謀議)에 가담했다 죽은 친구 이

발(李潑)의 어머니 윤씨(尹氏)가 관가(官家)에 잡혀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바 있었다. 이발(李潑)은 중봉과 죽마고우(竹馬故友)로, 생전(生前)에 이발(李潑)은 중봉을 아꼈고 그의 등용(登用)에 대해서도 자기보다 상사(上司)인 조정(朝廷) 대신(大臣)들에게 품신(稟申)까지 했다. 그러나 이 율곡(李栗谷)을 둘러싸고 중봉과 이발(李潑)은 5년 전에 서로 결별한 처지였다. 결국 이발은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謀叛事件)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지만 옛 벗으로서의 우정(友情)만은 끊긴 것이 아니었다.

이발(李潑)의 어머니 윤씨(尹氏)도 이제 자식을 잘 못 둔 죄(罪)로 압송(押送)을 당하게 된 것이다. 중봉은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옥천(沃川)에서 술과 옷가지를 마련, 먼 길을 걸어 윤씨(尹氏)와 만나게 되었다. 서로 얼굴을 마주했을 때 윤씨(尹氏)는 중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에 조헌은 이발(李潑)과 친구인 것을 밝혔다. 그제서야 중봉을 알아본 윤씨(尹氏)는 크게 놀라며 “공(公)이 어인 일로 이렇게 몸소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내 아들이 일찍이 공(公)의 말을 들었던들 어찌 역적모의(逆賊謀議)에 가담(加擔)할 수 있었겠습니까.”하며 눈물을 흘렸다.

중봉 역시 백발(白髮)이 된 윤씨(尹氏)의 손을 잡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중봉이 준비해 간 술을 윤씨(尹氏)에게 권하자 “내가 평소에도 술로 몸을 지탱해왔음은 공(公)도 잘 아는 바 이지만 아들의 역적모의(逆賊謀議)가 있는 뒤로는 단 한 잔의

술도 입에 대본 일이 없었는데 공(公)의 정성이 이와 같으니 어찌 사양(辭讓)하겠습니까.”하며 여러 잔을 마셨다. 증봉은 윤씨(尹氏)와 헤어질 때 털옷을 그에게 친히 걸쳐주며 날씨가 차가오니 이 털옷은 행자(行資)에 보태 쓰라고 신신당부하였다.

1591년 왜(倭)는 현소(玄素) 등을 다시 우리나라에 사신(使臣)으로 보내와 명(明)나라를 쳐들어갈 길을 빌려줄 것을 청(請)해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증봉은 그해 3월 깨끗한 흰 옷으로 갈아입고 옥천(沃川)에서 급히 상경(上京)하여 도끼를 품고 대궐(大闕) 앞에 나가 왜국사신(倭國使臣)의 목을 베어 명(明)나라 조정(朝廷)에 아뢰기를 청(請)하는 소(疏)를 올렸다.

증봉이 상소(上疏)를 올리자 조정(朝廷)의 신하(臣下)들은 “조헌(趙憲)은 여러 차례 미치고 망령된 소(疏)를 올렸기 때문에 귀양살이까지 했는데 상소(上疏)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3일 동안 기다렸지만 위로부터 아무 회답(回答)이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증봉은 곧바로 명(明)나라 조정(朝廷) 및 유구(琉球)와 대마도(對馬島), 일본(日本) 유민(流民)에게 풍신수길(豐臣秀吉)을 타도(打倒)하는 내용의 글과 현소(玄蘇)를 목 벨 죄목(罪目) 및 영남(嶺南)과 호서(湖西)지방의 방어책(防禦策)을 지어 올렸다. 그러나 이 소(疏) 역시 승정원(承政院)으로부터 아무런 회답(回答)이 없었다.

나라 일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증봉은 비통(悲痛)에 잠긴 채 다시 옥천(沃川)으로 내려와 산수(山水)를 찾아 시름을 달랬다. 증봉이 옥천(沃川)에 내려온 1591년 음력 윤삼월(閏三月) 그는 박정로(朴廷輅)와 전승업(全承業) 등 문인(門人)들과 함께 시세(時勢)에 대해 자주 토론(討論)하였다. 조헌은 그해 겨울 선배요 친구였던 서기(徐起)가 작고(作故)하자 공암(孔岩)으로 가 문상(問喪)한 후 옥천(沃川) 집으로 돌아왔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발발(勃發)하던 1592년 음력 2월 18일 부인 신씨(辛氏)가 세상을 떠났다. 신씨(辛氏)가 증봉과 혼인(婚姻)한지 만 31년 되던 해였다. 신씨(辛氏)는 증봉이 귀양을 가고 옥(獄)살이 할 때 집안일을 꾸리고 시어머니 김씨(金氏)를 봉양(奉養)하는 것이 증봉과 같았으며 아들 완기(完基)를 훌륭하게 키워온 현모양처(賢母良妻)였다. 갑작스레 상(喪)을 당한 식구들은 슬픔 속에 어쩔 줄 몰랐다. 고향도 아닌 타향(他鄉)에서 장사(葬事)를 지낸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고 또 대대(代代)로 내려오는 선명(先塋)이 김포(金浦)에 있는지라 아들 완기(完基)는 그곳으로 가서 장례(葬禮)를 치르자고 하였다.

그러나 증봉은 변란(變亂)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격식(格式)도 갖추지 않은 채 집 뒤에다 임시(臨時)로 장사(葬事)를 치르기로 하였다. 신씨부인(辛氏夫人)의 정식 장례(正式葬禮)는 두 달이 넘은 4월 20일에야 겨우 치르게 되었는데 이날 장례에는 동네사람들은

물론 멀고 가까운 곳에서 문인(門人)들이 많이 모여 들었다. 이에 앞서 중봉은 부인(夫人)의 임시 장례(臨時葬禮)를 치른 후 3월 고향인 김포(金浦) 감정리(坎井里)로 찾아가 선친(先親)의 무덤 앞에 성묘(省墓)를 하였다.

조헌이 김포(金浦) 선영(先塋)에 성묘(省墓)를 하고 옥천(沃川)으로 내려와 한 달이 채 못 된 4월 20일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그는 즉시 어머니 김씨(金氏)를 청주 선유동(仙遊洞)으로 피신시킨 뒤 5월 초 3일 청주(淸州)에서 격문(檄文)을 띄우고 이우(李瑀), 이봉(李逢), 김경백(金敬白) 등과 함께 의병(義兵)을 일으켜 구국위민(救國爲民)할 것을 결의(決意)하였다.

### Ⅲ. 중봉 조헌의 기대지평과 실천

#### 1. 교우(交友)로 가치관 확립

중봉은 울곡(栗谷) 이이(李珣)(1536~1584),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1517~1578), 우계(牛溪) 성혼(成渾)(1535~1598), 세 사람을 평생의 스승으로 섬기었으며, 고청(孤靑) 서기(徐起)(1523~1591), 구봉(龜峰) 송익필(宋翼弼)(1534~1599), 명곡(鳴谷) 이산보(李山甫)(1539~1594) 등을 벗으로 삼아 마음 속으로 깊은 교류를 하였다.

울곡 이이와 중봉의 관계는 중봉이 28세 때 토정의 권유로 그 해 가을 울곡을 파주로 찾아가 만남으로써 이루어졌다. 중봉은 그 뒤 37세(1580:선조13) 때 가을에 해주(海州)의 석담(石潭)으로 울곡을 찾아가 강학하였으며, 이듬 해 전라도 도사(都事)로 부임시에는 울곡과 우계의 주선으로 당시 전라도 관찰사인 송강(松江) 정철(鄭澈)(1536~1593)을 가깝게 사귀기도 하였다. 41세(1584년) 때에 울곡이 서거하였으며, 당시 삼사에서 동인 세력들이 울곡과 가까웠던 인물들을 제거하자 중봉 역시 파직되어 옥천(沃川)의 안읍(安邑) 밤티(栗峙)로 내려가 후율정사(後栗精舍)를 짓고 후학지도에만 전념하

였다. 이듬해에는 당론이 격심하여 정여립(鄭汝立(1546~1589)이 우계와 율곡을 모함하고 이발이 이에 동조하자, 오랜 친구였던 이발과 절교를 하였다. 43세(1586) 때 10월 당시 정권을 잡은 이발·김홍민(金弘敏)·윤탁연(尹卓然) 등 동인이 계속 율곡과 우계 등을 추죄하려고 하자,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변명 구원하고 율곡을 배반한 정여립을 논척하였다. 중봉은 1589년 4월에 다시 상소하여 시정(時政)의 득실을 논하고 절박한 위기의식을 토로하였으며, 율곡이 살아 있었다면 대란도 싹트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직간으로 끊임없이 율곡을 변호하고, 스스로의 호를 ‘후율’이라고까지 지은 것으로 보아 중봉이 율곡을 얼마나 존송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다음은 율곡(栗谷)이 조현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일화이다. 이발(李潑)이 조현을 크게 중용하자 고 율곡에게 말하자 율곡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식(汝式)(중봉)이 비록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큰 뜻을 가지고 있으나 그의 재능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그는 고집이 너무 세어 시세(時勢)를 헤아리지 않고 문득 하(夏)·은(殷)·주(周) 3대의 훌륭한 치적만을 임금에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반드시 강경한 언사로 임금에게 간할 우려가 있으니 자네가 이미 중봉(重峯)과 마음으로 교분이 있는 터이니 단지 그를 발탁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혹 자네의 계획과 생각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여식(汝式)에게는

이로울 것이 없고 도리어 해가 될 것이다. 듣자하니 요즘 여식(汝式)은 글을 읽고 있다는데 5~6년쯤 기다렸다 그의 학문이 성숙된 후에 등용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자네는 중봉(重峯)의 등(登), 불용(不用)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는 율곡이 조현의 강직한 성격을 지적한 것으로 그의 학문적 성숙을 기다려 크게 등용하자는 신중론에서 나왔을 것으로 이해된다. 율곡은 조현의 생각과 인품(人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 특히 조현이 통진 현감으로 있을 때 율곡은 자신의 구폐책(救弊策)을 그를 통해 시행해 보고자 하였다. 이처럼 율곡과 조현은 깊은 마음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는 조현의 관직생활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토정 이지함은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1489~1546)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호방(豪放)한 성격에 의약(醫藥), 복서(卜筮), 천문(天門), 지리(地理), 음양(陰陽), 술서(術書) 등에 이르기까지 능통한 학자이다. 중봉은 28세(1571) 때 홍주목(洪州牧) 교수에 발탁되면서 토정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면서 사제(師弟)의 관계를 맺었다. 이때 토정은 중봉과의 문답에서 그의 견식(見識)과 덕기(德氣)를 보고 스스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사양하였으며, 당시에 학문이 고명하고 행실이 모범적인 우계, 율곡, 구봉과 함께 조카인 이산보와 문인인 서기 등 모두 5인을 사우(師友)로 추천하였다. 중봉은 이 후로 가끔 토정을 찾아 민폐(民弊)의 구제책(救濟策)과 경세



수심대 뒤 사당

책(經世策)에 대하여도 흉금(胸襟)을 털어 놓고 토론을 거듭했으며, 항상 자기를 생각해 주고 국사를 위하여 뜻을 같이하여 주던 스승을 잊지 못하였다. 당시 세인(世人)들이

중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모두가 우활(迂闊)하고 재주가 적고 쓸 만한 것이 없다고 할 때, 토정은 초야(草野)의 인재로서 쓸 만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중봉뿐이라고 하면서 그의 나라 사랑의 지극한 정성을 찬양하였다. 중봉은 토정과 함께 지리산에 간 일이 있는데 토정의 모든 언행의 일거일동(一舉一動)에 탄복하여 가르침 아닌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토정도 또한 매번 이르기를 '사람들은 중봉의 스승이 나인 줄 알지만 중봉이 정말로 내 스승인 것(眞我師)을 모르고 있다'고 하였으니 토정과 중봉의 관계가 각별한 사제의 관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선생과 토정(土亭)이 두류산으로 가는 도중 이런 일이 있었다. 충남 연산을 지날 무렵 토정은 갑자기 말을 채찍질하며 급히 달려갔던 것이다. "스승께서 무슨 급한 일로 저리 서두르실까?" 중봉은 스승이 급하게 말을 몰아가는 것이 이상하여 그에게 까닭을 물었다.

이에 토정은 “여기가 김개(金鑑)의 집이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당했던 일이 마음에 가득 차서 말이 빨리 달리는 것도, 채찍질한 것도 알지 못했노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선생과 토정이 동행하는 길에는 유복흥(柳復興) 등 토정을 따르는 제자 몇 명이 함께 있었는데, 이때 토정은 그들에게 “그대들은 나 때문에 금세(今世)의 일등인물(一等人物)을 보게 되었으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하며 선생의 사람됨을 칭찬하였다는 것이다. 학문과 삶의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실천하려는 선생의 행동이 당시 후학(後學)들에게 귀감(龜鑑)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선생은 파직(罷職) 후 몇 달 동안 이와 같이 스승과 친구들을 찾아 산과 강을 벗으로 삼아 학문을 강론(講論)하였다.

그리고 우계 성혼 또한 조헌의 교우(交友) 관계(關係)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 그는 휴암(休庵) 백인걸(白仁傑: 1497~1579)의 제자로 과거를 포기하고 파주의 우계에 은거(隱居)하였으며, 학문과 덕망이 뛰어나 문묘(文廟)에 배향(配享)된 학자이다. 우계와 중봉의 관계는 중봉이 27세(1570: 선조3)에 파주목 교수가 된 후 직접 우계(牛溪)를 찾아가 학문을 청하면서 이루어졌다.

성혼(成渾)은 선생보다 아홉 살이 위였지만 그의 학덕(學德)과 학문(學問)의 깊이는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르러 당시에 울곡(栗谷)과 비견할 만한 대학자였다. 선생은 “소생 헌(憲)이 이렇게 고명하신 선생님을 찾아 뵈는 것은 배움이 부족하여 알고자 함이오니 너그러

이 제자로 받아 주시고 학덕을 밝히옵소서.”하며 성혼을 스승으로 모시고 우주만물(宇宙萬物)은 물론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까지도 꿰뚫을 수 있다는 역경(易經)을 가르쳐 줄 것을 공손하게 청하였다. 이에 성혼은 역경(易經) 속에 담겨진 진리(眞理)를 자상하게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조헌이 자기를 스승으로 대하는 것을 끝까지 사양하고 오히려 두려운 벗으로만 생각하여 감히 스승과 제자의 예의로서 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조헌(趙憲)은 성혼을 끝까지 스승으로 섬겼다고 한다.

조헌(趙憲)은 교우관계를 맺는 데 신분(身分)이나 지위(地位)의 고하(高下)를 먼저 따지지 않았으니 다음의 인물들이 이와 같다. 고청(孤靑) 서기(徐起)는 심충겸(沈忠謙)의 노비이었는데 어려서 신동(神童)이라 불리었고, 백가(百家)에 통하고 특히 주역(周易), 천문(天門), 지리(地理)에 밝았다. 심충겸은 그를 해방시켜 처사로 불렀으며, 20세 이후 토정을 만나 성리학(性理學)에 심취하였으며, 중봉과는 절친한 관계로 지냈다. 1587년(선조 20) 12월 일본이 조선에 화친(和親)을 요구할 때, 조헌은 대궐에 나아가 왜국 사신의 척절(斥絶)을 요구하고 이산해(李山海: 1538~1609)의 나라 그림자를 논박하는 강력한 상소(上疏)를 올렸다. 왕이 진노하여 이 상소문을 불태워 버리게 하여, 중봉은 어쩔 수 없이 옥천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고청을 방문하였는데 고청은 ‘과격한 직소는 잘못’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중봉이 읽어 준 소장의 내용을 듣고는 의관을 바로하고 재배(再拜)하면서 “공의 이 소장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장차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구봉(龜峰) 송익필(宋翼弼) 역시 노비의 자손으로 과거(科擧) 시험에 나아가지 못하였으나 재주가 뛰어나고 세무에 통달한 영재로서 선조대의 팔대(八大) 문장의 일인으로 유명하다. 율곡, 우계 등과는 신분을 초월한 친밀한 관계이며, 서인(西人)의 막후 거물(謀主)로서 고양(高陽)의 귀봉산 기슭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중봉(重峯)은 구봉(龜峰)과 매우 가깝게 지냈으며, 당시 당쟁(黨爭)의 화로 피신중인 구봉을 맞아 중봉은 그를 극진하게 대접한 적도 있었다. 또한 중봉은 43세(1586) 때 올린 상소문에서 우계(牛溪)·송강(松江)의 등용을 주장하고, 구봉을 적극 추천하면서 그를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켜 후생을 가르치는 명곡정사(鳴谷精舍)의 장(長)으로 임용하여 직책을 주는 것이 자신의 10년 제독(提督)보다 효과가 큰 것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또한 1588년의 상소에서는 서인(西人)의 등용과 함께 지략(智略)과 장수(將帥)의 재질을 갖춘 구봉과 고청을 군중(軍中)에 두어 군기에 참여시킬 것을 역설하였다. 중봉(重峯)이 구봉(龜峰), 고청(孤靑)과의 비범(非凡)한 전략(戰略)·전술(戰術)을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군대의 문제가 중요한 당시에 그들의 발탁을 주장한 것이다. 이듬해 4월 중봉은 시정비판상소를 올렸는데 동인(東人)은 중봉의 배후(背後)에 있는 인물로서 구봉을 문제 삼기도 하였다. 또한

조헌은 송익필(宋翼弼)에 대해 “공은 학문이 깊고 경서(經書)에 밝아서 부친의 허물을 덮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성혼과 이이 두 현인이 모두 외우(畏友)로 삼았으며, 서기(徐起)도 그 문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제갈공명(諸葛孔明)을 알고 싶으냐. 오직 송구봉(宋龜峰)을 보는 것이 옳다.’”<sup>16)</sup>고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구봉과 중봉의 관계는 신분을 뛰어넘어 의기(意氣)가 투합(投合)된 긴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많지는 않지만 조헌과 관련된 사람을 알아보면, 먼저 이발(李潑)을 들 수 있겠다. 그와 이발과는 교분이 있었고 이발은 선생을 아주 깊이 공경하였던 것이다. 선생이 때때로 이발의 집을 방문하면 혹 당(堂)에 올라 그의 어머니께 절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뒤에 이발이 성혼(成渾)과 이이(李珣)를 배척(排斥)하게 되자, 선생은 이발과 교분을 끊고 여러 해를 왕래(往來)치 않았던 것이다.

또한 조헌은 송강(松江) 정철(鄭澈)과도 인연이 있는데, 조헌이 전라도사로 간지 얼마 안 되어 정철이 관찰사에 임명되어 왔던 것이다. 이 때 조헌은 최영경(崔永慶), 이발(李潑), 김우옹(金宇顛) 등 여러 사람들과 가까이 사귀어온 터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송강의 인간 됄됨이가 소인(小人)일 뿐만 아니라 흉협(凶險)한 인물이라고 말하면서 그와 함께 일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등 송강을 크게 비방

16) 『樸菴室記述』 18, 宣祖朝의 名臣

하였다. 이에 조헌은 그들의 말만 옳게 여기고 송강(松江)이 전주(全州) 감영(監營)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피해 가까운 삼례역으로 떠나갔다. 송강은 조헌의 이런 행동을 만류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 “도사(都事)도 사무를 인수인계(引受引繼)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토록 바빠 떠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며 말하니 조헌은 할 수 없이 전주 감영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송강(松江)은 술자리를 정중히 마련하고 “도사(都事)께서 나를 흉험한 인물이라 하여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떠나시려 하셨다는 데 그게 사실인가요?”라고 묻자, 조헌은 주저(躊躇)없이 “그러하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조헌(趙憲)으로부터 의외의 이런 대답이 나오자 송강(松江)은 “도사(都事)와 나는 지금까지 서로를 모르고 지내온 처지인데 어찌하여 내가 흉험(凶險)하다는 것을 알겠소. 열흘이요 한 달이요 같이 일을 하면서 정상을 살핀 후 사실대로 내가 흉험하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나를 버리고 떠나도 늦지 않을 것이요.”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헌(趙憲)은 “내 뜻은 이미 정한 바 있습니다.”하고는 마침내 떠나가고 말았다. 이 사실을 송강은 조헌의 스승인 울곡(栗谷)과 우계(牛溪)에게 알리고 그를 권유하여 전주 감영으로 돌아와 일해 줄 것을 부탁하니, 그들의 간곡한 권유에 조헌은 할 수 없이 다시 임지(任地)로 돌아왔다.

그러나 풍월을 즐기는 송강(松江)은 임지(任地)에 있으면서 술을 아주 즐겨 하였기 때문에 조헌은 이것이 매우 못마땅하였다. 어찌

다 송강과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될 때면 조헌은 늘 “수령이라는 자들은 백성(百姓)의 고혈(膏血)을 빨아 자기 뱃속이나 돈주머니만 채우는 데 급급할 뿐더러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 상관(上官)들에게 아첨(阿諛)하기가 예사이며 감사(監司)라고 하는 자는 백성의 즐거움과 슬픔은 생각지도 않고 오직 술이나 마시는 것을 자기의 직책(職責)으로 삼으니 이것이 어찌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것과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하며 송강을 책망(責望)하였다.

어느 날 송강이 강진 지방을 순시할 때 청조누상(聽潮樓上)에서 조헌과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었다. 이 누각(樓閣)은 바다 입구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일찍부터 호남(湖南)의 경관으로 이름이 나 있었는데, 송강이 이곳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손님들이 꽤 많이 몰려 들었다. 곧이어 주연이 배풀어졌다. 이때 송강은 술잔을 조헌에게 주면서 “오늘은 경치가 아름다워 술을 먹을 만한데 공은 왜 한사코 사양을 하느냐?”라며 적극 권하였다. 조헌(趙憲)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술잔을 뿌리치고는 “어떻게 백성의 피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끝내 술을 입에 대지 않으니, 송강도 결국 조헌의 굳은 의지를 꺾지 못하였다.

뒷날에 송강이 해남현(海南縣)에 가서 지인(知人)을 방문하니 주인이 그를 위하여 술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때 송강은 술에 취하여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傍人莫笑酩酊醉(방인막소명정취)  
 此酒應非赤子血(차주응시적자혈)  
 이 술은 백성들의 피가 아닐세.  
 주위에 임자님들 내가 취하였다 웃지들 마오.

이것은 조헌(趙憲)이 일찍이 송강(松江)에게 술 먹지 말 것을 충고하며 수령자(守令者)가 마시는 술은 백성들의 피라고 말한 것에 대한 풍자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던 뒤 두 사람의 교분(交分)은 점차 두터워졌는데, 조헌은 후에 “처음에는 내가 남의 그릇된 말만 믿고서 공을 잃을 뻔했다.”라며 송강에게 용서(容恕)를 청하였다고 한다. 조헌은 송강과의 관계 속에서 그에 대한 주변의 비판(批判)이 모함(謀陷)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사실대로 말하여 용서를 구함으로써 든실한 교우(交友) 관계(關係)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조헌(趙憲)은 교우관계를 맺되 원칙에 충실(充實)했으며 따뜻한 인정미(人情味)를 그 바탕에 두었다. 송강과의 관계에서는 주변의 평가를 자기 평가로 삼는 과오(過誤)를 범하기도 하였지만, 후에 진정(眞情)을 알고 이를 솔직하게 말하는 진솔(眞率)함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조헌(趙憲)은 그의 강직(剛直)하고 올곧은 성격으로 인해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자기의 철학(哲學)과 맞으면 끝까지 의리를 지켰고 그렇지 못하면 과감하게 절교(絶交)하는 편이었

다. 특히 앞에서 여러 차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이, 이지함, 성혼 세 분의 스승을 각별히 좋아하였는데 43세(1586) 때 선조(宣祖)에게 올린 상소문(上疏文)에서 세 스승에 대한 심회(心懷)를 알 수 있다.

신이 이 세상에서 스승으로 섬긴 사람은 이지함(李之菡)과 성혼(成滯)과 이이(李珥)입니다. 세 사람은 학문의 성취는 비록 같지 않으나 깨끗한 마음과 적은 욕심 그리고 뛰어난 행실(行實)이 세상의 모범(模範)이 된 것은 똑 같습니다. 신은 일찍이 세 분의 학문을 만분의 일이라도 배워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습니다.<sup>17)</sup>

중봉(重峯)이 세 사람의 스승을 통하여 배우고자 한 것은 무엇보다도 도학자(道學者)의 순수한 마음과 높은 경륜(經綸)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계 성혼과 토정 이지함은 모두 중봉의 학문과 덕기(德器)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고는 외우(畏友)로 대하고자 하였다. 특히 토정은 당시의 세인들이 중봉에 대하여 그 질박(質朴)한 성품(性品)으로 인하여 외형(外形)에 힘쓰지 않는 모습만을 보고 대부분 우환(迂闊)하고 재주가 적고 쓸 만한 것이 없는 인물(人物)로 대하고 있을 때 중봉의 도량이 당시에 유일한 일세(一世)의 인재(人才)가 됨을 확신하였다.<sup>18)</sup>

17) 『重峯集』 卷5, 「辨師評兼論學政疏」: 臣於斯世 所師事者三人 李之菡成滯李珥也 右三人者 學問成就 雖各不同 其清心寡欲 至行範世則同 臣嘗欲彷彿其萬一而不得

18) 『重峯集』 附錄 卷4, 「遺事」: 至論一世人材 則不及於先生. 蓋疑先生材短 而



이지당(二止堂):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33번지에 있는 조선 중기의 서당.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42호. 이 건물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송시열과 조현이 지방의 영재를 모아 강론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한 곳이다. 처음에는 각신동이라는 마을 이름에서 각신서당이라 하였으나 뒤에 송시열이 『시전(詩傳)』의 “고산중지 경행행지(高山仲止 景行行止)”라는 문구에서 이지당이라 하였다. 1901년(광무 5년) 옥천 옥각리 금·이·조·안씨의 네 문중에서 이 건물을 증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체 규모가 건평 40평 본채 1동과 누각건물 1동으로 되어 있다. 본채는 석축기단 위에 정면 7칸, 측면 1칸의 목조오가 팔작집으로 중앙 3칸은 대청이고, 양쪽 2칸은 거실로 되어 있다. 본채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누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목조와가 팔작집으로 높은 단 위에 누마루를 두고 주변에 난간을 두른 층루건축물이다. 현재 이 건물에는 송시열의 친필인 이지당의 편액이 걸려 있고, 대청에는 조현의 친필인 각신서당의 현판을 비롯하여 이지당기·이지당강학조약·중봉선생 친필문 등이 남아 있다.

중봉(重峯)은 스스로 지은 후율정사의 상량문(上梁文)에 “정암(靜菴)의 충효(忠孝)와 퇴계(退溪)의 학문(學問)이 한 줄기 맥락으로 밝혀 석담(石潭)에 있다.”<sup>19)</sup>라고 할 정도였다. 또한 중봉의 조부인 세

不適於用 雖諸老先生 亦以爲然 樵李士亭知之

19) 『重峰集』 附錄 卷1, 「年譜」(41歲): 靜菴忠孝 退陶學 一脈昭昭在石潭

우(世佑)는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1482~1519)의 문인이었으며, 부친인 응지(應祉)는 청송(聽松) 성수침(成守琛, 1493~1564)의 문인이다. 이를 보아 중봉의 학맥은 가까이는 울곡과 성혼에서부터 위로는 퇴계 이황과 정암 조광조의 도학사상에까지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학사상은 송대(宋代)의 정자와 주자학(朱子學)에 연원된 것이요, 궁극적으로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의 도(道)에 이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맥(學脈)은 중봉의 학문에도 지배적인 요소로 드러나는데, 중봉은 어려서부터 ‘장부(丈夫)를 탄생케 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신념’<sup>20)</sup>을 갖고 학문에 전심(專心)하였다. 특히 유교(儒敎)의 경전(經典) 공부에 대한 이해가 깊었을 뿐만이 아니라 고사(古事)와 금무(今務)에도 정통하였으며, 방대한 양의 독서로도 유명하다. 굴원(屈原)의 『이소경(離騷經)』, 제갈량(諸葛亮)의 『출사표(出師表)』 등을 암송하였으며, 특히 140권이 넘는 『주자대전(朱子大傳)』과 『주자어류(朱子語類)』를 모두 배송(背誦)하였다.<sup>21)</sup> 그러므로 1575년(선조8) 교서관에서 『주자대전』과 『어류』를 교정할 때,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 1512~1577)은 이 책을 교정(矯正)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중봉뿐이므로 교감이 끝날 때까지 중봉의 체적을 만류하는 진언을 선조에게 올렸던 것이다.<sup>22)</sup>

20) 『重峰集』附錄 卷1, 「年譜」(16歲) : 天生男子之意 豈偶然哉

21) 『靑莊館全書』卷56, 「盡業記」(古人勤學) 梅眉巖希春 背誦朱子大全 宋龜峯翼弼 背誦朱子語類 趙重峯憲 大全語類俱背誦

중봉은 평생을 두고 학문에 힘쓴 사람이다. 어려서 가난 속에 농사일을 할 때도 주경야독(晝耕夜讀)을 하였고, 과거를 급제한 뒤 사료(仕路)에든 뒤에도, 중국에 다녀오는 수레 속에서나 심지어는 귀양 가는 길에서도 항상 독서(讀書)를 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독서와 깊은 사색(思索)으로 인하여 고금(古今)의 일에 박학(博學)하였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학문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계 성혼은 “중봉의 학문이 일취월장(日就月將)하니 매우 두려운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울곡이 일찍 작고하여 중봉의 학문이 크게 진보한 것을 보지 못한 것을 크게 아쉬워하였다. 이를 통해 중봉의 학문적 기반이 매우 넓고 깊은 것을 알 수 있다.<sup>23)</sup>

중봉은 울곡과 우계에게서 『주역(周易)』을 배운 뒤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도 능통하였으며, 천문(天文)과 지리(地理)에도 밝아 실제로 인사(人事)에 활용(活用)하였다. 46세(1589) 11월 4일 유배(流配)에서 풀려난 뒤 올린 「청절왜사제삼봉사(請絕倭使第三封事)」에서 중봉은 천문을 관측하여 병란의 조짐이 있음을 살피고 왜란의 침입을 경계하는 상소를 올렸던 것이다.<sup>24)</sup> 중봉의 높은 학문적 수준에서 나온 이러한 예측들과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비책들이 임

22) 『重峰集』附錄 卷4, 「遺事」(眉巖日記) : 啓曰 博士趙憲 盡心詳校…請命仍仕校書館 以畢二書監校 何如

23) 『重峰集』附錄 卷2, 「行狀」 : 牛溪先生亦曰 汝式之學 日將月就 甚可畏也 盖栗谷早歿 未見先生學問之長進也

24) 『重峰集』卷7, 「請絕倭使三疏」 : 惟是仰觀乾象 則熒惑貫于尾箕 入南斗挾句狼星又有光耀 求之古籍 俱系兵象



임진왜란 때 중봉 선생이 이 느티나무에 말을 뺏어 놓고 군사들과 휴식을 취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난 뒤 모두 적중되었음을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선견지명(先見之明)에 감탄하였다. 그러므로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은 “중봉의 계책이 당시 제일이다.”<sup>25)</sup>라고 평가(評價)하였던 것이다.

중봉은 사람을 사귀는 데 귀천(貴賤)이나 현우(賢愚)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은 지성(至誠)으로 대하였으며, 그 외모가 장중(莊重)

하고 그 말이 엄정하여 자연히 사람을 감동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어리석은 사람이나 부인이라도 선생을 군자(君子)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sup>26)</sup> 토정은 중봉의 인간됨에 대하여 “가난에 편안하여 도를 즐기고, 명예(名譽)나 사리(事理)를 추구하지 않으며, 우군애국이 지성에서 나오므로 옛 사람에서 구하더라도 실로 그러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sup>27)</sup>라고 하였다. 월사(月沙) 이정구(李廷

25) 『宣祖修正實錄』, 宣祖 25年, 8月 1日(戊子) : 其策爲當時第一

26) 『重峯集』附錄 卷2, 「行狀」: 先生接人 無貴賤賢愚 一以至誠 … 故雖愚夫愚婦 莫不以先生爲君子也

龜, 1564~1635)도 중봉의 인간성(人間性)에 대하여 “평소에 남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비록 자기를 미치광이라 하여도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았다.”<sup>27)</sup>고 하였다.

이와 같이 중봉(重峯)은 사람 속에서 길과 의미(意味)를 구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였다. 교우(交友)에 있어 오직 신의(信義)와 의리(義理)로써만 대했는데, 이는 사람의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나라와 일반 백성의 일일까지 그대로 관철(貫徹)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2. 현실의 질곡(桎梏) 간파

조헌이 활동한 선조(宣祖) 연간(年間)은 봉당 정치가 아주 심한 때였고, 따라서 조헌의 온전한 위치를 가늠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그의 정치적 입지는 당시 봉당정치(朋黨政治)의 구조 속에서만 온전하게 이해되기 때문이다.

조헌이 옥천(沃川)에 내려와 초야(草野)에 묻혀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조정에서는 사색당파(四色黨派)가 극에 달해 서로 혈뜬고 모함하고 배척(排斥)하는 일이 더욱 심해져 갔다. 울곡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되어 정여립(鄭汝立)이 울곡(栗谷)과 성혼(成渾)을 모함하는가 하면 이발(李潑)도 이에 동조(同調)하기에 이르르게 되었다.

27) 『重峰集』附錄 卷4, 「遺事」: 安貧樂道 擺脫名利 愛君憂國 出於至誠 求之古人 實罕其儔

28) 『重峰集』卷首, 「抗義新編序」: 惟公雅自負 不求人知 人雖謂公狂 不屑也?

정여립(鄭汝立)은 울곡(栗谷)을 공공연히 배반(背反)하고는 “계미년(1583) 초여름에 나는 울곡(栗谷)의 무상함을 비로소 깨닫고 서한을 보내 그와 절교할 것을 알렸었다. 그러나 다만 이보다 일찍 절교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까지 하였다. 정여립(鄭汝立)의 이런 패륜(悖倫)을 본 울곡의 조카 이경진(李景震)은 임금께 상소(上疏)를 올리는 한편 정여립(鄭汝立)이 계미년에 보낸 편지까지도 함께 써서 바쳤다. 이때 여론이 들끓어 모두가 정여립(鄭汝立)에게 침을 뱉고 그를 비판하였는데, 이발(李潑)은 오히려 세상 여론이 그러다면서 정여립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때부터 조헌은 이발과 서로 모가 나게 되었고 틈이 벌어지게 되었다.

조헌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발을 찾아가 서로 옳고 그름을 토론(討論)하였으나 이발은 끝까지 조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조헌은 마침내 이발과 절교를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냈으나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옛 정을 못 잊어 늘 이발의 태도를 개탄(慨歎)하였다.

임금이 어진 사람을 친(親)하고 착한 사람을 벗으로 삼아 일찍이 수양하며 친히 모범이 되게 하시면 천하가 화(化)하여 령(令)을 내리지 아니 하여도 백성이 따를 것이니 이것이 바로 당우(唐虞)와 3대의 정치가 못 임금의 으뜸가는 것이옵니다. 우리나라가 군신(君臣)과 부자(父子)의 도(道)를 알게 된 것은 유현(儒賢)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색(李穡)과 정몽주(鄭夢周)가 이

학(理學)을 밝혀 고려(高麗)의 꺼져 가는 운명의 위급함을 연장함으로써 우리 조선의 문명을 창설하게 되었고, 김종직(金宗直),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등이 도학(道學)을 밝혔으며 조광조(趙光祖)의 등용(登用)으로 민속(民俗)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중략...

율곡이 선조 5년에 올린 소(疏)는 간사한 싹을 미리 내다보고 숨은 근심과 큰 탄식이 일자(一字), 일구(一句)가 모두 임금을 사랑하는 정상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정철(鄭澈)은 기대승(奇大升)에게 배웠고 기대승은 이황에게 배웠으며 율곡은 친히 이황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조광조를 사모하였으니 도덕(道德)과 모유(謀猷)와 기개(氣概)가 그 유래가 있습니다. 충렬(忠烈)은 위로 전하의 마음을 감동시켜 크게 임용되었고 정철의 청명(淸名)과 직절(直節)은 율곡(栗谷)이 중하게 여겨 같이 베풀하기를 기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합(補合)할 계획은 박순(朴淳)에게 있었으며 박순(朴淳)이 율곡(栗谷)과 송강(松江)을 천거함은 정승(政丞)으로 당연한 임무(任務)며 율곡(栗谷)도 임금께 모든 사리를 논할 때에 엄하고 자중한 선비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힘써 성훈(成渾)을 천거하였던 것입니다. ...저 유성룡, 김응남, 이발 같은 무리도 일찍이 청반(淸班)에 버려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직 발탁하여 주기를 빨리 하지 않았다 하여 반기를 들고 나와 산 사람은 몰아내기를 피하고 죽은 이는 추악하게 헐뜯어서 위로는 경상으로부터 아래로는 미천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몸을 용납할 곳이 없게 하였습니다. 어찌 군자가 정치를 하는 데 한 때의 현인과 충신을 괴롭게 굴어서 살 곳을 잃게 하겠습니까? 신이 이 세상에서 스승으로 섬기는 세 사람이 있으니 세 사람이 율곡(栗谷)과 우계(牛溪)와 토정(土亭)이옵

니다. 이 세 사람의 학문의 진도는 비록 다르지만 그 맑은 마음에 욕심이 적고 지극한 행실이 세상에 모범이 됨은 같사옵니다. 신은 이 세 사람이 신에게 가르친 바로써 선비들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데 간사한 말이 성행함으로 신을 울곡, 우계의 무리라 하여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험뜯고 소리도 사방에서 일어납니다. 신의 변변치 못함으로 인해 욕됨이 스승과 벗에게까지 미치니 신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소문(上疏文)을 올린 지 10여 일이 되어도 임금으로부터 아무런 비답(批答)이 내리지 않자 조헌(趙憲)은 피나는 정성(精誠)을 다하여 다시 소(疏)를 올려 사악(邪惡)함과 올바름의 분별(分別)을 재론하니 그 말이 더욱 명백(明白)하고 간절(懇切)한 것이었다.

이 때 선조 임금은 “그대의 소(疏)가 도달된 지 오래 되었도다. 그러나 요사이 짐(朕)의 심정이 편하지 못하여 읽어볼 여가(餘暇)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펴 보지 못 했으니 그대가 짐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머물러 기다리거나 그대 마음대로 하라.”고 비답(批答)을 내리는 한편 “중봉(重峯)이 직언(直言)을 구하는 소를 올렸으니 참으로 가상한 일이다”며 중봉(重峯)의 소에 회답(回答)을 주도록 명령을 내리었다.

그러나 조헌의 소를 검토한 홍문관(弘文館)에서는 오히려 현직 대신(大臣)들을 비난하는 내용(內容)이 들어있다는 등의 구실로 조헌을 죄인(罪人)으로 몰아붙였고 그에게 엄한 벌을 내리도록 하는

글을 임금께 올렸으나 선조가 이를 엄하게 물리쳤다고 한다. 또한 가장 친한 벗이었던 이발을 비롯하여 김홍민(金弘敏) 등도 잇달아 같은 내용의 소를 올리고 조헌에게 마땅한 죄를 내릴 것을 강경(強硬)하게 청하였으나 선조는 이를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조헌(趙憲)이 44세가 되던 이듬해(1587)는 당쟁(黨爭)이 극도로 심화(深化)되었던 해이다. 이 모든 것은 임금을 보좌(補佐)하는 신하들 가운데 파벌(派閥)을 조성하여 더 높은 벼슬자리와 명예를 얻으려는 간사(奸邪)한 무리들 때문이었다. 특히 정여립은 동인(東人)이 우세하여짐에 이에 아부(阿附)하여 동인 편에 서서 동인이 증오하던 율곡을 극구 비난하고 마침내 동인의 힘으로 수찬(修撰)이란 벼슬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런 심술이 선조(宣祖)의 눈을 거슬리게 되고 이에 그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전주(全州)로 돌아가게 된다.

고향에서 많은 선비와 접촉하는 동안 정여립의 이름이 날로 높아지자 은연중에 반란을 일으켜 정권(政權)을 잡고자 하는 야심(野心)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내다본 조헌은 정여립이 장차 반란(反亂)을 꾀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의 행패를 논박(論駁)하고 만언소(萬言疏)를 지어 충청도 관찰사 권징(權徵)에게 주어 이를 임금께 올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권징(權徵)은 조헌의 상소가 임금께 올라갈 경우 앞으로 큰 화(禍)가 미칠 것을 우려하여 아예 조헌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헌은 이렇게 소를 올리기 다섯 차례나 했으나 모두 거절

당하였다. 이에 조헌은 나라를 걱정하는 자신의 상소가 임금께 올라가지 못함을 개탄하여 관직을 버리고는 다시 옥천으로 돌아와 두문불출(杜門不出) 하며 후학(後學) 양성에 일생을 마치려 하였다.



표충사 : 옥천군(沃川郡) 안읍(安邑) 선생(先生)의 묘 아래에 있다. 선조(宣祖) 41년(무신(戊申): 1608)에 많은 선비들이 상소(上疏)하여 묘 아래에 사당(祠堂)을 세워 제사(祭祀)를 받들 것을 청하였고 조정(朝廷)에서는 이를 허락(許諾)하였다. 다음 해에 '표충'이라 사액(賜額)하고 관(官)에서 제수(祭需)를 지급(支給)하였으며 한정(閑丁)에게 급료(給料)를 주어 이를 지키게 하였다.

이미 조헌은 여러 차례 상소로 인해 동인(東人)으로부터 크게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말과 행동은 늘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동인(東人)들이 그를 공박할 때에 어떤 사람은 교묘(巧妙)한 말씨로 사람을 속인다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간사(奸邪)하고 악독(惡毒)하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도깨비 같다는 등 가지가지의 명목으로 그를 헐뜯었던 것이다.

당시 조헌은 동인들이 주장하는 논의(論議)는 오직 성혼(成渾)과 울곡(栗谷)을 배척하는 것으로써 출세의 밑천으로 삼고 국가의 안위(安危)와 생민(生民)의 애환(哀歡)은 곧 망각(忘却) 속에 버려두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그는 슬픔과 분노(憤怒)를 느끼고 인물의 본품(本品)이야 어찌 되었든 다만 그 형적(形迹)을 보아서 성혼(成渾)과 울곡을 추존(推尊)하는 사람은 모두 군자(君子)라 하고 그와 반대되는 사람은 소인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조헌을 원망(怨望)하고 원수(怨讐)로 삼은 사람이 많아 그런 오해를 중간에서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도 죄인으로 몰리게 되니 친구들도 모두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그가 온다는 말만 들어도 문을 걸어 잠그고 만나주지를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끝까지 우정(友情)을 변치 않은 사람은 오직 일송(一松) 심희수(沈喜壽)와 남창(南窓) 김현성(金玄成) 등 두어 사람뿐이었다.

조헌(趙憲)의 정치적(政治的) 대안(代案)은 동(東)·서(西) 붕당(朋黨)에 관계없이 꾸준하였으나 선조에게 용납(容納)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그의 근본(根本) 원인(原因)은 아무 것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그의 순수(純粹)하고 강직(剛直)한 성품(性品) 때문이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그의 정치적 입지를 협소(狹小)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사림정치(士林政治)를 지향한 그의 정치적 개혁안(改革案)은 상당히 실효성(實效性)이 있는 것이었는데, 단지 동인에 대한 비판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16세기의 사회변화에 적절

히 대응하려 한 정책 제시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의(意義)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3. 도학(道學)의 세계

#### 1) 호학(好學)과 이천지학(履踐之學)

조헌은 학문연구에 있어서 그 보편적인 정신을 성현(聖賢)의 학문(學問)에서 구하여 요순공맹(堯舜孔孟)을 원류(原流)로 하고 정주(程朱)를 정통으로 삼았다. 또한 도학사상(道學思想)의 태두(泰斗)인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와 퇴계(退溪) 이황(李滉)을 사숙(私淑)하였으며, 울곡(栗谷) 이이(李珣)를 스승으로 삼았다. 조헌은 스스로 울곡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의 ‘후울(後栗)’ 또는 ‘도원(陶原)’이라 하였던 만큼 그는 울곡 이이의 기발리승설(氣發理乘說)을 준봉(遵奉)한 울곡학과<sup>29)</sup>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봉이 41세(1584) 되던 해에 스승 울곡이 별세하자 옥천(沃川) 안읍(安邑) 울치산(栗峙山)에 서실(書室)을 짓고 이름을 ‘후울정사(後栗精舍)’라 하고 그 상량문(上樑文)에 “정암(靜庵)의 충효(忠孝)와 퇴계(退溪)의 학(學)이 일맥소소(一脈昭昭)하게 석담(石潭)에 있도다.”<sup>30)</sup>라고 하는

29) 김용현, 「울곡학파의 비판적 계승」, 『조선유학의 학파들』, 한국사상사연구회 편, 예문서원, 1997.

데에서 도통(道統)이 율곡에게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3세 때 공주목 교수 겸 제독(公州牧教授兼提督)이 되어 만언소(萬言疏)를 올리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이(李珣)로 말하면 이황(李滉)의 기침소리까지 친승(親承)하였고 또한 조광조(趙光祖)의 도통(道統)을 사모(思慕)하였으니 모유(謀猷)와 기개(氣概)가 스스로 외래(來歷)가 있사오며, 정충(精忠)이 격렬(激烈)하여 임금께서 그 뜻을 주심에 심력(心力)을 전포(展佈)하고자 하였습니다.<sup>31)</sup>

위의 우암 송시열의 이 말은 도학정신(道學精神)이 어떻게 흘러서 조헌에게 연결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밖에 조헌이 스승으로 모신 분은 율곡(栗谷) 이이와 평생 지우(知友)였던 우계(牛溪) 성혼(成渾)과 해우(海隅)에 은거(隱居)하던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을 들 수 있으며<sup>32)</sup>,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도 이에 속한다. 조헌은 관직(官職)에 있으면서도 때때로 스승을 찾아 성현(聖賢)의 학문(學問)을 연마(研磨)하였으며, 깊은 신뢰(信賴)와 이해(理解)에 도달하였다.

조헌의 학문은 단순한 이학론(理論學)이 아니었다. 중봉은 「상십

30) 『重峯先生文集』, 卷13 「後栗精舍上樑文」

31) 『宋子大典』, 卷107, 「重峯先生行狀」

32) 重峯은 公州牧에서 올린 「萬言疏」에서 율곡, 우계, 토정 세 사람을 스승으로 삼았고, 세 사람의 학문을 취했다고 했다.

육조소(上十六條疏)에서 “만약 가까운 것에서 일마다 옳은 것을 구하고, 말마다 선한 것을 취하여 분연히 뜻을 세워 쉬지 않고, 이를 행한다면 요순(堯舜)같이 될 수 있는 것도 멀지 않습니다.”<sup>33)</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실사구시(實事求是)가 목적이 아니라 요순지도(堯舜之道)에 들어가는 방안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훗날 실학사상(實學思想)의 학풍(學風)이 복고적(復古的) 의미를 지닌다는 견해와 상통한 점을 찾아볼 수 있거니와 현실적 출발점은 구시(求是)에 있었으나 도착점은 요순치세(堯舜治世)가 목표였음을 알 수 있다.

조헌의 충절정신(忠節精神)의 바탕은 어렸을 때부터 익힌 실천적(實踐的) 생애(生涯)에서 갖추어진 것이다. 중봉은 어릴 때부터 몸소 소를 몰아 밭갈이를 하였으며, 땀나무를 해다가 부모의 방에 불을 지피기까지 하였다. 3년 간 부평의 유배생활 속에서 궁경(躬耕)하면서도 책을 읽었고 실제로 몸에 익혔다. 이와 같이 중봉의 학문은 실천적(實踐的)이라 하지만 그의 호학태도(好學態度)는 유별난 것이었다.

그는 신체적 노동(勞動)을 하면서도 틈만 있으면 글을 읽었다. 밭갈이하면서도 쉬는 사이에 글을 읽었고, 일을 나가면 먼저 책을 올려놓을 받침을 가설(架設)하였으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나면 재속에서 불을 끌라 빛을 밝혀 글을 읽다가 꺼진 다음에 그만두곤 하였다. 또한 과거(科擧)를 보아 임로(任路)에 든 다음에도 손에서 책

33) 『重峯集』 卷4, 「上十六條疏」.

을 놓지 않았으며, 중국(中國)에 다녀올 때도 달리는 수레 속에서 독서(讀書)를 그치지 않았다. 여행을 하면 말에다 관술을 가지고 다니며 불을 밝혀 글을 읽었고, 함경도 길주로 귀양 갔을 때 전염병(傳染病)이 돌 때에도 사방(四方)에 시체가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독서를 그치지 않았다.

밤이면 중용(中庸)과 대학(大學), 굴원(屈原)의 『이소경(離騷經)』과 제갈량(諸葛亮)의 「출사표(出師表)」를 암송(暗誦)하다가 때때로 밤을 지새우곤 했다. 특히 『주자대전(朱子大全)』을 가장 좋아해서 모두 암송하게 된 후에는 그 목록을 만들어 여행 중에 읽고 또 읽었다.<sup>34)</sup> 또 배우고자 하는 이가 있으면 비록 나이가 30, 40이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학(小學)으로부터 시작했으며, 37세 토정 이지함이 졸(卒)하여 조문(弔問)을 갈 때에도 율곡의 『격몽요결(擊蒙要訣)』을 가지고 다녔다.

조헌은 이와 같이 글읽기에 힘써 고금(古今)의 일에 박학(博學)하였으나 그의 학문은 결코 서적(書籍)에만 의존하는 관념적인 학문이 아니었다. 조헌의 궁리수신(窮理修身)하는 학(學)은 결코 실사(實事)와 실천(實踐)에 직결(直結)되었으니, 한마디로 “이천지학(踐履之學)”<sup>35)</sup>이라 할 수 있다. 즉 궁리수신 하는 성리학(性理學)이 그에게 있어서는 현실을 떠난 관념론(觀念論)이 아니라 현실 속에 실천적 학문으로 표출(表出)되었던 것이다.

34) 『重峯集』, 附錄 卷4, 「遺事」

35) 『隱峯全書』, 「抗義新編」

은봉(隱峯) 안방준(安邦俊)은 「항의신편跋(抗義新編跋)」에서 중봉의 실천지학(實踐之學)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상에서 이른바 학문(學問)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일언일행(一言一行)을 모두 예법(禮法)에 좇아서 하며, 충효대절(忠孝大節)이 고인(古人)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학행지사(學行之士)가 될 수 없다고 하고서, 기송(記誦)에 종사하여 다만 구이(口耳)의 자(資)로 삼아 성명을 높이 말하고, 가만히 말할 적에는 맞으나, 써보면 그릇되는 것을 말함이 이에 학문이라 하겠는가?<sup>36)</sup>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선생은 정암 조광조, 퇴계 이황 그리고 율곡에 이어지는 경세론(經世論)과 퇴계의 수양론(修養論)을 함께 함으로써 동방 도학(道學)의 정맥을 재현하였으며,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대의(大志)를 품은 진유(眞儒)였다. 중봉은 돈신호학(篤信好學)하여 학적(學的) 연구를 잠시도 그치지 않았고, 그의 학문은 처음부터 실천(實踐)과 실행(實行)을 토대로 한 이천지학(踐履之學)으로 그의 이론은 고매(高邁)하여 실제로 있는 사실을 떠나서 추상론에 떨어지지 않았고, 실제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면은 중봉의 인격 속에 융화(融和)되어 강렬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중봉(重峯)은 46세(1589년) 4월에 당시의 정치적(政治的) 폐단(弊

36) 『重峯集』 卷首, 「抗義新編跋」

端)을 극론하는 상소를 올리고 이로 인하여 함경도 길주(吉州) 영동역(嶺東驛)으로 유배되었다. 의금부(義禁府)의 역졸(驛卒)이 중봉의 끈은 성품(性品)을 알고 일부러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하였는데, 중봉은 임금의 명령은 잠시도 지체(遲滯)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밤으로 길을 떠나면서 가인들로 하여금 행장(行裝)을 꾸려서 뒤 따라 오도록 하였다.<sup>37)</sup> 당시 귀양지에서의 노역도 대부분 역관과 밀통하여 그 노복(奴僕)으로 하여금 노역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중봉은 그 노역을 품소 담당하면서, “조정에서 노역을 시키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모면할 것을 구한다면 이것은 임금의 명을 어기는 것이다.”<sup>38)</sup>라고 하였다.

위의 사례(事例)를 통하여 볼 때 중봉은 일생을 위기지학의 자세에서 부동심(不動心)을 이루고 매사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세와 신독(慎獨)의 자세로 일관되게 의리를 실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은 동궁(東宮) 시절(時節)의 정조 임금에게 중봉을 소개하기를, “지극한 공심과 정성 그리고 오류가 모두 갖추어져 천고에 비교할 수 없어 실행한 바와 같으니 그 학문을 알 수 있다.”<sup>39)</sup>고 하였다. 위기지학을 실천한 중봉의 학문적 특성을 올바르게 지적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37) 『重峰集』附錄 卷2, 「行狀」: 君命不可宿 徒步夜發 而使家人束裝隨之

38) 曰同: 朝廷正欲以此治有罪者 必要免此 是不受君命者也

39) 『湛軒書』卷2, 「桂坊日記」: 至公血誠 五倫全備 千古無兩 實行如此 其學可知

중봉의 유별난 충효사상(忠孝思想)과 자주정신(自主精神)은 후세에 민족을 지키는 의리사상(義理思想)으로 전개되었고, 현실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구체적 시설(施設) 등의 경세론(經世論)은 후기의 실학사상(實學思想)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실제로 반계(潘溪) 유흥원(柳馨遠),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 같은 실학과와 병자호란 시기의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그리고 한말의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과 같은 의리학파는 다 같이 중봉을 숭상(崇尚)하고 본받았던 것이다. 중봉의 학문은 실행(實行)과 실공(實功)을 지향한 도학(道學)이요 실학(實學)이며 성학(聖學)이라 하겠다.

## 2) 위민(爲民)의 의리사상(義理思想)

중봉은 정치, 경제, 사회, 민생의 개혁사상을 소유한 경세가로서 충군애민(忠君愛民)의 충정을 토로하였고 상소의 형식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을 과감하게 직언하였다. 이와 같이 선진적이고 애국적인 견해는 멀리 성현에 뜻을 두어 공맹(孔孟)과 정주(程朱)의 학(學)으로부터, 가까이는 스승이었던 율곡, 우계, 토정, 구봉과 학우들의 영향이기도 하겠지만, 중봉 자신의 학문 성격이 실천지학이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공리수신 하는 성리학이 중봉에게는 현실을 벗어난 관념론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경세적인 사

상의 동향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이석린은 증봉이 율곡을 지극히 존숭하면서도 이기(理氣), 심성(心性) 등의 이론적 탐구에는 관심이 적었던 것으로 보고, 율곡의 『성학집요(聖學輯要)』를 경륜지지(經綸之志)와 광제지규(匡濟之規)를 갖춘 책이라고 높이 평가하여 스스로 2권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관심은 역시 경제학 쪽에 더 치중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였다.<sup>40)</sup>

대개 사람을 받드는 것은 장차 그 도를 쓰려고 하는 것인데, 세상의 임금만은 다만 외면적인 존경만을 하여 배우는 자에게 보이고, 성현의 말씀을 몸소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천하가 잘 다스려짐은 적고 어려운 것은 많은 것입니다.<sup>41)</sup>

조현이 이와 같이 성현을 존숭함은 인간 생활에 높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성현의 학문은 곧 사회적 실천을 위한 것으로, 그는 성현지학(聖賢之學)의 현실적인 적용을 중요시하였다.

증봉에게 있어서 진리란 구체적인 현실을 떠나서 구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곧 백성들의 복지를 지향하는 애민사상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생민을 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직언할 수 있었다. 그는 『논어(論語)』의 「계씨편(季氏編)」에 이른바 “군자는 천명(天命)과 대인(大人)과 성인지언(聖人之言)을 두려워한다.”는 구절

40) 이석린, 「증봉 조현 연구」, 경희대학교박사논문, 1984, p.65.

41) 『重峯集』 卷3, 「八條疏」, 聖廟配享之制.

을 풀이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른바 천명이란 그윽하고 황홀한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삼가고 백성의 일을 힘써 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대인이란 반드시 높은 자리에 있는 연후에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빈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능히 옛 사람의 덕행을 상고하고, 헤아려 꾀함이 천성에서 나와 군심의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사람이면 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말씀이란 방책에 실려 있어 무슨 일이든 두렵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쓰임새를 절약하여 백성을 애호한다는 한 구절은 백성에게 임금 노릇하는 분으로써 제일 먼저 힘써야 할 일입니다.<sup>42)</sup>

즉 ‘천명(天命)’, ‘대인(大人)’ 그리고 ‘성인지인(聖人之言)’이란 경전(經典)에 있는 추상적인 관념론이 아니라 실사에 논의되니 다른 아닌 일용실사에서 백성의 일을 도모하라는 것, 임금의 마음이 그릇된 점을 지적하여 바로잡는 인물을 가까이 하라는 것, 그리고 윗 사람의 쓰임새를 줄이고 민중의 생활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봉의 사회적 실천을 중시하는 학문적 태도를 현실 인식과 결부되어 당시의 피폐한 사회현실을 극복하려는 개혁론으로 나타나는데, 그 개혁론의 방향은 당시 백성들의 안정, 즉 ‘안민(安民)’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당시 사람들에 있어서 민에 대한

42) 『重寀集』卷4, 「十六條疏」, 命令之嚴

인식은 어느 때 보다도 성숙해 있었고, 이러한 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 경향이지만 중봉에 있어서 위민(爲民)은 누구보다 강했던 것이다.

이러한 중봉의 굳은 의지와 사상은 『동환봉사(東還封事)』에 구체적인 시안으로 잘 나타나 있다. 『동환봉사』는 중봉이 1574년 11월에 절정관(質正官)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올린 「팔조소(八條疏)」와 「십육조소(十六條疏)」로 이루어져, 후일 은봉(隱峯) 안방준에 의해 간행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중국의 문물제도를 둘러보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여 개선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은봉은 이에 대해 설명하기를 현실에 절실한 것이 「팔조소(八條疏)」이고 근본문제를 다룬 것이 「십육조소(十六條疏)」로 된 두 가지 글이라고 하였다.<sup>43)</sup>

또한 이는 후일 북학파에게 절대적인 영향은 미쳤다. 박제기는 그의 「북학의서(北學議序)」에서 최치원과 조헌의 경세지지(經世之志)를 높이 찬양하고, 북학의를 저술하는 동기와 목적은 고운, 중봉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하였고,<sup>44)</sup> 홍대용도 그를 “至公血誠 五倫全備 千古無兩 實行如此 其學可知”<sup>45)</sup>라고 하여 그 실행을 천고(千古)에 비할 데 없는 인물이라고 하였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의 이상은 실현되지 못하고 임진왜란을 맞이하여 장렬한 순절로 의리

43) 『重峯集』 卷4, 「東還封事跋」.

44) 김용덕, 「중봉 조헌 연구」, 『아세아학보』 제1집, 1965. p.88.

45) 『湛軒書』 卷2, 「桂坊日記」.

의 길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그의 의리사상은 선비정신의 발휘에 따른 선비의 희생을 통해 다져진 것이며, 충절과 신의와 의리를 실현하는 인물의 출현은 유교이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피어나는 꽃이요 열매였다고 할 수 있다.<sup>46)</sup> 이처럼 의리사상은 국가존망의 위난에 처했을 때 생명을 버리면서 투쟁하는 용기의 원천이요 정당성의 근거이다.

중봉은 단지 지모와 용맹이 뛰어난 의병장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실천적인 경세가이며 의리에 바탕을 둔 확고한 사생관에서 발휘되었던 의용을 구현한 선비정신의 소유자였다.

### 3) 개혁사상의 실체

주지하듯이 중봉이 가장 사모했던 율곡은 한 시대나 사회를 올바르게 파악한 위에 그에 따른 적절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현실인식을 전제로 그에 따른 처방을 내릴 수 있다고 본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시무(時務) 혹은 시의(時宜)이자 동시에 그의 현실인식에 따른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율곡은 『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 ‘시무(時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율곡은 시무 즉 현실인식은 하나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나 사회에 따른 구체적 상황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46) 금장태, 「의리사상과 선비정신」, 조명기 외, 『한국사상의 심층연구』, 우석, 1982, p.234.

구체적 임무[各有攸宜]라고 보았다. 율곡의 현실인식에 의하면, 한국가는 창업(創業), 수성(守成), 경장(更張)의 세 단계<sup>47)</sup>를 거치게 되는데, 율곡 당시의 시기는 중쇠기이며, 따라서 절박하게 경장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창업(創業)의 도는 요·순·탕·무의 덕으로 개혁할 세대를 당하되 천리에 응하고 인사에 따르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둘째 수성(守成)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임금과 현명한 재상이 제도를 만들고 법을 세워서 정치제도를 다 펴서 예악을 융성하게 하면 후세의 임금과 후세의 현명한 이는 다만 그 이루어 놓은 법규에 따라 가만히 팔짱을 끼고 이것을 준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셋째 경장(更張)이라는 것은 나라가 번성한 가운데에 미약해지고 법이 오래되어 폐가 생기고 마음이 안일에 젖어 고루한 것에 인습되어 백 가지 제도가 해이해지면 나날이 어긋나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현명한 임금과 현명한 신하가 있어서 개연히 일어나 근본을 붙들어 혼탁한 것을 환기 각성시키고 묵은 인습을 깨끗이 씻어서 속폐를 개혁하며 선왕이 남긴 뜻을 잘 계승하여 일대의 규모를 새롭게 바꾸어야 그 공업이 선열에 빛나고 후손에 끼쳐지는 것이다.<sup>48)</sup>

둘이켜 보면 후율(後栗)을 자처했던 중봉이 생존했던 16세기는 조선의 태평성대 하던 시기가 지나가고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었고

47) 『栗谷全書』 卷25, 『聖學輯要』

48) 『栗谷全書』 卷25, 『聖學輯要』

정치가 문란해지며 사회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까지 이어지는 것까지를 고려한다면 그 당시는 사회정치적 혼란이 계속 되는 역동의 전환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기 속에서 중봉이 제시했던 개혁사상은 『동환봉사(東還封事)』<sup>49)</sup>에 잘 나타나 있다.<sup>50)</sup>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밀봉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글’[東還封事]이라는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의 개혁안은 1574년(선조7년) 명나라 신종(神宗)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파견된 성절사(聖節使)의 질정관(質正官)으로 다녀온 중국경험 즉 당시의 세계경험의 영향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중봉은 귀국한 후 당시 사회의 폐해를 적실하게 지적한 팔조소와 이 사회가 이상적 세계로 나가기 위한 근원적 대책을 논한 십육조소를 지어 사회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두 소(疏)는 중봉이 죽은 후 1622년(광해군 14년) 은봉 안방준에 의해 동환봉사로 간행되었다.

전자에는 주로 당시 조선의 현실적 폐해를 적실하게 지적하며

49) 이 책은 「質正官回還後先上八條疏」와 「擬上十六條疏」(1574년 선조 7년 11월)로 구성되어 있다.

50) 중봉의 저술과 그에 대한 기록들은 20권 10책의 『重峯集』에 잘 집성되어 있다. 활자본으로 된 중봉집의 초간본은 중봉이 순절한 지 22년 뒤인 1613년(광해군 5) 동학이요 의병동지였던 안봉俊이 그의 遺文과 사적을 수집, 편찬하고, 李廷龜의 서문과 姜沆의 발문, 그리고 자신의 발문을 붙여 1615년에 발간되었다. 안방준이 중봉의 家藏草稿를 바탕으로 수집하여 편찬한 뒤 1666년 호남관찰사 閔維重이 목판으로 초간하였는데, 이 초간본의 원형은 封事·잡저 등 6권, 請絶倭·學義兵 등에 관한 疏章·書檄·비문·언행 등을 묶어 엮은 『抗義新編』으로 구성되었다. 1698년(숙종 24) 왕명으로 『東還封事』와 『抗義新編』을 종합·간행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책명이 『遺蹟』, 『遺稿』, 『先憂錄』로 되어 있던 것을 『重峯集』으로 통합, 일원화되었다.

그 문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후자에는 현실적 폐해가 나타나게 된 원인적 요인과 그 대처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나열하고 있다. 양자에 나타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유가적 민본주의 위에 전개된 경세제민을 지향하는 개혁주의와 실학적 성격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중봉이 그 자신이 후율(後栗)이라 자처할 정도로 율곡의 영향을 받았던 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동환봉사는 율곡의 철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만언봉사와 그 취지와 방안들이 일치된다.<sup>51)</sup>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 1737~1805)은 「북학의서(北學議序)」<sup>52)</sup>에서 “율곡의 만언봉사와 중봉의 동환봉사는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 같다(如出一手)”는 평가를 하기도 할 정도로 율곡과 중봉의 사상은 유사하다고 하겠다.

중봉 스스로도 율곡의 경세제민의 재주를 칭송하면서 시폐의 개혁안과 수기와 위정의 도를 계승하고자 율곡의 「동호문답(東湖問答)」과 「성학집요(聖學輯要)」의 중요성을 역설하곤 하였다.<sup>53)</sup> 다음의 인용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봉은 율곡의 저서들에 담겨져 있는 핵심들을 강조하고 이것을 선양함으로써 유학의 이상을 구현

51) 그 구체적 내용은 김용덕의 「율곡과 중봉 - 동환봉사와 율곡경세책과의 비교」에 나타나 있다. 『조선후기사상사』, 590~596면 참조(울유문화사, 1977).

52) 연암 박지원은 孤雲 崔致遠(857-?)과 중봉 조헌의 經世之志를 높게 찬양하며, 북학의를 저술하는 동기와 목적이 바로 고운 최치원과 중봉 조헌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53) 『重峯集』 卷5, 「辨節評兼論學政疏」.

시킬 수 있다고 볼 정도로 율곡의 사상을 계승 선양하였다.<sup>5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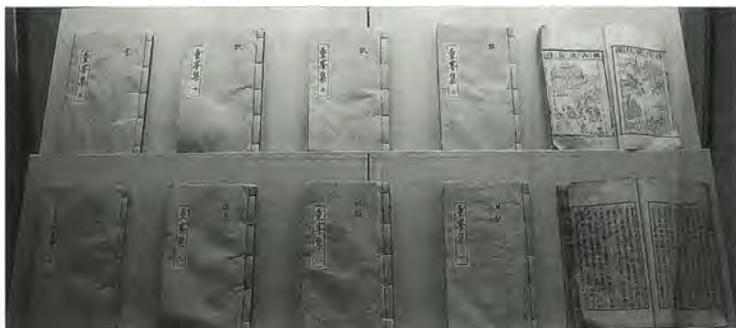
「성학집요」의 논지(論旨)도 입지(立志)·수렴(收斂)에서부터 시작하여 기강을 세우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데까지 범위를 넓혔고, 고급 성현들의 교훈을 모아 종류별로 합치고 부문별로 나누었으며, 한 마디마다 온 뜻을 기울였고, 한 단락마다 깨우쳐주는 것으로서 기필코 인주가 스스로 반성하여 요순의 도를 지금 시대에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긴요한 말과 절실한 일은 마땅히 《대학》이나 《근사록》에서 그 연원을 찾아야 되고 보통의 문집처럼 등한시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니, 태양처럼 빛나는 그의 고충(孤忠)은 반드시 성주의 살펴 보심을 입을 것입니다. 다만 용현(用賢), 취선(取善) 두 장(章) 속에서 사이비한 군자·소인의 실상에 관하여 극히 밝혔으니, 오늘날 온갖 욕설로 헐뜯는 자들이 훗날 판각을 없애버리거나 앓을까 걱정됩니다.<sup>55)</sup>

중봉은 이와 같이 성학집요의 대강을 밝히는 한편 용현(用賢), 취선(取善)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당시의 현실에 대한 지적들을 염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봉 자신의 이러한 염려와

54) 『重峯集』 卷5, 「辨師誅兼論學政疏」

이에게 경국제세(經國濟世)의 재능이 있는 것은 이미 비술길에 나온 초년에 드러났고, 폐단을 제거하여 백성의 고통을 없애려 한 뜻은 『동호문답(東湖問答)』에 본시 갖추어졌으며, 몸을 닦고 정치를 하는 도는 『성학집요(聖學輯要)』에 자세하게 기술하여 성상의 질문에 메아리처럼 답하였으니, 이어 저 스스로의 힘을 요량하지 못한 자이겠습니까.

55) 『重峯集』 卷5, 「辨師誅兼論學政疏」



증봉의 저작들

는 달리 그 자신의 만언소 등에 나타난 현실의 직접적인 비판은 더욱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

#### 4) 현실의 폐해와 해소 방안

동환봉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먼저 경사에서 돌아와 올린 시무에 절실한 8조의 상소문에 대해 살펴보자.

1조는 중국의 공자를 비롯한 유현들의 추숭과 배향을 소개하며, 한국의 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 등을 문묘에 배향하자는 ‘성묘배향(聖廟配享)’을 논한 글이다. 2조는 ‘내외서관(內外庶官)’으로 관원 임면제도의 개선에 관한 글이며, 3조는 의관제도를 논한 ‘귀천의관(貴賤衣冠)’이고, 4조는 검소한 식생활을 관원들이 먼저 지켜야 한다는 ‘식품연음(食品宴飲)’이다.

5조는 사대부가 서로 접대하는 예에 대해 논한 ‘사부읍양(士夫揖讓)’이고, 6조는 스승과 제자 간에 접대하는 예에 대하여 논한 ‘사생접례(師生接禮)’이다. 7조는 향촌의 풍속을 순화시키는 데 대한 ‘향려습속(鄉閭習俗)’을 논하고, 8조에서는 ‘군사기율(軍師紀律)’을 논하였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성묘(聖廟)의 배향의 제도(聖廟配享之制)에 관한 것으로 가정(嘉靖) 때에 태학사(太學士) 장부경(張孚敬)의 건의로 인하여 공자의 위패에 쓴 문선왕(文宣王)의 칭호를 ‘지성선사공자지위(至聖先師孔子之位)’라고 고쳐 썼으며, 안자(顏子) 이하는 모두 작명(爵名)을 떼어버린 것과 문묘의 액호(額號)도 ‘대성전(大成殿)’이라 하지 않고 ‘선성묘(先聖廟)’라고 고친 것처럼 공자의 ‘군군(君君)·신신(臣臣)·부부(夫夫)·자자(子子)’의 정명(正名)의 도에 따라 우리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돌이켜 보면 한 평제(漢平帝) 때에 왕망(王莽)이 간계(奸計)를 부리기 위해 공자를 포성선니공(褒成宣尼公)이라고 잘못되게 불렀으며, 당 현종(唐玄宗)이 처음으로 ‘문선왕(文宣王)’이라고 시(諡)를 붙이는 한편 안자 이하는 차례로 공(公)·후(侯)·백(伯)이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천 년 동안의 과오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잘못을 답습하고 있으니, 마땅히 논의하여 고쳐야 할 것이라는 것

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증봉이 명나라의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육구연에 관한 증봉의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육구연(陸丘淵)의 학술만은 강문(講問)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돈오(頓悟)를 힘써 그 당시에 주자가 참으로 그 설의 해독을 우려하였는데, 유전되어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더욱 심하게 빠져들어 온 세상이 휩쓸린 나머지 모두 선학(禪學)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감히 어긋난 논의를 주장하고 주자를 비방한 왕수인(王守仁)과 같은 자를 오히려 종사하자고 청하였는데, 이는 필시 강서(江西)의 사람들이 그 학설을 익히 보고 듣다가 조정에 벼슬한 자가 많아서 힘껏 육상산(陸象山)을 지지하여 위로는 조정을 가르치고 아래로는 사학(斯學)을 가르치게 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니, 이와 같은 사례는 그 잘못을 본받아 구차스레 따라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sup>56)</sup>

이와 같이 양명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벽이단(關異端)적 입장에서 단호하게 배척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의 것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사대나 모화적 사유가 아니라 주체성에 관한 단적인 표현인 동시에 그의 학문적 경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56) 『重峯集』 卷3, 「質正官回還後先上八條疏」

중봉은 또한 중국 조정의 종향(從亨)하는 일로 인하여 깊이 느낀 바 한훤당 김굉필, 정암 조광조, 회재 이언적, 퇴계 이황에 대한 배향을 제안하였다.

대체로 김굉필(金宏弼)은 처음으로 도학을 제창하여 선성(先聖)을 잇고 후학을 연 업적이 있고, 조광조(趙光祖)는 그 도(道)를 이어서 밝혀 세상을 건지고 사람을 선량하게 한 공로가 있고, 이언적(李彦迪)은 도(道)를 지니고 순독(純篤)하여 기울고 위태로운 세도를 부지한 공로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중국에서 찾아본다면 허형(許衡)과 설선(薛瑄) 이외에는 견줄 만 한 자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찾아본다면 설총(薛聰)·최치원(崔致遠)·안유(安裕) 같은 이도 그 경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더구나 이황(李滉)은 동유(東儒)를 집대성하고 주자의 적통을 계승하여 조정에 나가서는 임금을 옹운 도리로 인도하는 정성이 소장(疏章)을 올릴 때에 간절히 나타나고, 초야에 물러나서는 후학을 각기 재능에 따라 가르치는 뜻이 강론할 때에 간절히 나타났습니다. 그러하여 선한 자는 그 말을 듣고 경모(敬慕)하고 악한 자는 멀리서 그 풍모만 우러러보아도 스스로 단속하였으니, 오늘날 선비들이 약간 이나마 임금을 높이고 어버이를 사랑할 줄 알며 예의염치가 있게 된 것은 모두 그의 덕에 감화되어 일어난 것입니다.<sup>57)</sup>

중봉은 김굉필, 조광조, 이언적, 이황 이들 네 선현들이 생존했을 때도 제대로 등용하여 그 재능을 발휘하게 하지 못하였는데, 사후

57) 『重峯集』 卷3, 「質正官回還後先上八條疏」

(死後)에까지도 숭장(崇獎)하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하면서, 이들을 마땅히 종사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조정에서나 사류에 이론이 없으니 빨리 사현(四賢)을 숭장하여 종사(從祀)의 서열에 넣으라고 청원하였다.

둘째, 내외(內外)의 서관(庶官) 제도[內外庶官之制]에 관한 것으로 모든 관리 임용제도의 개선에 관한 것으로 국가의 위태로움과 민생의 어려움은 그릇된 임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총체적 개선을 통하여 정치와 백성의 안정을 꾀하자는 내용이다. 관리 한 사람을 잘못 쓰면 국사가 그만큼 망가지고 서관(庶官)을 자주 교체하면 백성이 그 해독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적합한 인재를 논정하고 공론에 흡족하게 한 다음에 그 망(望)을 채우게 하되 유능한 자와 어진 이를 등용하고 또 반드시 수선(首選)을 임용하여 그 직을 오래 맡겨서 분발하여 치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초천(超遷)한다면, 사람마다 열심히 직무를 수행할 것이고 백성이 그 안식처를 얻게 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귀천의 의관(衣冠) 제도[貴賤衣冠之制]에 관한 것으로 의복과 갓의 착용은 신분에 따라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일부 계층의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현실을 적절히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입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를 맞아도 처지지 않는 갓 등 실용적인 측면과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자는 내용이다. 이조는 의관을 단장하기는 하나 오히려 검

약한 풍속은 쫓아야 한다는 증봉의 실용적 정신이 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즉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고치되 사치스럽고 큰 것을 사용하는 풍습을 일제 금한다면 누구나 착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이라는 실용적 사고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넷째, 음식 연음(宴飲) 제도[食品宴飲之制]에 관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풍속은 오로지 풍성한 음식에다 많이 마시는 것을 힘써서 재물이 바닥이 나도 걱정할 줄 모르고 백성이 곤궁해도 구제할 줄 모르며, 위에서 명해도 따를 줄 모른 채 자연의 물산을 쓸데없이 소모하고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해치는 일이 끝이 없다고 비판하며, 중국 사람들이 물자를 검소하게 절약하는 것을 본받아 우리도 과음 과식을 삼가는 등 절약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반찬 수를 제한하여 음식을 절제하는 것과 연음할 때 순배 수를 정하여 한계를 넘게 마셔 정신이 혼란하게 함으로써 맡은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는 것 등은 공사(公私)의 재력이 다 넉넉하고 서정(庶政)이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들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찻쌀술을 금한 황조(皇祖)를 본받고 음주를 경계하는 등 재물을 허비하고 백성을 병들게 하며 국정을 해치고 일을 망치는 화가 없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사부(士夫)의 읍양(揖讓)의 예[士夫揖讓之禮]에 관한 것으로 중국의 관리들은 예를 소홀히 하여 퇴폐한 풍속이 극심하니 하루 빨리 폐단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조는 서관(庶官)은 예를

좋아하고 일에 부지런한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관리들은 예모가 허술하고 폐풍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감히 머리를 들고 함께 말하지도 못하는 것 등 지나친 예의 번잡함과 비현실적인 측면을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으로 개선하자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섯째, 사생(師生)의 접례(接禮)의 예[師生接禮之禮]에 관한 것으로 올바른 교육풍토의 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사제 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항간에서도 책 읽는 소리가 낭랑하였고, 지극히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도 힘써 돈을 마련하여 아들을 학관(學館)에 보내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예모(禮貌)로 검속하고 명교(名敎)로 격려하여 온 세상 바람으로 하여금 보고 느껴 더욱 분발하게 하여 많은 선비를 배출하여 사방의 쓰임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동몽(童蒙)은 다행히 날로 배우는 무리가 있으나, 대체로 질서가 없고 지나치게 공손하기만 할 뿐 행렬을 차려 읍양하는 예가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외읍의 교관(校官)으로서 급료를 받는 사람도 모두 공력(公力)만 허비할 뿐 성묘(聖廟)가 있는 줄을 모르는데, 급료 없는 학장(學長)에게 어떻게 예로써 가르치기를 기대하겠느냐고 역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편으로 제 사생(師生)이 서로 대하는 예와 삭망에 알성하는 규례에 대해 반드시 내외(內外)로 하여금 한결같이 중조의 제도대로 따르게 하고 외학(外學)의 학장(學長)에게는 월료(月料)를 주고 교독(敎

脣)을 책임 지워 비록 《천자문(天字文)》을 처음 배우는 자라도 음양의 예를 강명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책 읽기를 생각하고 선비마다 예를 지켜서 쓸모 있는 인재를 배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곱째, 향려(鄉閭)의 습속의 아름다움(鄉閭習俗之美)에 관한 것으로 증봉이 보건대 산해관(山海關)에서는 마을마다 향약소(鄉約所)가 있어 각기 그 향약소에서 향약에 든 사람들을 모아 서로 예양한 뒤에 가르침을 강론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은 부모에게 효순(孝順)하고 장상(長上)에게 존경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자손을 가르치고 농상(農桑)을 부지런히 하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등의 일로서 고황제(高皇帝)가 정한 가르침이라고 하였는데, 그 조목이 여씨향약(呂氏鄉約)처럼 자상하지는 못하지만 그 강령이 간결하여 쉽게 백성을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백성이 이를 모두 믿어 촌항(村巷) 곳곳의 담벼락에 제시해 두고 서로들 외고 익히게 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 예로 오랫동안 오랑캐 풍속에 젖은 요동·계주 땅의 사람들도 대명(大明)의 풍화(風化)로 새롭게 변하였다고 반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본디 예의지국으로서 열성(列聖)의 감화시킨 가르침을 받았고, 게다가 주상의 유신(維新)의 정사를 힘입어 해마다 내놓는 명령이 오직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힘써 왔으니, 당연히 집집마다 착한 사람이 있고 고을마다 후한 풍속이



중봉집 : 활자본. 20권 10책. 초간본은 조헌이 순절한 지 22년 뒤인 1613년(광해군 5)에 동학과 의병동지인 안방준(安邦俊)이 그의 유문(遺文)과 사적을 수집·편찬하고, 이정구(李廷龜)의 서문과 강항(姜沆)·안방준의 발문을 붙여 15년에 발간하였다. 그 뒤 1740(영조 16) 원집(原集) 13권, 부록 7권, 도합 20권 10책으로 간행되었다.

1698년(숙종 24) 왕명으로 『동원봉사(東還封事)』와 『항의신편(抗義新編)』을 종합·간행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책명이 『유적(遺蹟)』, 『유고(遺稿)』, 『선우록(先憂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중봉집(重峯集)』으로 통합, 일원화하였다. 이 문집은 간기(刊記)로 보아 1740년 왕명에 따라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양지(良知)·양능(良能)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견문(見聞)에 익은 다음에야 분발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국가에서 백성을 깨우치는 것을 미리 널리 알리지도 않고서 자기들 멋대로 하도록 방치하고 있으니, 이것이 곧 수령이 태만하고 선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덟째, 군사(軍師)의 기율의 엄정[軍師紀律之嚴]에 관한 것으로

있어야 할 것인데, 근년 이후로 민심은 날로 천박해지고 강상(綱常)의 도가 세상에 어지러워졌는데, 그 까닭을 따져 보면 비록 세속의 추세가 잘못된 데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임금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오히려 극진하지 못한 점이 있으신 듯하다는 중봉의 생각을 개진하

만일 모읍(某邑)의 수령으로 하여금 모주(某州)·모현(某縣)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게 할 경우, 계행(啓行)하는 날에 즉시 군령을 엄하게 하여 감히 털끝만큼도 사람들의 물건을 노략질하지 못하게 한다면, 적과 대진하였을 때도 쓸 만한 군사들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봉은 병사의 강약은 주장(主將)의 재능의 우열(優劣)에 있는 것이지 군사의 다과(多寡)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당시의 병사들처럼 앞에서는 군령이 없고 나중에는 절제(節制)가 없어 마치 이리에게 쫓기는 양(羊)처럼 조금도 통기(統紀)가 없다면 교전하기도 전에 낭패할 것이라고 경계하였다.

중봉은 또한 중조의 장수를 기르는 제도를 빌어 문무를 겸비한 장수를 길러낼 것을 촉구하는데, 중조에서는 일단 무학생(武學生)을 두어 글을 가르치고 또 과거를 보일 때 비변삼책(備邊三策)으로 시험한 뒤에 선발하여 쓰기 때문에 변방을 방어하고 성을 지키는 직책에 있는 사람까지도 글을 알고 일에 익숙하여 그 직분을 다하는 자가 많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국가의 간성(干城)을 맡은 자가 처음에는 힘써서 청렴하지만 배우지 못하여 계책을 세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지위가 높아지고 녹(祿)이 후해지면 스스로 바라고 원했던 것이 이미 다 되었다고 여긴 나머지, 사력을 다해서 국사에 목숨을 바칠 것은 생각지 않고 오직 사사로운 이익이 있는 것만 반드시 있는 힘을 다하여 성취한다고 지적하여

군 양성에 재정적 지원도 촉구하였다.

증봉은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비록 미세한 일인 것 같지만 사습(士習)과 민풍(民風)의 악해진 것을 소생시키고 폐단을 바로 잡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매우 절실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팔조목들은 주로 당시 조선의 현실적 폐해들로 증봉은 이 문제들을 적확하게 지적하며 그 문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지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 5) 현실성과 실용성의 균형

그러나 선조가 천 백리 떨어진 중국의 풍기와 습속을 그대로 받아들여자는 식으로 받아들이자 증봉은 근본에 관해 준비했던 16조의 상소는 아예 올리지도 않았다. 여기에는 현실적 폐해가 나타나게 된 근원적 요인과 그 근본적 대처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하는 주요 문제들을 나열하고 있다. 증봉이 16조소를 준비한 이유는 다음의 의상십육조소(擬上十六條疏) 서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조헌)이 세상 사람들의 정황을 돌아다니며 보니 먼 것을 소홀히 하고 가까운 것을 좋아함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먼 것은 비록 요순의 지극한 다스림이라도 망연히 그 도를 멀리하는 것 같

고, 시대에 가까운 것은 그 일사(一事)의 옳은 것과 일정(一政)의 선한 것을 듣고 개연히 따라 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가까운 것에서 일마다 옳은 것을 구하고 말마다 선한 것을 취하여 분연히 뜻을 세워 쉬지 않고 이를 행한다면 요순같이 될 수 있는 것도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 가까운 것에 게으르고 소홀히 하면 요순같이 되도록 바라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찌 할 도리가 없는 것이 장차 조석에 이를 것이니 정말로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신이 중국의 일을 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니 제도는 거의 같은데 현재 행해지는 규모가 혹은 상세하고 소략함의 같지 않음이 있고 혹은 번거롭고 간략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하되 소략한 것에 문명과 부의 소재가 있고 소략하되 자세한 것에 구차한 것을 의지하고 거짓을 인습하는 부끄러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력이 다하고(財匱)·근본이 상하게 되고(根傷)·백성들이 흩어지고(民散)·국가가 위태롭게 되는(國危)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신이 삼가 사무(事務)에 간절한 것을 앞에 외람되어 개진하고 다시 근본에 관한 것을 그 다음에 낱낱이 열거 하였습니다. 엿드려 바라옵건대 성왕께서는 미치고 망령된 자의 말이라 이르시지 마시고 평온한 마음으로 천천히 살피신다면 성스러운 다스림에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조금 도움 되는 바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sup>58)</sup>

이와 같이 중봉의 상소는 요순의 지치(至治)를 지향하며, 국가의 재력이 다하고 근본이 상하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국가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걱정하고 그 대안들을 제시한 것이다. 중봉 스스로 밝히

58) 『重峯集』 卷4, 『擬上十六條疏』

고 있는 바와 같이 앞에서 살펴본 팔조소는 사무(事務)에 간절(懇切)한 것이며, 다음에서 살펴볼 십육조소는 근본에 관한 것이라고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요순의 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도학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성치(聖治)를 위한 조그마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되었으나 올리지 못한 상소였기에 자못 아쉬워진다.

올리려던 그 16조는 첫째, 하늘에 닿는 정성(格天之誠)에 관한 것으로 수양과 반성의 도를 다하여 천·인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왕 스스로의 격천감인(格天感人)의 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근본을 생각하는 효도(追本之孝)에 관한 것으로 백성의 덕이 도타위지도록 왕 자신이 선조에 대한 추모의 효를 다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능침의 제도(陵寢之制)에 관한 것으로 중국의 풍습을 본 따 왕릉을 간소하게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넷째, 제사의 예절(祭祀之禮)에 관한 것으로 왕 자신부터 제사를 간략히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는 경연의 규례(經筵之規)에 관한 것으로 경연강의를 되도록 독실하게 수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섯째, 조회의 의식(視朝之儀)에 관한 것으로 왕 자신이 수시로 직접 성실하게 조정을 돌 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곱째, 간언을 듣는 도리(聽言之道)에 관한 것으로 율곡이 상소한 바와 같이 민폐의 제거를 위한 올바른 소리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며, 듣기 좋은 말보다는 귀에

거슬리는 바른 말을 받아들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덟째, 사람을 뽑는 방법[取人之力]에 관한 것으로 인재라고 판단되면 그 사람의 문벌을 논하지 말고 취하라는 진취적이고 파격적인 신분제에 관한 주장을 개진하는 한편 재가(再嫁)를 완전히 막는 것과 서열의 무조건적 등용 불가에 대한 반론을 펴기도 하는데, 그 궁극적 목적은 인재의 등용과 국력의 신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홉째, 음식의 절제[飲食之節]에 관한 것으로 소비의 절제와 검약을 강조하고 그러한 풍속의 진작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열 번째, 국가의 곡식을 알맞게 쓸 것[籩廩之稱]에 관한 것으로 하급관원의 부패 방지를 위하여 모든 관원에게 봉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경비를 절약해서라도 말단의 일을 맡은 사람들까지 급여지급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한 번째, 생산을 늘릴 것[生息之繁]에 관한 것으로 생산력 증대를 위하여 재혼의 허가 등 적극적인 인구증가와 민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 주장은 여덟 번째 안의 적극적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부가 되어 의지할 데 없는 자에게 재혼을 허락하여 남자가 홀아비 되지 않고 여자는 원망이 없이 생육하고 안거하게 해 주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열두 번째, 사졸의 선발[士卒之選]에 관한 것으로 수많은 노비를 줄여 병사를 선발하여 20년 내에 백만 정병을 갖추자는 백만양병설로 울곡의 십만양병설을 확대시켜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사사로움을 버리고 지극히 공정한 도를 따르면 백만정병(百萬精兵)을 갖추는 것

도 20년 내에 가능함을 강조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논하고 있다. 열세 번째, 조련을 부지런히 하는 것[操鍊之勤]에 관한 것으로 군의 부패를 일소하고 조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네 번째, 성지를 견고하게 하는 것[城地之固]으로, 변방의 성을 견고히 지키도록 전마를 대비하며 군수물자를 충분히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얇은 옷 입고 변방을 지키는 병사가 연대(烟臺)에서 동사할 염려가 없도록 하는 등의 기본 대책 등이 강구된 방편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열다섯 번째, 출척을 밝게 하는 것[黜陟之明]으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함 즉 승진 좌천의 분명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열여섯 번째, 명령을 엄하게 하는 것[命令之嚴]에 관한 내용으로, 명령의 엄정을 강조하는 한편 물자를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민본정신에 입각하여 임금의 덕을 선양하는 전제로서 군상(君上)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모범을 보이는 도를 총론(總論)하였다.

이상에서 개괄적으로 살펴 본 의상십육조소와 앞에서 살펴본 선상팔조소의 내용들과 함께 정리해 보면 유가적 민본주의 위에 전개된 경제제민을 지향하는 중봉의 개혁주의와 실학적 성격을 살펴 볼 수 있다.

중봉은 문물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 요순의 지치(至治)의 이상을 구현시키려 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문물제도와 중국의 문물제도

를 비교 중국의 것 중 실용적 측면을 수용하여 국력의 강화와 백성의 평안을 기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중봉의 생각이 추상적 혹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성과 실용성을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군주가 가장 힘써야 할 바는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 즉 안민(安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선조실록에서는 중봉이 팔조소를 올렸다는 기사와 그 내용을 설명한 후에 중봉은 경국제세(經國濟世)의 뜻을 지녀 글을 읽거나 이치를 궁구할 때 현실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실록에서 기록하고 있다.<sup>59)</sup> 이것은 기사 뒤의 사관의 의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조(國朝)에서 연경(燕京)에 가는 사행(使行)에 으레 질정관(質正官)을 보내어 중조(中朝)에 화훈(華訓)을 질문하였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박문(博文)·상야(詳雅)한 선비로 충원하였다. 나중에는 사신이 화훈을 익히고 언어와 이문(吏文)까지 익히지 않은 것이 없어서 질정관이 비록 가더라도 물을 만한 것이 없고 인원수만 채울 뿐이었으므로, 근래에는 다시 보내지 않았다.<sup>60)</sup>

이와 같은 실록의 기사는 중봉의 동환봉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중봉이 한 차례 중국에 들어가

59) 『宣祖修正實錄』 008 07/11/01(辛未)

60) 『宣祖修正實錄』 008 07/11/01(辛未)

몇 개월간 객관(客館)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물어서 거의 빠뜨린 것이 없었으니, 그 정밀하고 근면하고 충직한 말은 과거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중봉의 동환봉사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 4. 경제개혁의 험로(險路)

백성(百姓)에게 임하는 중요한 점은 그 정(情)을 서로 옮겨 주는 데 불과한 것이며 서리들을 제어(制御)하는 방법은 자기를 바르게 하고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데 있다고 한 정자(程子)의 말로 다 토로(吐露)되었으니 내가 어찌 다시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을 하겠는가?

이것은 통진현감 당시 조헌이 울곡(栗谷)에게 조언(助言)을 구했을 때 울곡(栗谷)이 조헌에게 한 말이다. 당시 서리(胥吏)들의 폐단은 심각하여 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은 대다수의 위정자(爲政者)들이 공통적으로 인식(認識)하고 있는 문제였다.

서리(胥吏)들의 폐단은 대부분 양반관료가 시부(詩賦)와 경사(經史)에만 전념하여 행정(行政) 실무(實務)를 모르는 것에 그 원인이 있었다. 모든 실무를 이속(吏屬)에게 일임한 것과 또 양반관료의 임기가 보통 30개월의 단기(短期)인 데 비하여 서리(胥吏)들은 장기(長

期)인데서 기인(起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헌의 서리(胥吏) 개혁론(改革論)은 정치적인 면보다는 경제적인(經濟的)인 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당시 공물은 비토산물이 배정되기도 하였으며 공납(貢納)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자 중간 청부업자가 개입하여 직접 중앙관사에 미리 물품을 납부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는 방납(防納)이 널리 행해지게 되었다. 이 때 서리는 청부업자와 결탁하고 그 이권(利權)을 취함이 극히 심하여 민생과 탄(民生破綻)의 주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조헌은 소(疏)를 올려 서리(胥吏)들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안으로 서리(胥吏) 급예(皂隸) 전복(典僕)으로부터 밖으로 아전(衙前) 서원(書員) 사령(使令) 등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관(官)을 떠나지 않고 그 노고(勞苦)는 막심(莫甚)하나 일전(一錢)도 받는 것이 없는 데다 농사(農事)지를 겨를도 없고 또 장인(匠人)이 하는 일이나 장사를 할 수 없으니 그 옷과 음식은 대체로 출처(出處)가 없는데 도적질하자니 탐이 없고 개걸(丐乞) 하자니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관(官)을 속이고 농술(弄術)을 부려 백성을 험박(脅迫)하여 재화(財貨)를 요구(要求)하고 문부(文簿)를 농간(弄奸)하여 재물(財物)을 훔치고 창고(倉庫)에 들어가 곡식을 훔치는 것은 저 항심(恒心)이 없고 항산(恒産)이 없는 자들이 곧 죽을 수 없어서 염치(廉恥)를 돌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조헌은 서리(胥吏)들에 의한 폐단(弊端)이 제도적으로 급료를 보

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인식(認識)하였다. 따라서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만약 형(刑)을 엄히 하고 법(法)을 중(重)히 하여 그 폐를 막는다면 장차 그 간계(奸計)가 백출(百出)할 것이니 그것보다는 그 의식(衣食)의 근원(根源)을 열어 주고 염치(廉恥)를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간(姦)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자(議者)는 반드시 말하기를 국용(國用)이 이미 다해서 허다(許多)한 재곡(財穀)을 얻어 많은 서리(吏胥)의 급료를 나누어주기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신이 어리석지만 생각하건데 허다한 서리(吏胥)가 그 급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무롱(舞弊)하고 사기(詐欺)하여 국가사(國家事)를 그르치는 것이 몇 가지 일이나 되는지 모르고 국가의 재화를 훔치는 것이 얼마만한 수(數)가 되는지 모르며 군민(軍民)의 산업(產業)을 파(破)하는 것이 얼마의 호(戶)가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어차피 그들의 사기(詐欺)를 당하느니 차라리 그들에게 도적(盜賊) 맞는 것을 나누어 그들의 보수(報酬)를 고르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그르치고 백성을 해(害)하지 말게 하면 설혹(設或) 범법자(犯法者)가 있더라도 위에서 잡으라고 말할 수 있고 저들도 그 죄에 자복(自伏)할 것입니다.

조헌은 서리들이 불법(不法)으로 얻은 재화를 감안하여 실질적인 급료로써 제도화 시켜 보장해 주고, 오직 법으로만 그 폐단을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부정(不正)의 방법이 많아질 뿐이라고 하였다. 또

한 각 읍에 이속이 업무에 비해 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롯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속의 수를 줄이고 임용자는 녹봉을 지급하되 나머지는 모두 군역에 충당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조헌의 서리(胥吏) 개혁론(改革論)은 지방관직의 실무 경험을 통해 녹봉(祿俸)이 없는 서리(胥吏)들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여 줌으로써 그 폐단을 없애려는 것으로 당시로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헌은 이러한 서리제(胥吏制)의 폐단의 주요한 원인을 공납제(貢納制)의 폐단에서 찾았다. 공물이란 왕실과 중앙 관아의 잡색용도(雜色用途), 각 영의 수용(需用)에 충당하기 위해 당해 지역의 전결(田結), 호구(戶口), 물산(物産)에 따라 지방의 토산물을 바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공물은 지방관부가 다시 민호에 분정 부과 시켜 공납의 책임을 다하게 했던 것으로 조선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제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공납(貢納)은 그 물품의 다양함과 수납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백성들에게는 가장 무거운 부담이었다.

대개 물선(物膳)의 산출(産出)은 혹 옛날에는 생산(生産)되던 것이 지금은 생산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 유무(有無)를 불문(不問)하고 일체(一切) 책번(責辦)하여 겨우 조석(朝夕)을 이어가는 백성이 양식(糧食)을 걸머지고 수일(數日) 걸리는 먼 곳에 가서 배가(倍價)로 구합니다. 즉 일어(一魚)의 값이 본토(本土)에서는 쌀되에 불과한데 멀리서 온 사람이 갈구(渴求)함에 이르러서는

만드시 사오두(四五斗) 쓴  
연후(然後)에야 사 가지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을 팔아도 지탱하기 어려  
운즉 부득이(不得已) 고지  
(雇地)를 내서 지탱합니다.

비록 토산물(土産物)이라  
도 경주(慶州)의 전어(錢魚)  
같은 것은 세(細) 일필(一匹)  
로 바꾸어 내고 평양(平壤)  
동수어(凍秀魚)<sup>61)</sup>는 정목(正  
木) 일필(一匹)로 바꾸어 내  
는데 열읍(列邑)의 진상물가  
(進上物價)가 이와 같은 것  
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것을 수운(輸運)  
할 때 색리(色吏)의 양식(糧食)과 경리(京吏)의 뇌물(賂物)이 모두  
백성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원방(遠方)의 물품(物品)은 얼음을  
재어 짐이 무거우므로 등이 상(傷)하여 성한 말이 없고 역마(驛  
馬)가 지탱하기 어려우면 민우(民牛)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황  
해·강원·충청·양남지방의 역은 대소사행(大小使行) 및 왜·  
야인의 왕래에 또한 지탱할 수 없어서 열 집에 아홉 집은 비었습  
니다.



조현 선생 유허 추모비(유형문화재 제 90호) : 조선 광해군 9 (1617)년, 김포시 감정동 소재. 조현 선생은 조선 선조 때의 학자이자 의병장으로 1544(중종39)년 출생하여 1592년 진사하였다. 이 추모비는 선생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것인데 명승 이만춘이 왕명으로 1648(인조 26)년 창건한 우서서원의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조현(趙憲)은 공물(供物)과 진상물(進上物)이 산

61) '동송어'의 원말

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먼 곳에서 물품을 구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가중되고, 토산물(土產物)일지라도 그 진상 물가가 고가인 폐단을 말한 것이다. 또한 현물을 직접 공납함으로써 운송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중간에서 서리(胥吏)들의 폐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조헌은 공납제도(貢納制度)의 폐단(弊端)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선(御膳)을 줄이고 먼 도(道)에서 생물(生物)을 올리는 것은 제사용(祭祀用)으로만 국한하여 진상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헌은 “신이 듣건대 황조(皇朝)의 어선(御膳) 비용은 모두 민부(民賦)에서 나오는데 은(銀)을 거두어 상선감(尙膳監)에 간직했다가 태감(太監)이 날마다 은을 내어 물선(物膳)을 시장(市場)에서 사고 감임(監飪)이 요리(料理)하여 올립니다.”라고 하여 운송비용과 부역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의 은납제도(銀納制度)를 제시하여 바람직한 공납제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헌은 공납제도(貢納制度)의 개혁과 함께 백성들의 부담이 되었던 부역(賦役)의 폐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인(良人)이 담당해야 할 역(役)에는 신역(身役)으로서의 군역(軍役)과 호역(戶役)으로써의 요역(徭役)이 있었다. 요역(徭役)이란 부역(賦役), 차역(差役)을 말하는 것으로 전(田) 8결당 1부(夫)의 기준으로 민호(民戶)가 보유하는 전토(田土)의 다과(多寡)에 따라 부과되고 1년에 6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요역은 실제로 지방관

이 임의대로 징발할 수 있었으며 권세가의 노비가 부담해야 할 요역도 소농민에게 전가되기 마련이었다. 이러한 과중한 부역 때문에 백성들은 피역(避役), 유망(流亡) 등의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다.

상부(常賦) 외에 횡감(橫斂)이 다단(多端)하여 팔결(八結)에 무명을 1년에 삼 필(三四)씩 거두고 봉족(奉足)의 가(價)를 1년에 오 필(五匹)씩 내어 주는데 권농이정(勸農里正)으로 호(戶)를 대소통(大小統)으로 편성(編成)하는 자가 한 달에 여섯 번 점검(點檢)하여 한번 빠지면 벌(罰)로 포(布)를 거두고 관속(官屬)된 자가 혹 매일 한 번씩 점검하여 빠지면 벌로 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일족(一族)의 역(役)은 원근(遠近) 친소(親疎)를 불문(不問)하고 한사람이 삼·사인(三四人)의 켈가(闕價)를 납니다. 그러므로 복으로 포를 짜는 자가 모두 없어져 장자(長者)의 바지와 저고리로 해마다 마련하는 것도 부족한데 어느 사이에 어린아이의 강보(襁褓)를 돌보겠습니까? 이는 백성이 어린애를 추위로부터 보호(保護)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조헌은 군포의 징수과정에서 관리 서리(胥吏)들이 몇 배씩 징수하고 족징(族徵) 등의 명목으로 3, 4인이 납부해야 할 것을 1인이 부담한다는 주구행위(誅求行爲)에 대해 지적하였다. 따라서 조헌은 부역(賦役)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정철(鄭澈)이 제기하였던 균역(均役)의 규정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역의 공정한 집행에 목표를 두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국경선이 북방으로 확대됨에 따라 남방 민호(民戶)를 북방으로 이주시켜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북령(徙北令)에 대해서 삼분사일제(三分徙一制)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즉 옮기려는 백성을 3분으로 나누어 그 1분을 옮기되 장정이 있는 호구를 먼저 옮기고 그 나머지는 머물게 하여 각각 공부(貢賦)를 거두어서 먼저 옮아간 호구를 부호(扶護)하다가 그 옮아간 자가 밭을 개간한 다음에 점차로 옮긴다면 살고 있는 자나 옮아간 자가 모두 거의 온전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삼분사일제를 실시하면 연기(煙家)와 환상(還上), 산행(山行)의 세 곳에 이름이 올라 있음으로 해서 항상 한 곳의 점호에는 응할 수 있으나 두 곳은 응하지 못하고 대신 꺾포(闕佈)를 바쳐야 하는 삼적징꺾(三籍徵闕)에 따른 폐단도 제거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폐해가 없어지면 신구민(新舊民)이 모두 농상에 진력하여 황전(荒田)도 개간되고 남도민을 사민(徙民)시킬 필요성도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조헌의 서리제도(胥吏制度)의 개혁과 공물제도, 진상 개혁안 등 경제적인 사상의 기저에는 항상 애민(愛民)의 입장에서 출발하고 불우한 백성을 대변했던 그의 사상이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그의 인식적 출발은 평범한 유학적 왕도사상(王道思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있었다는 점이다. 다만 그의 경제개혁론(經濟改革論) 제안이 한 번도 받아들여진

일이 없음은 시대적인 상황이라 해도 안타깝기 그지없을 따름이다.

이에 그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면, 선생의 종이 모현(某縣)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대를 두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선생에게 알려 주었다. 그리하여 선생은 도보(徒步)로 그를 찾아갔다. 마침 그곳에 사는 신언경(愼彦慶)이 선생과 전부터 알고 있던 인물이라 그 사실을 듣고 형리를 보내어 그 종을 붙잡아 왔다. 그 종이 처음에는 선생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본래의 양가의 출신이라고 속였다.

이에 신언경이 노하여 태(台) 수심을 쳤으나 그래도 승복하지 않았다. 이때 선생은 그 종놈이 매를 맞는 고초를 가엾게 여겨 신공(愼公)에게 이르기를 “이 놈이 과연 나의 종놈이라고 하면 비록 중한 형장을 맞고 죽어도 괜찮겠으나 만일 매질에 못 견디어 거짓으로 승복하게 한다면 이것은 양민을 위협해서 강제로 천민을 만드는 것이니 불가한 일이고, 일이 잘못될까 의심스러우니 강권으로 승복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형벌을 중지하고 정으로 물어 봄이 가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에 신공(愼公)이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과연 그럴까? 아마도 공(公)이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이 자(者)가 도망쳐 멋대로 산 것만 해도 이미 그 죄가 중하고, 또 이제 이놈이 공의 위세를 두렵게 여길만한 것이 없다고 여겨 요행(僥倖)히 종놈의 신세를 모면하려 하여 중한 장형을 가하여도 승복치 않는데 하물며 온화한 말로 물어 본다고 하여 어찌 스스로 사실을 고백할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극렬히 힘을 다하여 신공(愼公)의 형신(刑訊<sup>62</sup>)을 만류(挽留)하니 신공도 더 이상 고집(固執)하지 못하였다. 좌중(座中)

62)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캐묻던 일

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선생의 세상 사정이 어둡다며 웃었다. 선생은 곧 그 종놈을 앞으로 불러 말하기를 “네가 과연 양민이라고 하면 이제까지 말한 것 같이 하여도 좋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주인을 배반하고 양민을 모독한 것이니 그렇다고 하면 죄는 네게 있는 것이다. 너도 인간으로 양심이 있는 것이니 물러가서 깊이 생각해 보라.” 하니 그 종놈은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선생과 신공이 마주 앉아 있는데 그 종놈과 그의 노모 및 자녀들이 아관(衙官)에 나타나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기를 “누세(累世)를 두고 주인을 배반하였으니 소인의 죄가 만 번 죽어도 다 하지 못할 것인데, 오늘날 주인어른의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말씀이 또한 이와 같으니 하늘이 두려운지라. 어찌 감히 끝내 주인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신공은 경탄하여 탄복하기를 “관가에서 형벌을 가하는 것이 공의 후덕한 한 마디의 말만 같지 못하다.”하고 오래도록 탄복하였다.

## 5. 실천적 자세로 미래를 대비

조헌은 군정(軍政)의 문란(紊亂)으로 인해 장차 임진왜란(壬辰倭亂) 같은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豫言)하고 군제(軍制)를 개혁하여 국방강화(國防強化)를 역설하였다. 그의 군제개혁안(軍制改革案)은 민생안정을 통한 국방강화에 그 목표가 있었던 것이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16세기의 사회변화 속에서 군역(軍役)의 폐단(弊害)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군제(軍制) 운용을 모색한데서 비롯한다. 그가 제기

한 국방강화론(國防強化論)에 주목하는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추가된다.

16세기에는 군역제도(軍役制度)의 폐단으로 양인(良人)들의 군역 부담은 나날이 가중되어 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북방(北方) 방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남방(南方)의 경우에도 왜구(倭寇)의 침입에 대비하는 방어책이 보다 긴요한 국방문제로 대두되었다. 조헌의 국방강화론은 이와 같이 16세기 군역의 폐단 속에서 군제를 개혁하고 국방을 강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제기된 것이다.

조헌은 군정이 부족한 가장 큰 원인을 가중된 군역의 폐해에서 찾았다. 그는 “아조(我朝)에 이르러 군역(軍役)이 가장 고통스러워 백성들이 담당하고 지탱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산승(山僧)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천비(賤婢)에게 장가를 보내 처로 삼게 하고, 딸이 있는 자는 천노(賤奴)에게 시집을 보내 값을 받고 일변일족(一邊一族)의 비용을 면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여 양인(良人)들이 군역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고 또한 일변일족(一邊一族)의 파산을 막기 위해 노비(奴婢)나 승려(僧侶)가 되어 군정(軍丁)의 수가 감소하여 군사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조헌은 군정(軍丁) 확보(確保)를 위해서는 앞서 경제개혁론(經濟改革論)에서 말했듯이 공안을 개정하여 민생을 안정시켜 경제적으로 피폐한 백성들이 도산(逃散)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관리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로 인해 떠돌아다니는 백

성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녹봉제를 시행하여 관리들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럼으로 해서 군정(軍丁)의 수가 늘어난다고 보았다.

만약 위로부터 먼저 사노(私奴)를 한정(限定)하는 제도(制度)를 만들어 내수(內需) 노비(奴婢)는 각 천명으로 그치되, 그 건장(健壯)한 자를 뽑아 군정(軍丁)에 보충(補充)하고, 공경이하(公卿以下)도 차례로 노비(奴婢)의 한계(限界)를 정하되, 여력(余力)있는 자를 뽑아 보병(步兵)으로 정하며, 전지(田地)가 있으나 몸이 약(弱)한 자는 졸정(卒丁)으로 정하고, 전지(田地)가 없고 몸이 건장(健壯)한 자는 연대(烟臺)의 성(城)에 소집(召集)하여 공지(空地)를 개간(開墾)하게 하여 세업(世業)을 삼게 하고, 전업(田業)이 아직 성취(成就)되기 전에는 관(官)에서 의량(衣糧)을 주고 또한 궁시(弓矢)를 주어 십 년간 생취(生聚)하여 재산(財産)을 모으고 십년간 교훈(敎訓)한다면 백만(百萬) 정병(精兵)을 가히 이십년 후에는 판비(辦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조헌은 한노제(限奴制)의 시행을 통해서 군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즉 벼슬이나 품계에 따라 노비의 수를 제한하고, 그 나머지 장정은 생활에 전력하게 하여 군사의 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호군(守護軍)의 역(役)으로 인한 폐단을 개선하여 왕실의 과다한 인력 동원으로 인한 군정 감소를 막고 재가(再嫁)를 허용하여 자연인구 증가를 통해서 군정(軍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헌은 외적 방어에 성대(城臺)가 중요하므로 견고한 성을 축조해야 된다고 하였다. 그는 당시 성대(城臺)가 구조상 매우 취약하여 변방 방어도 허약하고 내지(內地)도 역시 지킬 만한 곳이 없다고 파악하였다. 즉 장성(長城)이 있으나 말이 뛰어 넘을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고 연대(煙臺)가 있으나 바람이 불고 눈이 올 때는 얇은 옷을 입은 병사들이 거처할 수 없고, 성의 높이가 고르지 못하여 한 곳이 무너지면 전체가 함락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대(城臺)의 축조(築造)가 시급하고 아직 성대(城臺)가 없는 남도 해안에도 성대(城臺)를 축조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아조(我朝)의 사졸(士卒)은 겨우 한두 보인(保人)에 그치는 데도 혹은 장비 지급이 불가능하여 마장(馬裝), 기계(器械)를 스스로 구비토록 하지 않음이 없습니다.”라고 하여 당시 군정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함 속에서 장비까지 스스로 마련하게 하고 있어서 강군(強軍)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해결 방안으로 지면(知面), 향미(鄉味), 면신(免新) 등을 폐지하고 그 비용으로 군장마필(軍裝馬匹)을 마련하고, 일체 입자(笠子)의 사용을 금지하여 죽(竹)의 낭비를 막고 이를 조전(造箭)에 돌려 궁시(弓矢)를 확보하면 자연스럽게 군졸을 조련시킬 수 있고, 번식(繁殖)하지 못하는 말을 군졸(軍卒)에게 나누어주면 항상 말타기를 익힐 수 있어 전시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헌은 군정의 확보와 군비의 보강을 전제로 군대의 강함은 그

기율(紀律)에 좌우된다고 보았다. 그는 평안 내지(內地)의 군이 군기(軍紀)가 문란하여 지나가거나 머문 곳에서 백성들의 곡식을 마음대로 취하여 말에게 먹여 백성들의 원성이 높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장수들도 국가보다는 사사로운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군위(軍威)가 서지 않고 유사시에 이를 평정할 인물이 없을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그는 군율(軍律)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먼저 장수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학(武學)을 공부하고 덕망을 갖추어야 하며, 장수가 전투에 패배했을 때 조정에서 치죄(治罪)만 할 게 아니라 평소엔 군대를 조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장수(將帥)는 군령을 세울 때 자식이라 하더라도 참수하는 위엄을 보이되 평일에는 사졸(士卒)을 자식같이 돌보는 정성이 있어야만 강군(強軍)을 육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관직(官職)에 부임할 때 가족을 데리고 가서 안정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일단 임명된 자들은 오래도록 머물게 하여 빈번한 관리 교체에서 오는 각종 부조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인재 등용(人材登用)에 있어서 신분엔 구애됨이 없이 능력위주(能力爲主)로 선발하고 하급 관리에게도 녹봉(祿俸)을 지급하여 민폐를 끼치지 않아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현의 국방강화론은 박제가(朴齊家) 등 후일 북학파(北學派) 실학자(實學者)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제가도 우리의 성(城)이 허술함을 지적하면서 벽돌과 회를 사용하는 건



조천일기 : 조헌 선생은 1574년(선조 7년 5월)에 31세로써 절정관이 되어 성절사 박희립과 더불어 명나라를 다녀왔다. 이 때 기록한 일기가 조천일기이다. 5월 10일 개성에서 정몽주 사당을 참배하고 그해 11월에 조정에 돌아와서 8조소를 올렸다. 조천일기는 서사체로 여행하는 동안 매일의 천기, 유숙한 곳, 만나서 이야기한 사람, 물건을 주고 받은 일, 구경한 곳, 연회를 받은 것 등이 기록되어 있다.

고한 축성(築城)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박제가의 축성에 관한 의견은 조헌의 축성에 관한 견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조헌은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국방강화와 함께 왜(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대외정책(對倭政策)은 을묘왜변(乙卯倭變) 이후 강경책(強硬策)이 고수되면서도 일본의 거듭된 개항, 증선 요청과 관련하여 민감한 외교문제로 대두하였다.

1587년 풍신수길(豐臣秀吉)이 사신 굴강광(橋康廣)을 파견하여 통신을 요청하였으나 조선은 바다 길이 험난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에 풍신수길은 거듭 조정과 통호(通好)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조정에서는 의견만이 분분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황윤길(黃允吉)과 김성일(金誠一)을 통신사로 파견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왜국(倭國)과 통호(通好)해서는 안 되며 왜국(倭國) 사신의 목을 베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조헌은 이 소식을 유배지에서 듣고 통신사(通信使)의 과견을 중지하라는 「청절왜사소(請絕倭使疏)」를 올렸다. 그 내용인 즉 왜국의 사신이 반년 동안 우리나라 안에 머물면서 통호(通好)를 요구한 것은 군사를 일으켜 우리 국경(國境)을 침범하겠다는 뜻이니 어진 문사(文士)를 뽑아서 변방(邊力)의 방어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왜국(倭國)과 더불어 통호(通好)를 하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서너 가지의 약정(約定)을 한 뒤에 이를 허락(許諾)하기를 청하였다. 첫째 천정(天定)이란 참호(僭號)를 빨리 버릴 것, 둘째 저들에게 붙잡혀간 어채민(漁採民)과 귀화(歸化)했다가 반역(反逆)한 자를 불가불(不可不) 돌려보낼 것, 셋째 세폐(歲幣)의 수효(數交)를 불가불(不可不) 감축(減縮)하여 정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상소문은 관찰사 권징의 목살로 선조(宣祖)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하였다. 이에 조헌은 유배에서 풀리자마자 두 번째 상소문을 올려 다시 한 번 절왜(絶倭)를 주장하였다. 관찰사(觀察使)가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고 우국충정(憂國衷情)의 마음으로 필사적인 상소를 하였지만 이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1591년 드디어 황윤길(黃允吉)과 김성일(金誠一) 등 통신사를 일본에 보냈는데, 풍신수길(豊臣秀吉) 또한 현소(玄蘇) 등을 다시 조선에 보내와 명나라를 쳐들어갈 길을 빌려줄 것을 청해

왔다. 당시 일본이 보내온 국서에는 좁은 일본(日本) 열도(列島)를 떠나 명나라에 쳐들어가 일본의 풍속과 정화를 실시하여 제도(帝都)를 만들고 입조(入朝)가 늦은 소국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명나라를 공격할 때 사졸(士卒)을 거느리고 종정(從征)하면 더욱 인맹(隣盟)이 두터워질 것이라고 하여 이미 조선침략의 내용이 시사되어 있었다.

이것을 본 조정 대신들은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조헌은 그 해 3월 상경하여 지부상소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옥천(沃川)으로 돌아와서는 아들 완도(完堵)를 시켜 평안감사(平安監司) 권징(權徵)과 연안부사(延安府使) 신각(申恪)에게 글을 보내 참호(塹壕)를 깊게 파고 성채(城砦)를 완전하게 하여 수비에 대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권징은 이 글을 보고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황해도나 평안도에 왜적이 어떻게 들어 올 수 있으랴? 돌아가서 자네 어른에게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이르게.”라고 하였다. 하지만 신각은 조헌의 권유하는 바를 쫓아서 병기를 일대수리(一大修理)하고 성내의 붓물을 막아 큰 연못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뒷날 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정암(李廷翰)으로 하여금 성을 온전하게 보전함은 물론 대승을 거두게 하였다. 이로서 연안지방(延安地方)의 백성들이 전부사(前府使) 신각(申恪)의 사전 대책의 공(功)을 생각하고 비를 세워 공훈을 표하였다.

사실 조헌의 이 상소는 당시 정세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그에 합

당한 절묘한 전술적 대안이었다고 본다. 유구(琉球)와 일본(日本)의 의민(義民)과의 공동전선은 풍신수길 정권의 내부 허점을 공격하는 것이고 또한 중국을 위시한 국제여론(國際輿論)을 환기시켜 조선침략(朝鮮侵略)을 억제시키려는 대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헌은 절왜(絶倭)를 내용으로 하는 강경한 대왜외교론(對倭外交論)을 전개하고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공동전선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그의 외교론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장을 달리 해야 하겠다. 그의 대왜외교론이 타당성이 없다기보다는 봉당정치(朋黨政治)의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國家)의 존망(存亡)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도 사사로운 당리당략(黨利黨略)의 사악한 기운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해안 이전에 어찌 그리 안목이 없었는지. 조헌이 일찍이 왜군의 침입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비하는 <영호남비왜지책(嶺湖南備倭之策)> 을 저술하여 그 방비책을 논한 것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일로 국력을 허비했는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 IV.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실천과 의병활동

임진왜란(壬辰倭亂)은 1592년 4월 13일에 일어났다. 이때 동아시아 정세는 크게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동쪽 일본에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란 괴이한 인물이 나타나, 일본을 통일하더니 그는 많은 장수들이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몹시 두려웠다. 그리하여 조총(鳥銃) 등으로 훈련된 역전의 군사를 내몰아, 영토를 넓히고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려는 허망한 야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조선의 내정을 탐지하게 하더니 급기야 “명나라를 치겠으니 길을 빌려 달라”라고 오만(傲慢)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때 우리나라는 태평 속에서 국방문제는 관심도 없이 오직 당쟁(黨爭)만을 일삼았고 명나라 역시 건국한 지 224년이 지난 노대국(老帝國)으로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우리 조정에서는 결국 선조 23년에 황윤길(黃允吉)을 정사로, 김성일(金誠一)을 부사로 삼아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여 내정을 살폈으나, 여기에 두 사람의 판단자체가 상반(相伴)되어 동인은 김성일의 무전론(無戰論)에 동조하고 서인은 황윤길의 유전론(有戰論)에 기울어지며, 국론이 분분하

더니 결국 태평세월에 민심만 소란케 한다하여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이 율곡 선생과 조헌 선생 등이 예견한 바와 같이 왜군이 갑자기 침입하자 부산에 상륙한지 불과 20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2개월 후에는 평양성이 떨어졌으며, 선조대왕은 임진강, 대동강을 건너서 의주(義州)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고, 두 왕자(王子)는 함경도까지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동안 왜군은 제1차로 상륙한 15만 대군을 3대로 나누어 동로군(東路軍)은 카토오 키오마사[加藤清正]가, 중로군(中路軍)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서로군(西路軍)은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가 이끌고 북상하였는데 우리의 관군(官軍)은 무방비 상태였으므로 왜군은 거침없이 서울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왜군은 계속 제4군 모리(毛理), 제5군 후구시마[福島], 제6군 고바와가와[小早川隆景] 등이 계속 부산에 상륙하여 약탈과 살육을 일삼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호남과 평안도 일부 지방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왜군에게 유린당하게 되었다. 관군은 뿔뿔이 흩어져 백성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러나 호남, 영남, 강원, 호서 등 각 지방에서는 의병이 줄기차게 일어나 왜적과 충돌하였다. 유명한 의병 대장으로는 호남의 김천일(金千鎰), 고경명(高敬命), 영남의 곽재우(郭再祐), 정인홍(鄭仁弘), 호서의 조헌(趙憲) 등이 있었다. 이들은 이름 있는 지방 명사들

이었으며 일단 꺾기하니 백성들의 많은 호응을 받아 국난극복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 1. 전운(戰雲) 감지

조현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절왜소(絶倭疏)> 등을 통하여 강경한 대왜정책(對倭政策)을 주장한 바 있고, 방어책을 지어 올려 적의 침입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쟁(黨爭)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조현은 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데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하면

선생이 일찍이 대둔산(大菴山)에 발력(渤歷)하며 월여(月餘 : 15일)를 돌아다니면서도 글을 읽는 것으로 일과를 삼지 않고 날마다 산속간(山俗間)이나 혹은 높은 봉에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 보며 풀잎을 뜯어 흐르는 물에 흘려 보냈는데 이것은 근심을 달래고 슬픔을 덜어 보자는 것이요, 그 뜻이 아름다운 경치에서 유람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신이 헤어지면 스스로 엮어서 신었지 중의 손을 빌리지 않았으며 늘 말을 할 때에 혀 차는 소리가 입에서 끊이지 않았다. 밥을 먹다가도 때로는 수저를 놓고 탄식하는 소리를 하니 중들이 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다. 하루는 네 사람의 중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선생이 먼저 두어 술 뜨고 그 나머지를 중들에게 밀어 주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왜란이 있



壬辰倭亂圖

을 것이고 나는 응당 의병(義兵)을 일으켜 근왕(勤王 : 왕을 지킴) 할 것인즉 오늘 이 밥을 같이 먹는 자는 내가 의병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거든 곧 나에게로 와서 일을 같이 도모하자.” 하였다 이에 중들이 그 말을 궤이하게 여기면서도 건성으로 그렇게하기를 응낙하였었다. 이듬해 임진년(壬辰年)에 과연 변란의 소식이 들리니 중들이 놀라 탄복하고 앞을 다투어 의(義)를 쫓는데 네 명의 중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이미 죽었고 또 한 사람은 발에 병이 나서 걷지를 못하였지만, 나머지는 모두 선생(先生)과 더불어 같이 싸우다가 죽었다. 발에 병이 나서 의병에 가담치 못한 자가 사자산(獅子山)에 있을 적에 그 중을 만났다. 그가 나에게 그런 말을 들려주었고 선생과 같이 죽지 못한 것을 한(限)스럽게 여기며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었다.

선생은 위로는 천문(天文)을 보았고 아래로는 인사(人事)를 살펴서 왜란이 있을 것을 알고 돌을 광주리에 담아 그것을 부인으로 하여금 머리에 이게 하고 날마다 산을 오르내리게 하였다. 이것을 본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까닭을 물으니 선생은 “나는 수고스러움을 미리 익히게 하여 장차 난리를 피하려 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생의 이 말을 듣고는 그 행동을 가볍게 웃어넘겼다. 왜란(倭亂)이 일어나기 전해 칠월 초이일에 선생은 금산군수(鎭山郡守) 김현성을 찾아보았는데 이때 박정노(朴廷老)와 더불어 영벽루(映碧樓)에 올라 경치를 구경하였다. 그때 해는 한낮이 기울어 3~4시 가량 되었다. 별안간 붉은 요기(妖氣)가 동쪽에서 일어나더니 세 갈래로 나뉘어 한 줄기는 북쪽으로 향하여 길게 하늘로

뻘었고 또 한 줄기는 서쪽으로 향하였으며 또 다른 한 줄기는 서남간으로 길게 뻘었는데 그 빛이 매우 밝았다. 선생은 이것을 살펴보고 박정노(朴廷老)에게 이르기를 “수길(秀吉)의 군대(軍隊)가 이미 행동을 개시하였으니 명년(明年) 봄에는 이 적기(赤氣)와 같이 대거로 우리 땅에 침입할 것이다. 나는 장차 모친을 모시고 공주로 피난을 할 것이니 자네도 나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그 이튿날에 선생은 김군수(金郡守)를 만나 어제의 천문(天文)과 자기의 의견을 모두 말하고 이것을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고 그로 하여금 조정(朝廷)에 전문(轉聞)<sup>63</sup>하여 급히 방어대책을 도모할 것을 청하였다.

김현성이 선생의 말과 같이 도형(圖形)을 그려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였으나 감사(監司) 이광(李洸)은 이것을 묵살하고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다.

임진년(壬辰年) 3월에 선생은 옥천(沃川)에서 김포에 있는 선영(先塋)에 성묘하였는데 제문(祭文)을 지어 제사(祭祀)하며 장차 왜란이 일어날 것이니, 영결(永訣)하는 뜻을 고(告)하였다. 이때 친구들이 와서 보고 그네들은 마음속으로는 선생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 그것을 믿지 않고 시험 삼아 “과연 난이 일어날 것이며, 그렇다면 어디로 난을 피해야 하겠는가?”를 물었다. 이에 선생은 “강화도(江

63) 다른 사람을 거쳐 간접으로 들음. 여기서는 간접으로 전하였다는 뜻.

華島) 마니산(摩尼山)으로 들어 갈 것 같으면 난을 면할 것 같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 말이 옳은 것으로 드러났다. 2월에 부인이 작고(作故)하여 3월에 장례(葬禮)를 치르는데 많은 친지(親知)들이 회장(會葬)하였다. 별안간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니 선생은 크게 놀라 여러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 소리는 천고(天鼓)라는 것으로 왜적이 바다를 건너 우리를 침범하는 것이다.”하고 눈물을 흘리기를 마지않았다.

의병(義兵)을 일으킨 후로는 밤마다 천문을 살피고는 북쪽을 향하여 울며 절을 하였다. 무덤이 있는 근처의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으니 선생은 대답하기를 “내 생각하건대 재앙(災殃)이 행조(行朝)에 미친 것 같다. 오늘 다시 살펴보니 입북(入北)한 두 왕자가 잡힌 것 같다.” 하였다. 문인(門人)들이 모두 그 날짜를 기억해 두었고 후에 흉보(凶報)를 들으니 왜적이 바다를 건너 또 두 왕자가 피로(被虜)된 날짜가 모두 맞아 들었다.

중봉이 김포 선영에 성묘를 하고 옥천(沃川)으로 내려와 한 달이 채 못 된 4월 14일, 전 일본을 통일하고 전쟁준비를 해온 풍신수길은 마침내 소서행장과 가등청정 등을 선봉장으로 삼고 바다를 건너 우리 강토를 쳐들어오니 그들의 군사는 무려 15만 명이 넘었다. 왜적은 조총(鳥銃)이라는 신무기로 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선봉에 나선 진격군의 대부분이 훈련을 잘 받은 정예부대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군사들은 훈련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다 겨우 창이나 칼·활 등 구식무기로 무장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더욱이 조정에서는 당파가 분열되어 정쟁이 심하였고 왜적을 무찌를 방비책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조헌은 왜적이 침입했다는 비보를 듣고 “이제 올 것이 기어이 오고야 말았다. 내 일찍이 여러 차례에 걸쳐 상소를 올려 그 대비책과 방어책을 구했건만 그 누가 귀를 기울였단 말인가! 이제 와서 통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오직 의로운 마음으로 임금과 백성을 구하는데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만이 남았도다.”하고는 비장한 각오와 결심으로 즉시 어머니 김씨를 청주시 선유동으로 피신시킨 뒤 행동에 옮기기로 하였다.

5월 3일 청주에서 격문을 띄우고 이우(李瑀), 이봉(李逢), 김경백(金敬伯) 등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구국위민(救國爲民)할 것을 결의하였다. 청주(淸州)에서 의병을 모집하는 격문(檄文)을 띄우기는 하였으나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을 때라 백성들은 전란(戰亂)이 무엇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右往左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당장에 의병을 모집하기는 어려웠다.

청주에서 의병 모집에 실패한 조헌은 그 즉시 옥천(沃川)에 내려와 의병 모집에 나섰다. 옥천은 수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라 문인(門人)과 지인(知人)들이 많았다. 이곳에서 조헌은 문인인 김철(金節), 박충검(朴忠儉), 전승업(全承業) 등과 향병(鄉兵) 수백 명을 모집(募兵)하는 성과를 올렸다. 의병들의 무장은 기껏해야 몽둥이와 도끼,



근왕창의도(勤王倡義圖): 1592년 조헌 선생과 그 제자들이 국왕을 보위하고 강도를 수복할 의병을 모으고자 꺾기하는 장면이다.

1592년 4월 왜적이 우리 강도를 짓밟고 쳐들어 올 때에 조헌 선생과 그 제자들인 전승업, 이봉, 김절, 김락, 박충겸 등이 옥천에서 분연히 꺾기하여 5월 21일 열읍(列邑)에 격문을 띄우고, 국왕을 보위하고 강도를 수복할 의병을 모으고 있다. 의병들이 창과 칼 그리고 도끼, 낫, 쇠시랑 등의 농구를 들고 먼 마을에서 찾아와 수백 명이 되었다. 여기에서 의(義)의 기치(旗幟) 밑에 뭉친 의병들은 복상하다가 차령에서 처음으로 왜적을 무찔렀다. 이 때 충청도의 전황을 보면 왜적의 주력부대가 이미 옥천, 영동, 청주를 거쳐서 서울로 북상한 후였으며, 청주에는 왜군의 수비부대가 남아 있었다. 조헌 선생은 적의 배후에서 의병모집을 진행하였다.

쇠시랑 등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농기구뿐이었으나 임금을 보위(保衛)하고 강도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만은 목숨을 내놓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당시 충청도의 전황(戰況)은 왜군의 주력부대가 이미 영

동·옥천·청주를 거쳐 서울로 북상한 후였으며 청주에는 왜군의 수비부대가, 주변지역에는 잔여부대 혹은 후원부대가 남아 각 고을을 약탈하고 살상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6월 중순 조헌은 의병 수백 명을 이끌고 북상길에 올라 보은, 차령에서 왜적과 첫 대면을 하게 되었다. 이들 왜적은 이 길목을 통해 회인을 거쳐 청주지방으로 진군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던 참이었다. 조헌의 향병은 그야말로 오합지중(烏合之衆)이었지만 선봉에서 지휘하는 중봉의 명령에는 일사분란 하였다. 중무장(重武將)을 한 왜적들은 중봉의 군사들이 보잘 것 없는 향병이라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깨알 볶듯 조총을 마구 쏘아대며 진격해 왔다. 그러나 활과 창 그리고 각종 농기구와 돌맹이 등을 이용하여 맹렬하게 대적하자 비록 왜군의 수효는 많았으나 쓰러지는 병사가 많았고 여기저기서 하늘을 찌르는 비명소리가 산을 울려 메아리쳤다. 마침내 왜군은 패배하여 몇몇 살아남은 병사들만 도망하였다. 이 차령 싸움에서 크게 패퇴한 왜적들은 이후로부터 감히 이곳을 넘어 청주나 호서지방을 치려던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반적인 당시의 전세는 우리나라측이 크게 불리하여서 왜군은 부산과 동래를 함락한지 얼마 안 되어 조령을 넘게 되었고 파죽지세로 북진을 하니 선조도 피난할 수밖에 없었다.

이 차령 전투는 향토방위(鄕土防衛)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모병(募兵)의 성과와 더불어 조헌의 첫 실전이자 전

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차령전투의 성과에 힘입어 6월 12일 경에는 호서(湖西)와 영남(嶺南)에서 의병의 봉기를 촉구하는 격문을 보냈으며 그 결과 많은 장정이 응모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향병(鄕兵) 모집은 그리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의리상 향병(鄕兵)을 규합하여 힘을 다해 싸워야만 전하의 행차가 환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臣)이 외롭고 천하기 때문에 일찍이 따르지 않으므로 재차 격서를 띄우게 되자 응모하는 사람이 자못 많았습니다. 동시에 왜적이 옥천(沃川) 지방을 넘봄으로 이곳의 방어가 급하여 병정을 모으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또 순찰사가 관군의 응모를 허락하지 않으므로 이미 모집한 군사도 도로 해산(解散)하고 말았습니다.

2차 모병은 옥천(沃川)이 이미 왜군의 세력권에 들어가 효과적인 모병활동을 전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응모대상에 대한 관군(官軍)과의 마찰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던 것이다. 임진왜란 초기에 관군(官軍)과 의병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던 것은 대부분의 의병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사실이다. 예를 들어 경상순찰사 김수와 의병장 박재우(郭再祐), 전라도 순찰사 이광과 의병장 고경명(高敬命) 사이의 원만하지 못했던 관계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조현도 충청도 순찰사 윤선각과 자주 갈등을 빚었던 예외가 아니었다.

처음에 윤선각은 중봉이 내세우는 대의명분에 동조하고 오히려

함께 일하기를 청하는 한편 의병모집을 서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불과 며칠 사이에 의병에 지원한 사람은 무려 1천명에 달했다.

그러나 순찰사 윤선각 밑에는 안세현이란 음흉한 인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순찰사에게 “공(윤선각)은 한 도의 병사와 말을 가지고도 일찍이 조그만 공로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현이란 사람은 가진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공보다 먼저 체적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가 만약 의병을 얻게 된다면 싸움터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공의 죄를 반드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중봉에게 협조할 경우 앞으로 큰 화가 미칠 것이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윤선각은 안세현의 말이 옳다고 여겨 관할 수령들에게 공문을 보내 의병에 나섰던 자들의 부모나 처와 자식을 모조리 가두게 하였다. 더구나 청양현감 임순까지도 중봉에게 1백여 명의 사졸을 보냈다는 명목으로 그를 잡아다 공주 감옥에 가두니 그동안 모여들었던 의병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중봉은 순찰사 윤선각이 안세현이란 자의 농간에 넘어가 의병에 나섰던 장정들의 부모와 처자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개하여 순찰사에게 서신을 보내 “협잡하는 놈(안세현)의 말만 듣고 충신과 의사의 용기를 억누르고 있다.”라는 내용의 꾸짖는 글을 보내니 이 글을 받아 본 순찰사는 중봉의 준엄한 꾸짖음에 몹시 못 마땅해 하였다.

6월 말경 중봉은 순찰사와 맞서 보았자 당시 형편으로는 불리하

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침내 이곳에서의 의병 모집을 포기, 충청우도로 떠나 그곳에서 새로운 작전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 참봉 이광륜, 선비 장덕개·신난수·고경우 등이 모두 그의 충의를 흠모하여 뒤따랐다. 그리하여 이광륜 등의 의사들은 즉시로 관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으니 멀고 가까운 곳에서 모여든 사람이 무려 천 육백여명에 이르렀다. 중봉은 비록 전날에 의병을 일으키는 문제로 순찰사와 크게 마음을 상한 일이 있었으나 이제 다시금 힘과 용기가 솟아났다. 중봉은 곧 병영을 갖추고 충의의 깃발을 세우는 한편 의병들을 각 부서로 나누어 배치하여 임무를 맡겨 주었으며, 정산·온양 등지를 차례로 돌며 그 위풍과 기세를 드높이니 백성들의 인심은 크게 안정되었다.

7월 4일 중봉은 휘하 병사들을 거느리고 웅진<sup>64)</sup>에서 필승을 다짐하는 제사를 하늘에 드리고 싸움에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다음날 먼동이 트자 중봉은 아침 일찍 군사들을 위로 하고 오직 국난과 진격만을 생각하라는 맹세를 하였다.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대오를 잃지 말고, 자리를 떠나지 말라. 남을 헤치지 말고, 적병을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군령만을 생각하고, 국난만을 생각하며, 진격만을 생각하라. 감히 물러나지 말고, 오직 큰 적을 죽이며, 작은 이익을

64) 웅진(熊津) : 공주의 옛 이름.

탐내지 말고,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하면 마침내는 공훈이 있을 것이나,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하지 않으면 벌이 있고 후회가 있으리라. 오직 의로움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라.<sup>65)</sup>

이후 조헌은 7월 4일 웅진 용당에서 필승(必勝)을 다짐하는 제사를 하늘에 지내고 본격적인 왜군 공략에 나선다. 조헌의 의병은 다른 의병들에 비해 뒤늦게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모병과 군수품의 확보 때문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천여 명의 의병을 모집하고 유생들의 지원으로 군량을 확보하여 진군할 수 있었는데 이때 의병부대는 정산, 온양을 거쳐 연해 지방인 홍주로 서진한 데 이어 곧바로 회덕으로 진군하여 청주성 전투를 전개하였다.

조헌이 의병을 일으킨 배경은 당시 의병의 일반적인 성격 속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활동은 유교적(儒敎的) 근왕정신(勤王精神)과 향토보전의식(鄕土保全意識), 민족적(民族的) 저항의식(抵抗意識)에서 이루어졌다. 그의 의병활동도 그러한 정신에서 구현되었으며 더 나아가 동인정권(東人政權)에 대한 비판적 자세에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sup>66)</sup>

조헌은 임진왜란이 발생하여 왜군에게 국토가 유린된 배경에 대해 “신이 그옥이 나라의 화재(災禍)로 인한 실패의 까닭을 생각하

65) 「稿軍誓辭」

66) 李錫麟, 『王亂義兵將 趙憲 研究』, 新丘文化社, 1994. p.111.



청주성 탈환도 : 청주성은 원래 방어사 이옥이 지키고 있었으나 갑자기 왜군이 쳐들어 오자 그는 제대로 싸움도 한번 못하고 성을 뺏기고 말았다. 청주성을 점거한 왜장 하지슈가는 본시 7천여 명의 병력 중 일부 병력으로 이곳을 지키고 있었다. 옥천에서 기병한 조현 선생은 김질, 김락, 박충검 등과 보은, 차령에서 왜군을 무찌르고 충청도 서남지구에서 이광륜, 장덕익, 신난수, 고경우, 노용탁 등의 군사가 조현 선생 깃발 아래 모여들어 1천 6백여 명이 온양, 회덕 등을 순무한 다음 영규대사가 이끄는 승병 1천여 명과 합류하였으며 방어사 이옥의 군대 5백여 명도 진출, 1592년 8월 1일 청주성을 공략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의병들은 청주성 서문(西門)을 향하여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조현 선생의 의병은 활, 칼, 창 등으로 무장하였고, 영규대사 휘하의 승병들은 신장, 낫 그리고 도끼 등으로 무장하였는데 왜적은 조총으로 맞섰으나 비장한 결의로 돌격하는 의병 앞에 겁에 질려 성안으로 후퇴하였다. 조현 선생은 전군을 독전, 성곽을 오르게 하였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며 서북쪽으로 소나기가 휘몰아쳐 군졸들은 더 싸울 수 없게 되었다. 조현 선생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기를 옛 사람이 으르기를 “승패는 천운(天運)에 달려 있다고 하더니 과연 그런가 보다”라고 말하면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날 밤 왜적은 성중에 불을 놓고 기(旗)를 세웠다. 조현 선생은 왜군이 북문(北門)으로 빠져나갈 것을 염려하여 방어사 이옥에게 북문 밖에 북병을 배치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옥은 병졸을 매복시키지 않아 왜적은 그날 밤 어둠을 이용하여 북문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여 보니 모두 계미년(1583) 이후로 조정에서 실언(失言)한 바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민심(民心)은 조정을 믿지 않고 군사는 투지가 없어, 적의 종횡(縱橫)함을 보고서도 한 사람도 나와서 대적(對敵)하는 자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조헌은 동인정권(東人政權)에서 시행한 조정의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왜란이 일어났다고 보고 임진왜란 발생의 책임도 위정자들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조헌의 창의기병(倡義起兵)은 동인정권(東人政權)의 실정(失政)과 관군의 패산(敗散)으로 촉발된 것이었으며 왜군에게 국토가 유린되고 선조가 피난하는 국가 위기 속에서 유교적(儒敎的) 근왕정신(勤王精神)을 실천했던 것이다.

이에 조헌은 왜군의 침략을 예견하고 있었던 만큼 호서지방(湖西地方)에서 가장 먼저 의병(義兵)을 일으키게 된다. 그는 비록 조선의 군비(軍備)가 약화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삼도(三道)가 힘을 합하여 이 나라의 위급(危急)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이때가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하여 의병(義兵)의 궤기를 촉구하였다.

중봉은 을곡이 죽은 후 동인정권에서 시행한 조정의 정책이 잘못 된데서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의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임진왜란 발생의 책임이 정치를 담당하고 있던 자들에게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략회의도(戰略會議圖) : 조헌 선생이 영규대사와 함께 휘하참모 이광륜, 임정식, 김철, 이려, 광자방 등과 싸움에 임하면서 전략을 협의하는 장면이다.

충북 옥천에서 조헌 선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의병과 공주 감사에서 나라의 위급을 막고자 필기한 영규대사의 승군은 1592년 7월에 합류하여 장차 격전에 대비, 일련의 전략회의를 거듭하였다. 조헌 선생은 문과 출신인 선비이면서 군략면에서 상당한 식견을 지니고 있었다.

“유성룡(柳成龍)이 화의를 주장하여 왜적을 초래함은 진회(秦檜)<sup>67)</sup>보다 심하고 이산해(李山海)가 어진 사람을 해치고 나라를 그르친 것은 이림보(李林甫)<sup>68)</sup>보다 심하며 김공량(金公諫)<sup>69)</sup>이 백성에게 원망을 쌓은 것은 양국충(楊國忠)<sup>70)</sup>보다 심합니다. 그

67) 남송 고종 때의 재상. 악비를 무고하여 죽이고 주전파를 탄압하여 금나라와 굴욕적인 화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후세에 대표적인 간신으로 꼽힌다.

68) 당나라 현종 때의 재상. 성품이 음흉하여 이묘(李貓)라고 불리었음.

69) 조선 선조 때 사람. 선조가 총애했던 인빈 김씨의 오빠.

러면서도 지금껏 수령(首領)을 보존하고 있으며, 혹은 그 일당으로 중요한 직위에 있게 함으로써 어진 사람의 진로를 막고 있으니 어찌 민심을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 시키겠습니까. 아, 이 간신들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전가시켜 나라를 뒤집어엮고 망하게 하려고 하니 전하의 사사로운 총애는 비록 깊으나 종묘와 사직의 치욕은 적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이 증봉은 임진왜란의 초래가 일본과 단교하여 국방을 강화 하지 않고 오히려 유성룡 등의 화의 주창에 그 책임이 크며 이산해와 김공량(金公亮)의 잘못으로 민심을 동요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인의 입장에서 동인을 간신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동인 위정자들의 그릇된 정세판단과 잘못된 정치에서 왜란이 비롯되었다고 본 것이다. 특히 그는 임진왜란 초기에 관군이 패주한 것도 역시 동인 정권 실정(失政)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몇몇 간사한 자가 모두 당시의 어진 선비로 인정받아 혹은 관찰사가 되었으며, 혹은 목사나 부사직에 올랐습니다. 김수는 영남에서 잔인하고 포악하여 도민의 원망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왜적들이 진격해 오자 먼저 도망하였기 때문에 백성들까지도 대적하지 않았으므로 온 나라가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서예원(徐禮元)은 이름은 용맹한 장수였지만 왜적이 김해로 향하니 먼저

70) 당나라 양귀비의 사촌 오빠. 현종 때에 어사를 거쳐 재상이 되어 불법을 자행하다가 안녹산의 난 때 참살 당했다.

놀라서 달아나고 적에게 화살 하나 쏘아 보지 못함으로써 하나의 도(道)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광은 임금님의 근심을 급히 여기지 않아서 처음에 호남의 군중을 거느리고 공주에 이르러서는 앞으로 갈까말까 주저하다가 근왕(勤王)의 행진이 계속되자 진위에 도착해서 일부러 지체하면서 삼도의 군사가 흩어지고 영구히 수습하기 어렵도록 하였으니 이 세 사람은 정언신(鄭彦信)이 어질게 여기고 간당(姦黨)의 보배로 삼은 바입니다. …나라가 200년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신상필벌(信賞必罰)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장차 위태로운데도 달려가서 구원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들 소인들의 화가 한결같이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제 옛 평화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소인배를 그대로 두고서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중봉은 동인이 정권을 장악하여 올바른 정치를 펴지 못하고 인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김수·이광 등이 책임자가 아닌데도 관찰사에 올랐다고 비판하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원망을 사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왜군과 싸우지도 않고 도망하여 국토를 유린케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중봉은 싸움에 임하는 충청·영남·호남 삼도의 순찰사에 대해서도 “요즈음 우리의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은 그 대부분이 좋은 장수들이 아니다. 황금대만을 두르고 있을 뿐이며 나라로부터 받은 교지(教旨)만 중하게 여길 뿐이고 영·호남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임금님의 걱정은 알지 못하고 경기도에 머뭇거리면서 원수들의 병력만 굳게 만든다. 삼도의 임무를 가지고도 먼저 싸움에 나아

간 자를 구원하지 않고 한차례 싸움에서 패전한 뒤로는 다시 일어날 기세마저 없었다. 그 왜구를 기른 큰 죄를 논하면 어찌 병사와 수사의 대권이 합당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삼도의 순찰사들이 임금의 근심을 알지 못하고 왜군의 전력만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지적하면서 적을 토벌하는데 앞장섰던 고경명(高敬命) 같은 의병장을 구해 주지도 않았고, 삼도의 군사가 단 한 번의 패배로 주저앉았으니 삼도의 대권을 어찌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던 것이다.

중봉이 의병을 일으킨 것은 동인정권에서 관찰사로 임명된 자들이 패주한 것에 영향이 컸다. 특히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그는 이미 일본을 도(道)를 모르는 나라로 규정하여 외교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고 일본의 의민(義民)에게 격문을 보내어 풍신수길(豊臣秀吉)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중봉이 의병을 일으킨 것은 의리정신에 입각한 유교적 근왕정신(勤王精神)에 의해 출발하였다. 그는 일본을 원수로 규정하고 그들의 무례한 분탕질로 황폐화된 강토를 복구하고 선조 임금의 환궁(還宮)을 위하여 의병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리고 금산전투에 임하면서 “오늘은 단 한 번의 죽음이 있을 뿐이니 마땅히 의(義)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하였으니 이러한 의리와 근왕정신은 《중봉집》(重峰集)에 충의정신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봉이 의병을 일으키게 된 배경은, 첫째 동인정권의 실

정(失政), 둘째 임란 초기 관군의 패주, 셋째 왜군에게 국토가 유린되고 선조가 피난하는 국가위기 속에서 유교적인 근왕정신(勤王精神)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는 왜군의 침략을 예견하고 있었던 만큼 호서지방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중봉은 비록 조선의 군비가 약화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삼도의 힘을 합하여 이 나라의 위급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이때가 적당한 시기이다. 일생동안 기른 재주를 다하여 이 고난을 이기는 것도 바로 오늘이다.”라고 하면서 의병의 결기를 촉구하였던 것이다. 중봉 역시 의리(義理)와 근왕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집과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의병활동에 나섬으로써 이 정신을 구현하려 했던 것이다.

## 2. 의병과 함께

여기서는 『막좌문생동일순절록(幕佐門生同日殉節錄)』<sup>71)</sup>에 기록된 인물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 조완기(趙完基), 중봉 선생(重峰先生)의 아들로 선조(宣祖) 3년(1570) 6월에 김포현(金浦縣) 서감정리(西坎井理)에서 태어났다. 열굴 생김새가 대단히 훌륭하였으며 성품(性品)이 범상하지 않고 뛰

71) 선생의 막좌요, 문생(門生)으로 금산전투에서 같은 날 순절(殉節)한 인물들을 말한다.

어났다. 어려서부터 여러 아이들과 어울리거나 장난감을 손에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대기(火器)로 촉망(囑望)하였다.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아버지인 중봉(重峰)선생이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할 격문(檄文)을 띄우니 공(公)은 발을 싸매고 아버지를 쫓아 다녔다. 이에 중봉(重峰)선생이 “너는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할머니를 잘 봉양(奉養)하라.” 하였지만 공(公)은 “아버지는 사지(死地)로 가시는 데 자식(子息)이 어찌 참아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고 끝내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으며 청주(淸州)싸움에 참전(參戰)하였고 다시 금산(錦山)으로 왜적을 치러 갈 때 중봉(重峰)선생이 오지 말라고 하였으나 공(公)은 듣지 않았다. 금산(錦山)싸움이 불리(不利)하여 장차(將次) 패(敗)할 것을 알아차린 중봉(重峰)선생은 또 “네 형제들 가운데 큰 일을 담당(擔當)할만한 놈은 오직 완기(完基)뿐인데 그 애는 전날에 청주(淸州)싸움의 승전을 알리는 글을 가지고 용만(龍灣) 행재소(行在所)로 왔는데 돌아올 기약(期約)이 묘연(杳然)하고 또 부자(父子)가 함께 죽으면 네 할머니는 누구를 의지(依支)하시겠느냐 그러니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할머니를 보양(保養)하라.” 하였다. 이에 공(公)은 울며 절을 하고 대답(對答)하기를 아버지는 충신(忠臣)이 되는데 아들은 홀로 충신(忠臣)의 아들 노릇도 못하라는 말씀입니까?” 하였다. 그리고는 끝내 아군(我軍)이 패(敗)하게 되자 일부러 화려(華麗)한 의관(衣冠)으로 갈아입어 왜적으로 하여금 주장(主將)으로 오인(誤認)케 하여 아버지의 죽음을 대신

(代身)하고자 하였다. 과연(果然) 왜적은 공(公)을 주장(主將)으로 오인(誤認)하고 그 시체(屍體)를 돌로 으깨어 시체(屍體)마저 수습(收拾)하지 못하였으니 공(公)의 나이 23세였다. 선조(宣祖) 37년(1604)에 조역(租役)을 감(減)하도록 명(命)하였고 광해군(光海君) 7년에 정려(旌閭)를 표(表)하였으며 현종(顯宗) 4년(1663)에 금산(錦山) 종용사(從容祠)에 배향(配享)되었다. 동왕(同王) 14년(1673)에 특별히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추증(追贈)하였고 영조 10년(1734) 11월에 옥천(沃川) 표충사(表忠祠)에 종향(從享)하였다.

◇ 이광륜(李光輪), 참봉(參奉)인 이광륜(李光輪)의 자(字)는 중임(仲任)이다. 여주인(驪州人)으로 침추(僉樞) 우(遇)의 아들이며 문절공(文節公) 행(行)의 육세손(六世孫)이다. 효성(孝誠)과 우애(友愛)는 선천적(先天的)인 성품(性品)이며 강개(慷慨)한 절개(節槩)가 있었다. 한양(漢陽)에서 홍주(洪州)에 피난(避難)하고 있었는데 선생(조헌)이 창의(倡義)하였다는 말을 듣고 의병(義兵)에 종사(從事)하였다. 의병(義兵)에 참여(參與)하기에 앞서 그 아버지에게 재배(再拜) 결별(訣別)하고 부인(夫人)으로 하여금 내복(內服)에 실로 “문(文)”자를 새겨 신표(信標)를 삼고 향병(鄉兵) 수백인(數百人)을 모집(募集)하여 선생을 따랐고 마침내는 함께 죽었다. 죽어서 집의(執義)를 증직(贈職)하고 정려(旌閭)를 표(表)하였다. 선조 36년(1603년)에 종용사(從容祠)에 배향(配享)하고 그 자손(子孫)들을 녹용(錄用)하였다.

◇ 봉사(奉事)인 임정식(任廷式)은 풍천인(豐川人)이다. 성품(性品)이 질박(質朴)하며 궁마(弓馬)의 재조(才操)가 있었으며 대대(代代)로 정산(定山)에 살았다. 금산(錦山)싸움에서 척후장(斥候將)으로 본진(本陣)의 외곽(外廓)에 있었는데 본진(本陣)의 형세(形勢)가 위급(危急)함을 바라보고 말을 몰아 돌진(突進)하여 여러 놈의 왜적을 격살(擊殺)하고 전사(戰死)하였다. 추후(追後)에 정문(旌門)을 세웠다.

◇ 선비인 김질(金節)의 자(字)는 정숙(正叔) 호(號)는 월곡(月谷)이라 하였다. 개성인(開城人)으로 참봉(參奉) 대일(大鎰)의 아들이며 오자옹(五者翁) 약(籥)의 형(兄)이다. 대대(代代)로 옥천(沃川)에 살았고 선생의 문하(門下)에서 글을 배웠다. 그는 기국(器局)과 식견(識見)이 있으며 부모(父母)를 섬기는데 예법(禮法)에 어긋남이 없었다. 향병(鄉兵)을 모집(募集)하여 의군(義軍)에 종사(從事),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다. 숙종(肅宗) 41년(1715)에 정문(旌門)을 세웠다.

◇ 이려(李勵)는 전의인(全義人)으로 전 수사(前水使) 회수(淮壽)의 아들이며 고(故) 영의정(領議政) 탁(鐸)의 손자(孫子)이다. 강개(慷慨)한 성품(性品)으로 학문(學問)을 좋아하고 행실(行實)이 돈독(敦篤)하였다. 대대로 남들이 칭송(稱頌)하는 가풍(家風)이 있었으며 영동(永同)에 살았다. 선생의 창의(倡義)에 쫓았고, 정오품(正五品)인 지평(持平)에 증직(贈職)되고 정문(旌門)을 세웠으며, 우암(尤菴) 송

시열(宋時烈)이 묘표(墓表)를 지었다.

◇ 봉사(奉事) 곽자방(郭自防)은 선산인(善山人)으로 대대로 옥천(沃川)에 살았다. 효행(孝行)과 무재(武才)가 있었다. 정려(旌閭)를 표(表)하고 외손(外孫) 송시열(宋時烈)이 묘표(墓表)를 지었다.

◇ 만호(萬戶)인 변계온(邊繼溫)은 원주인(原州人)이다. 대지(大志)와 절개(節槩)가 있는 사람으로 선생의 문하(門下)에서 공부(工夫)하였다. 전투(戰鬪)에서 패(敗)하였으되 한 걸음도 곁을 떠나지 않고 선생(先生)의 곁에서 전사(戰死)하였다. 병조정랑(兵曹正郎) 벼슬을 증직(贈職)하고 정문(旌門)을 세웠다.

◇ 현감(縣監)인 양응춘(楊應春)은 자(字)를 인향(仁鄉), 호(號)를 도동(道洞)이라 하였으며 석성인(石城人)으로 주부(主簿) 충백(忠伯)의 아들이며 고려조(高麗朝)의 명신(名臣) 천수(天壽)의 후손(後孫)이다. 청렴(清廉)하고 강직(剛直)하며 강개(慷慨)한 성품(性品)의 소유자(所有者)로 임진년(壬辰年)에는 회덕현감(懷德嶺德)으로 있으면서 아버지 상(喪)을 당(當)하였다. 이때에 선생(先生)의 의(義)를 부르짖는 격서(檄書)를 보고 검은 상복(喪服)을 입고 종군(從軍)하였다. 뒤에 이조참의(吏曹參議) 벼슬에 증직(贈職)되고 정문(旌門)을 세웠다. 은진(恩津) 사람들이 사당(祠堂)을 세워 제사(祭祀)하였다.

◇ 이항(李砀)의 자(字)는 강지(絳之)요 호(號)는 마산(馬山)이라 하였다. 함안인(咸安人)으로 대사간(大司諫) 임(霖)의 손자(孫子)이며 양간공(襄簡公) 세응(世應)의 증손(曾孫)이다. 그는 문장(文章)과 행(行誼)이 있으며 호상(豪爽)하고 강개(慷慨)한 사람이다. 임천(林川)에 살면서 선생(先生)의 창의(倡義) 격서(檄書)를 보고 옷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청주(淸川)의 왜적을 치는데 그의 용기(勇氣)는 일군(一軍)의 으뜸으로 향(向)하는 곳마다 적수(敵手)가 없었다. 선생이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하기를 네 집의 홍건적(紅巾賊)을 토멸(討滅)한 용기(勇氣)가 너에게 전승(傳承)되었다 하였다. 이것은 그의 윗대 조인 방실(芳實)이 공민왕(恭愍王) 때에 선생(先生)의 팔대조(八代祖)인 충현공(忠顯公) 천주(天柱)와 더불어 홍건적(紅巾賊)을 토멸(討滅)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청주(淸州)의 싸움은 크게 이겼으나 금산(錦山)싸움에서 선생을 비고 전사(戰死)하였다. 이때에 나이는 겨우 30을 넘었었다. 철종(哲宗) 7년(1856)에 정5품 지평(持平) 벼슬을 증직(贈職)하고 정문(旌門)을 세웠다.

◇ 박사진(朴士振), 자(字)는 진숙(辰叔), 호(號)는 가곡(佳谷) 충주인(忠州人)으로 사암(思庵) 순(淳)의 족질(族姪)이다. 독실(篤實)한 지조(志操)와 옛 도(道)를 좋아하고 구차(苟且)스런 삶을 위한 경영(經營)이 없었다. 대대로 공주(公州)에 살았다. 선생이 공주제독(公州提督)으로 있을 때 문하(門下)에서 공부(工夫)하였고 뒤에 찰방(察訪)

벼슬에 증직(贈職)되었고 정문(旌門)을 세웠다.

◇ 김성원(金聲遠), 자(字)는 경구(景久) 경주인(慶州人)으로 충암(沖庵) 정(淨)의 후손(後孫)이다. 대대로 보은(報恩)에 살았다. 선생이 보은현감(報恩縣監) 때에 글을 배웠다. 뒤에 이조참판(吏曹參判) 월성군(月城君)에 봉작(封爵)되고 정문(旌門)을 세웠다.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이 공(公)의 전기(傳記)를 지었다.

◇ 선비 권각(權恪)은 자(字)를 정경(正卿)이라 하였다. 안동인(安東人)으로 영의정(領議政) 중화(仲和)의 후손(後孫)이다. 어려서부터 선생의 문하(門下)에 출입(出入)하였으며 집에서는 지극(至極)한 효행(孝行)이 있었다. 선생이 창의(倡義)하였을 때는 임천(林川)의 집에 있다가 몸을 빼어 의군(義軍)에 종사(從事)하고 금산(鎭山)의 패전(敗戰)에서는 각(恪)은 한 발자국도 선생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때 선생이 각(恪)을 불러 이르기를 네 집 이름높은 조상(祖上)의 충의(忠義)가 네게 전하여졌구나 하였다. 이것은 각(恪)의 시조(始祖)인 고려조(高麗朝) 개국(開國)의 원훈(元勳) 권행(權幸)의 충의(忠義)를 두고 한 말이다. 또 불러 이르기를 오늘은 오직 하나의 죽음이 있을 뿐이니 죽거나 살거나 진퇴(進退)하는데 있어서 ‘의(義)’자에 부끄러움이 없게 할 뿐이라 하였다. 과연(果然) 각(恪)은 한번도 뒤돌아 서지 않고 전사(戰死)하였다.

◇ 선비 김선복(金善復)은 자(字)를 자경(子慶), 청주인(淸州人)이다. 근실(謹實)하고 독행(篤行)함이 있었다.

◇ 복응길(卜應吉), 청양인(靑陽人)으로 고려조(高麗朝) 개국원훈(開國元勳) 복지겸(卜智謙)의 후예(後裔)이다. 그의 강개(慷慨)한 기개와 절조(節操)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풍(家風)으로 뒤에 참봉(參奉)을 증관(贈官)하고 정문(旌門)을 세웠다.

◇ 선비 신경일(申慶一)은 자(字)를 관지(貫之), 평산인(平山人)이다. 고려조(高麗朝) 개국원훈(開國元勳) 신숭겸(申崇謙)의 후손(後孫)이다. 지조(志操)와 독행(篤行)이 있었다.

◇ 통선랑(通善郎) 조경남(超敬男)은 백천인(白川人)으로 부사(府使) 조완벽(趙完璧)의 아들이며 고려조(高麗朝) 충무공(忠武公) 문위(文偉)의 후손(後孫)이다. 대대로 홍주(洪州)에 살았으며 그의 기국(器局)과 식견(識見)은 남보다 뛰어났다. 선생이 공주제독시(公州提督時)에 종친(宗親)의 아들로 와서 공부(工夫)하였다.

◇ 선비 고명원(高明遠)은 장흥인(長興人)으로 근실(謹實)한 성품(性品)과 조행(操行)이 있었다. 선생(先生)이 전라도사(全羅都事) 시에 글을 배웠었다.

◇ 충의위(忠義衛) 전충남(全忠男)은 관성인(管城人)으로 대대(代代)로 옥천(沃川)에 살았다. 그는 마음 쓰는 것이 구차(苟且)스럽지 않았고 지절(志節)이 있었다. 선조(宣祖) 17년(1584년)에 선생에게서 글을 배웠다.

◇ 사용(司勇) 강몽조(姜夢祖)는 시흥인(始興人)으로 고려조(高麗朝)의 명신(名臣) 강감찬(姜邯贊)의 후손(後孫)이다. 재기(才器)가 뛰어났고, 선생이 춘추(春秋)를 강론(講論)할 때 공부(工夫)하였다.

◇ 선비 서응시(徐應時)는 자(字)가 군망(君望)이요 호(號)는 창계(昌溪)로 달성인(達城人)이다. 선생의 문인(門人)으로 선생을 따라가서 조석(朝夕)으로 모시기를 부모(父母)와 같이 하였고 임진년(壬辰年)에 선생을 따라 청주(淸州)의 왜적(倭賊)을 파(破)하고 금산(錦山) 싸움에서 선생과 함께 순절(殉節)하였다.

◇ 장사랑(將仕郎) 윤여익(尹汝翼)의 처음 이름은 사온(思溫)이요 자(字)는 원경(元卿), 호(號)는 금좌(錦左)라 하였다. 파평인(坡平人)으로 파평부원군(坡平府院君) 형(炯)의 증손(曾孫)이다. 선생이 공주제독(公州提督)으로 자제(子弟)들을 가르칠 때 선생을 섬기기를 옛 사제(師弟)의 풍도(風道)가 있었다. 이때 선생이 이르기를 세운(世運)이 꼭 막혔으니 너(汝)는 나를 도와(翼)달라는 뜻으로 이름을 여

익(汝翼)으로 바뀌고 금산(錦山)에서 마침내 같이 순절(殉節)하였다. 고종(高宗) 20년(1883)에 증직(贈職)하고 정려(旌閭)를 표(表)하였다.

◇ 무인(武人) 김헌(金獻)은 삼산인(三山人)으로 궁마(弓馬)의 재주(才操)가 있었으며 부사직(副司直) 강인서(姜仁恕)는 진산인(晉山人)으로 무재(武才)가 있다고 향리(鄉里)에서 소문(所聞)이 났었다. 앞장서서 적진(敵陣)에 뛰어 들어 많은 적을 무찌르고 전사(戰死)하였다. 무인(武人) 김희철(金希哲)은 자(字)를 명보(明甫)라 하였다. 계림인(鷄林人)으로 무예(武藝)가 뛰어났으며 의병(義兵)을 모집(募集)한다는 격문(檄文)을 보고 발분(發憤)하여 의군(義軍)에 종군(從軍)하였다. 충순위(忠順衛) 정원복(鄭元福)은 하동인(河東人)으로 용맹(勇猛)스러움이 남보다 뛰어 났고, 사과(司果) 이인현(李仁賢)은 인주인(仁州人)으로 재예(材藝)가 있었다. 호우(湖右) 내포(內浦)에 살았고 선생(先生)의 충의(忠義)를 흠모(欽慕)하여 청주(淸州)싸움에 큰 공(功)을 세웠다. 선교랑(宣敎郎) 김인남(金仁男)은 자(字)를 사원(士元), 청주인(淸州人)으로 인품(人品)이 현앙(軒昂)하며 독실(篤實)한 지조(志操)가 있다. 금산(錦山)싸움에서 맨주먹으로 왜적(倭賊)과 죽기를 다룬 충의(忠義)가 걸출(傑出)한 사람이다. 충익위(忠翼衛) 황삼양(黃三讓)은 장수인(長水人)으로 익성공(翼成公) 희(喜)의 후손(後孫)이다. 날쌔고 용력(勇力)이 있는 사람으로 청주(淸州) 싸움에서 왜적의 기세(氣勢)를 꺾고 금산(錦山)싸움에서 전사(戰死)하였다. 선비 이상

립(李養立)은 자(字)를 입지(立之)라 하였다. 고향(故鄉)사람들이 그를 칭찬(稱讚)하기를 입지(立之)의 기개(氣概)와 도량(度量)은 우뚝하여 남들이 따르지 못한다고 하였다. 선생의 문생(門生)으로 순절(殉節)하였다. 무인(武人) 박춘두(朴春斗)의 자(字)는 인숙(仁叔)이요 충주인(忠州人)이다. 재조(才操)가 궁마(弓馬)를 겸비(兼備)하였고 편비중(偏裨中)에서 기신(起身)하여 삼산(三山) 서상(西上)의 적을 끊었고 재차(再次) 청주(淸州)의 왜적을 무찔렀으며 금산(錦山)싸움에서 육전(肉戰)하다가 전사(戰死)하였다. 사맹(司猛) 한기(韓琦)의 자(字)는 치규(稚圭)요 청주인(淸州人)이다. 뜻과 기개(氣概)가 남에게 지지 않는 사람으로 금산(錦山)싸움에서 선생(先生)의 시체를 비고 죽었다.

◇ 선무랑(宣務郎) 박찬(朴贊)은 호서(湖西)에 살았었다. 무재(武才)가 특출(特出)하여 왜적을 크게 무찌름이 용렬(勇烈)하였다. 장사(將士) 정린(丁麟)은 압해인(押海人)이다. 선생의 문도(門徒)로써 의병(義兵)에 종군(從軍)하였고, 장사(將士) 양응장(楊應章)은 석성인(石城人)으로 평소(平素)는 고결(高潔)한 행실(行實)이 있었고 선생이 공주제독(公州提督)으로 있을 때에 복사(服事)하였으며, 장사(將士) 육정화(陸廷華)는 청산(靑山)에 살았고 선생의 문하(門下)에서 공부(工夫)하였으며, 장사(將士) 박흥도(朴興道)는 행실(行實)이 검박(儉朴)하였다.

◇ 참군(參軍) 박천봉(朴天鵬)은 밀양인(密陽人)으로 박영(朴榮)의 아들이며 고려조(高麗朝) 찬성사(贊成事) 박강생(朴剛生)의 후손(後孫)이다. 충효(忠孝)와 문무(文武)를 겸비(兼備)하였고 선생(先生)을 사사(師事)하였다. 행훤(行諱)이 탁이(卓異)하여 한성참군(漢城參軍)으로 발탁(拔擢)되었으므로 벼슬을 버리고 연기촌사(燕岐村舍)로 돌아왔다.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선생의 모병(募兵)하는 격문(檄文)을 보고 종군(從軍)하여 청주(淸州)의 대첩(大捷)에서 왜적을 크게 무찌르니 왜적이 감히 그를 범접(犯接)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시(流矢)에 맞아 진중(陣中)에서 전사(戰死)하였다.

◇ 노응완(盧應完)은 자(字)를 명원(明遠)이라 하였고 만경인(萬頃人)이다. 증참판(贈參判) 세득(世得)의 아들이며 고려조(高麗朝) 상서(尙書) 극청(克淸)의 후손(後孫)이다. 대대로 공주(公州)에 살았는데 효성(孝誠)과 우애(友愛)와 문장(文章)과 행실(行實)이 좋았다. 선생이 공주제독(公州提督) 시에 아우 응탁(應嶠) 등과 함께 글을 배웠고 임진년(壬辰年) 6월에 형제가 선생의 의병을 일으키는 격문(檄文)을 보고 의병(義兵)에 종군(從軍)하여 왜적을 무찌르고 금산(鎭山)싸움에서 순절(殉節)하였다. 뒤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증직(贈職)하였다.

◇ 임대성(林大盛)은 부안인(扶安人)으로 참봉(參奉) 언충(彦忠)의

아들이며 고려조(高麗朝) 정당문학(政堂文學) 임춘(林春)의 7세손이다. 지조(志操)가 강개(愴慨)한 성품(性品)으로 선생(先生)이 후율(後栗)에 있을 때 수학(受學)하였다. 막중(幕中)의 군사(軍士)로 제 몸을 돌보지 않고 김질(金節) 등과 더불어 왜적을 격살(擊殺)하고 전사(戰死)하였다. 뒤에 지평(持平) 벼슬을 증직(贈職)하였다.

◇ 무인(武人) 박봉서(朴鳳瑞)는 효용(驍勇)하기가 초륜(超倫)하였는데 선생(先生)의 휘하군사(麾下軍士)로 한 번도 뒤돌아서는 일이 없이 잘 싸웠고 선생의 시체(屍體)를 끌어 앉고 통곡(痛哭)타가 곁에서 전사(戰死)하였으며 선비 박훈(朴渾)은 대대로 유업(儒業)을 숭상(崇尚)하여 글 배우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전패(戰敗)에 적의 화살을 맞고도 왜적을 매도(罵倒)하다가 죽었다.

◇ 전몽성(全夢星)은 자(字)를 응상(應祥) 호(號)를 길촌(吉村) 또는 도헌(道軒)이라 하며 천안인(天安人)이다. 고려조(高麗朝) 문평공(文平公) 전문식(全文軾)의 후손(後孫)이며 첨중추부사(僉中樞府事) 방필(邦弼)의 아들이다. 명종(明宗) 16년(1561)에 태어났다. 용력(勇力)이 매우 뛰어나 무술(武術)을 닦았고 선조 16년(1583)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북도(北道)에 부임 방문하였는데 당시의 병사(兵使) 유립(由昝)이 크게 기특히 여겼다. 그리하여 자기 막하(幕下)에 머물게 하였다. 선전관(宣傳官)으로 초임(初任)하여 군기시(軍器寺) 주부

(主簿)가 되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에 고경명(高敬命)과 김천일(金千鎰)이 창의(倡義)하였다는 신문(新聞)을 듣고 의병 수백 명을 모집하여 고경명(高敬命)과 나주(羅州)에서 만나 같이 금산(錦山)싸움에 참가(參加)하였다. 전투(戰鬪)가 패(敗)할 즈음에는 몸에 여섯 군데나 창상(創傷)을 입었고 타고 있던 말마저 왜적의 칼날에 꼬리가 끊겼다. 때마침 선생이 승장(僧將) 영규(靈圭)와 합병(合兵)하여 청주(淸州)의 왜적을 궤멸(潰滅)하고 금산(錦山)으로 달려 왔는데 전몽성(全夢星)은 자기(自己)가 거느린 군사(軍士)들을 선생 휘하(麾下)에 합군(合軍)하였다. 금산(錦山)싸움에서 선생이 패(敗)하자 몽성(夢星)은 주위(周圍)의 군사(軍士)들에게 임금님이 건재(健在)하시니 우리는 죽을 수 없다 하고 위기(危機)에서 몸을 빼었다. 이때 임금은 용만(龍灣)에 계셨는데 몽성(夢星)은 행재소(行在所)로 달려가려 하였으나 관찰사(觀察使) 이광(李洸)이 몽성(夢星)을 불러 편비(偏裨)를 삼고 별장(別將) 남응길(南應吉)과 더불어 진산지방(珍山地方)을 방수(防守)케 하였다. 뒤에 선전관(宣傳官)이 되었고 1593년 임금이 환도(還都)하여 함평현감(咸平縣監)을 제수(除授)하였다. 정유재란(丁酉再亂)(1597)에 아우 몽진(夢辰)과 전첨사(前僉使) 유장춘(柳長春), 박대립(朴大立) 등으로 재차(再次) 의병(義兵)을 규합(糾合)하니 여러 사람들은 그를 장(將)으로 추대(推戴)하여 유점(鎬店)에 진둔(進屯)하였는데 왜적이 내습(來襲)하니 화살이 빗발치듯 하는데 조금도 신색(神色)에 변화(變化)를 보임이 없이 독전(督戰)하며 큰 나무를 의

지(依支)하여 왜적을 향(向)해 화살을 날릴 때마다 왜적은 차례로 거꾸러졌다. 이때 아우 몽진(夢辰)이 왜적이 쏜 탄환(彈丸)에 맞아 전사(戰死)하니 좌우(左右)가 모두 흩어져 달아나려고 하니 몽성(夢星)은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신하(臣下)의 책임(責任)이다. 다만 집에 늙은 어머니가 계시니 그 불효(不孝)함을 어찌하랴 하고 칼을 빼들고 왜적 육, 칠 급(級)을 베고 자신도 전사(戰死)하였으니 곧 1597년 9월 25일에 일이었다. 숙종 11년(1685)에 호남(湖南)의 유생(儒生)들이 이 사실(事實)을 도백(道伯)에게 알려 조정(朝廷)에 보고(報告)하니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증직(贈職)하고 영암(靈岩)에 사당(祠堂)을 세웠다. 고종(高宗) 24년(1887)에는 병조참판(兵曹參判)을 가증(加贈)하였고 정려(旌闈)를 세울 것을 명(命)하였다.

◇ 양철(梁鐵)의 자(字)는 명순(明順)이요 호(號)는 절재(節齋)로 체주인(濟州人)이다. 금성군(錦城君) 동재(棟材)의 6세손이며 직장(直長) 응신(應愼)의 아들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영특(英特)하고 준수(俊秀)하였으며 궁마(弓馬)에 능(能)하여 무과(武科)에 급제(及第)하여 용양위 부사과(龍讓衛副司果)가 되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에 향병(鄉兵) 수십명(數十名)을 모집(募集)하여 선생의 막하(幕下)에 들어갔다. 황간지방(黃澗地方)에서 호남(湖南)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오대걸(吳大傑), 한응성(韓應聖) 등과 금산(錦山)싸움에서 선생과 한

날 순절(殉節)하였다.

◇ 김형진(金亨進)은 자(字)를 점숙(漸叔), 호(號)를 석천(石泉)이라 하였다. 상산인(商山人)으로 개국공신(開國功臣)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운보(云寶)의 6세손이며 직장(直長) 대유(大鑄)의 아들이다. 명종 11년(1556)에 태어났다. 타고난 모습이 썩 우람하였고 독실(篤實)한 행원(行誼)으로 참봉(參奉)을 제수(除授)하였다. 일찍이 선생을 섬겼고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의병(義兵) 백여인(百餘人)을 거느리고 선생과 같이 금산(錦山)싸움에서 순절(殉節)하였다. 정조(正祖) 22년(1798)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증직(贈職)하였다.

◇ 전설(全滌)의 자(字)는 시헌(時憲) 관성인(管城人)이다. 고려조(高麗朝) 태사(太師)인 충열공(忠烈公) 이갑(以甲)의 후손(後孫)이다. 명종(明宗) 18년(1563)에 태어났다. 천성(天性)이 질박(質朴)하고 강의(剛毅)하였다. 일찍이 선생의 문하(門下)에서 공부(工夫)를 하였다 임진년(壬辰年)에 선생이 창의(倡義)하니 관찰사(觀察使) 윤선각(尹先覺)이 이를 방해(妨害)하였다. 이에 전설(全滌)은 분완(憤惋)함을 참지 못하여 윤선각(尹先覺)을 참수(斬首)할 것을 상소(上疏)하려 행재소(行在所)로 가려고 하였으나 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처음에 공(公)이 선생의 의군(義軍)을 따를 때 삼종제(三從第) 충남(忠男)과 족인(族人) 승업(承業)과 행동(行動)을 같이 하였는데 선생

이 순절(殉節)할 때는 공(公)은 서경(西京)에서 구거(舊居)에 와서 있을 때였다. 승업(承業)이 선생의 상소문(上疏文)을 가지고 행재소(行在所)로 충남(忠男)과 같이 떠났고 공(公)은 선생과 함께 순절(殉節)하지 못하였음을 죽을 때까지 유한(遺恨)으로 여기고 상주(尙州)로 이거(移居)하여 스스로 고산(孤山)이라 호(號)하여 여러 사람들과 떨어져 있을 뜻을 보였다. 향인(鄉人)들의 천거(薦擧)로 제용감참봉(濟用監參奉)을 제수(除授)하였다.

◇ 모정(牟禎)의 자(字)는 국보(國甫)요 호(號)는 덕암(德巖)이다. 함평인(咸平人)으로 사간(司諫) 모순(牟恂)의 6세손이요 정헌(正憲) 학영(鶴泳)의 아들이다.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문인(門人)으로 임진왜란(壬辰倭亂)에 향병(鄉兵)을 모집(募集)하여 소의장군(昭義將軍)이라 호(號)하고 선생을 좇아 금산(錦山)싸움에서 순절(殉節)하였다. 뒤에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증직(贈職)하였다.

◇ 홍민彦(홍민언)의 자(字)는 계위(季偉)요 호(號)는 대은(臺隱)이다. 풍산인(豊山人)으로 홍애이(洪崖伊)의 후손(後孫)이요 주부(主簿) 홍연(洪漣)의 아들이다. 울곡(栗谷)을 사사(師事)하였고 또 선생을 종유(從遊)하였다. 두 분 선생이 공(公)의 기국(器局)을 대단히 사랑하였다.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이 의병(義兵)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공(公)은 아들 시정(時挺)과 같이 그를

따랐다. 노령(蘆嶺)에 이르렀을 때 선생이 전패(戰敗)하였다는 말을 듣고 슬피 울다가 기절을 하였고 깨어나서는 선생의 의병 활동(活動)을 방해(妨害)한 이광(李洸)의 죄를 들어 극렬히 배척하는 상소(上疏)를 하였다. 그리고 최시망(崔時望)과 더불어 운봉(雲峰)으로 진격(進擊)하여 함양(咸陽)에 이르렀을 때 친환(親患)으로 인하여 군사들을 종제(從弟)에게 부탁(付託)하여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막하(幕下)로 보내고 돌아 왔다. 때에 남평지방(南平地方)이 적에게 함락(陷落)되었다. 공(公)은 남평현감(南平縣監) 박지효(朴之孝)와 함께 병사와 양식을 수합(收合)하여 왜적의 진격(進擊)을 방어(防禦)하였다. 이때 왜승(倭僧) 현소(玄蘇)가 광주(光州)에서 본현(本縣)으로 핍박(逼迫)하니 공(公)은 박지효(朴之孝)와 현소(玄蘇)를 지석강(砥石江)에서 공격하여 대파(大破)시키고 포로가 되었던 남녀 152구를 탈환(奪還)하였다. 정유(丁酉 : 1597)에 다시 병량(兵糧)을 모집(募集)하였다가 왜적이 퇴각(退却)한 뒤 의곡(義穀)을 관(官)에 수납(輸納)하였다. 광해군(光海君) 5년(1713)에 무옥(誣獄)이 일어났고 공(公)은 주부(主簿)로써 조정(朝廷)에서 물러 나와 모자(幅子)를 벗어 땅에 팽개쳤고 이 옥사(獄事)에 연좌(連坐)되어 영변(寧邊)에 귀양갔다. 인조반정 후(仁祖反正後) 직책(職責)을 주었으나 벼슬하지 않았다.

◇ 홍민성(洪民聖)의 자(字)는 여중(汝中)이요 호(號)는 석기(石磯)

로 풍산인(豊山人)이다. 홍에이(洪崖伊) 후손(後孫)이요 참의(參議) 홍징(洪澄)의 아들이다. 선생을 사사(師事)하며 성리학(性理學)을 강구(講究)하였다. 학행(學行)으로 천거(薦舉)되어 재낭(齋郎)을 제수(除授)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으니 이조(吏曹)에서 소청(啓請)하기를 홍모(洪某)는 학문(學問)에 밝고 경술(經術)이 있으니 마땅히 발탁(拔擢)할 일이다. 자격(資格)에 구애(拘碍)되어 참봉(參奉)으로 조용(調用)함은 사림(士林)들을 장려(獎勵)하기에 부족(不足)하니 6품직을 제수(除授)할 것을 청(請)하였다. 그래서 특별히 사재감(司宰監) 첨정(僉正)으로 승차(陞差)하였다. 임진년(壬辰年)에 사촌형(四寸兄) 민언(民彦)과 도내(道內)의 동지(同志)들로 거의(舉義)할 것을 협모(協謀)하여 선생의 의군(義軍)과 힘을 합하여 노령(蘆嶺)에 이르렀을 때 선생(先生)이 전몰(戰沒)하였다는 말을 듣고 3일간을 통곡(痛哭)하고 이어 관찰사(觀察使) 이광(李洸)의 응병두유(擁兵逗留)한 죄를 들어 소척(疏斥)하였다. 그리고는 최시망(崔時望)과 같이 운봉(雲峰)의 여완치(女院峙)까지 진둔(進屯)하였는데 이때 최공(崔公)은 유시(流失)에 맞아 귀환(歸還)하고 다시 최희립(崔希立)과 더불어 진주(晉州)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막하(幕下)로 들어갔다. 공(公)은 평소(平素)에 풍비(風痺)를 앓고 있었으므로 군사(軍士)들을 최희립(崔希立)에게 부탁을 청하고 귀향(歸鄉)하였다. 정유년(丁酉年)에 다시 의병(義兵)을 모집(募集)하였는데 왜란(倭亂)이 평정(平定)되자 모집(募集)한 병량(兵糧)을 관가(官家)에 진수(進輸)하였다.

양벽정(漾碧亭)을 세우고 양친(養親)하는 것으로 낙(樂)을 삼았다. 광해군(光海君) 5년에 무옥(誣獄)이 일어나니 복궐(伏闕)하여 항소(抗疏)하였고 병자호란에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몽진(蒙塵)하였다는 말을 듣고 북망통곡(北望痛哭)하고 근왕(勤王)하려 하였다. 이때 아들 남갑(南甲)이 울면서 늙으신 아버지의 근왕(勤王)길을 차라리 아들로 대신(代身)케 하여 달라고 하여 공(公)은 결국 아들을 보냈다. 향년(享年) 90세에 사망하였다.

◇ 김여온(金汝溫)의 자(字)는 경보(敬甫), 호(號)는 석은(石隱)이다. 김해인(金海人)으로 김유신(金庾信)의 후손(後孫)이다. 명종(明宗) 6년(1551)에 태어났다. 8세에 입학(入學) 하였는데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총명(聰明)으로 15세에 양응춘 문하(楊應春門下)에서 수업(受業)하였고 공주(公州)에 살며 선생의 도(道)와 덕망(德望)을 듣고는 선생(先生)에게서 글을 배웠다. 31세에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가 선무랑(宣務郎)으로 의영고(義盈庫) 주부(主簿)가 되었다. 신묘년(辛卯年)(1591)에 사직(辭職)하고 귀가(歸家)하였고 이듬해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선생을 좇아 금산(錦山)싸움에 참전(參戰)하고 칠백의사(七百義士)와 함께 순국(殉國)하였다. 고종(高宗) 29년(1892)에 경연청(經筵廳) 신하들의 건의(建議)로 호조참의(戶曹參議)를 추증(追贈)하였다.

◇ 김몽길(金夢吉)의 자(字)는 중권(重權)이며 경주인(慶州人)으로 김자수(金自粹)의 7세손이다. 임진년(壬辰年)에 선생이 호(湖)·영남(嶺南) 지방에 창의(倡義)하는 격문(檄文)을 띄우니 공(公)은 선생에게로 달려가 참모(參謀)로 활약(活躍)하였다. 처음에 선생이 보은(報恩)에서 왜적과 싸울 때 상잔(傷殘)한 군사 수십명에 불과(不過)하였지만 충의(忠義)로 그들을 격려(激勵)하였다. 그러나 이광륜(李光輪), 장덕개(張德蓋), 신란수(申蘭秀), 고경우(高擎宇), 노응탁(盧應喙) 등이 선생 막하(幕下)로 모여들 때는 의병(義兵)이 1600여인이나 되었다. 이때 청주(淸州)에 있던 관군(官軍)이 궤산(潰散)하니 공(公)은 선생을 따라 회덕(懷德)에서 청주(淸州)로 왔고 8월에는 승장(僧將) 영규(靈圭)와 합세(合勢)하여 왜적을 무찌르다가 마침내 이날 전사(戰死)하였다. 이 보다 18일 후 선생은 금산(錦山)에서 순절(殉節)하였다. 숙종(肅宗) 41년(1715)에 병조참의(兵曹參議)에 특증(特贈)되었다. 또 공(公)의 아들 여연(汝撪)도 고경명(高敬命)의 막하(幕下)로 순절(殉節)하니 좌승지(左承旨)를 증직(贈職)하였다.

◇ 정억강(程億綱)의 자(字)는 중화(仲和)로 하남인(河南人)이다. 일찍이 선생을 사사(師事)하였고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의병(義兵)에 종군(從軍), 금산(錦山)싸움에서 선생과 같이 순국(殉國)하였다.

◇ 이허(李許)의 자(字)는 정덕(正德)이요. 호(號)는 송암(松庵)이

다. 전주인(全州人)으로 익안대군(益安大君) 방의(芳毅)의 후손(後孫)이다. 임진년(壬辰年)에 선생이 거의(學義)하였다는 말을 듣고 향인(鄉人) 수십명을 모집(募集)하여 선생 막하(幕下)에 종군(從軍)하였다. 청주(淸州)싸움에 승첩(勝捷)하니 조정(朝廷)에서 군사감(軍資監) 주부(主簿)를 제수(除授)하였다.

◇ 성호선(成好善)은 창산군(昌山君) 수익(壽益)의 아들로 자(字)는 즉우(則優), 호(號)를 월사(月叢)라 하였다. 일찍이 고청(孤靑) 서기(徐起)와 선생의 문하(門下)에서 수업(受業)하고 선조(宣祖) 6년(1573)에 사마(司馬), 동왕(同王) 22년(1589)에 문과(文科) 급제(及第)하고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 승문원(承文院) 교리(校理)를 역임(歷任)하였다. 뒤에 도승지(都承旨)로 추증(追贈)하였다.

◇ 강몽벽(姜夢璧)은 진주인(晉州人)으로 우빙(遇聘)의 아들이고 선생(先生)의 문하(門下)에서 공부(工夫)하였다.

◇ 이윤(李潤)은 경주인(慶州人)으로 자(字)를 재중(在中) 호(號)는 퇴사암(退思菴)이다. 국당(菊堂) 문효공(文孝公) 이천(李蘊)의 후손(後孫)으로 중종(中宗) 29년(1534)에 태어났다. 울곡(栗谷)에게서 공부(工夫)하였고 선생과 후율당(後栗堂)에서 춘추대의(春秋大義)를 강마(講磨)하기도 하였다. 음사(蔭仕)로 헌릉참봉(獻陵參奉)으로 벼슬

길에 나와 병조참지(兵曹參知)에 이르렀다. 동서분당(東西分黨)을 보고 벼슬을 버리고 남원(南原)에 둔거(遯居)하였다. 임진년(壬辰年)에 가동(家僮)을 거느리고 선생의 막하(幕下)로 들어가 금산(錦山)싸움에서 함께 순절(殉節)하였다. 고종(高宗) 29년(1892)에 도내(道內)의 유생(儒生)들이 소청(啓請)하여 특별히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증직(贈職)하였다.

◇ 서희서(徐希恕)의 자(字)는 경추(景推), 호(號)를 소호(蘇湖)라 하였다. 이천인(利川人)으로 이조판서(吏曹判書) 공도공(恭度公) 선(選)의 후손(後孫)이다. 명종(明宗) 10년(1555)에 태어났고 선조(宣祖) 18년(1585)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合格)하였다. 임진년(壬辰年)에 변도탄 막하(邊桃灘幕下)에서 호영간(湖嶺間) 수비(守備)에 당(當)하였고 동향(同向) 의사(義士) 김몽성(金夢星), 유장춘(柳長春), 김덕치(金德治) 등과 함께 창의(倡義)하였으며 아들 전(錢)을 선생의 막하(幕下)에 종군(從軍)케 하였으며 순절(殉節)하였다.

◇ 서건(徐鍵)의 자(字)는 선계(善啓)요 호(號)는 죽재(竹齋)로 희서(希恕)의 아들이다. 선조(宣祖) 9년(1576)에 건원능(健元陵) 참봉(參奉)을 배수(拜授)하였다. 임진년(壬辰年)에 위원군수(渭原郡守)를 제수(除授)하고 곧 전라병사(全羅兵使)을 제수(除授)하였다. 부친(父親)의 명(命)으로 선생을 따라 금산(錦山)싸움에 종군(從軍)하여 순절

(殉節)하였다. 선무훈(宣武勳)을 내렸다.

◇ 노덕원(魯德元)은 호(號)를 무민당(無悶堂), 함평인(咸平人)으로 한림(翰林) 노유안(魯有顔)의 후손(後孫)이다. 문학(文學)으로 이름이 세상에 알려 졌으며, 임진년(壬辰年)에 선생의 의병(義兵)에 종군(從軍)하였고 금산(錦山)에서 선생(先生)이 패하자 곧 이충무공(李忠武公) 순신(舜臣)의 군중(軍中)으로 가서 한산대첩(閑山大捷)에 참전(參戰)하였다. 인조(仁祖) 때 청군(淸軍)이 침범(侵犯)함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은 호소사(號召使), 공(公)은 군사(軍士)를 모집(募集)하고 군향(軍餉)을 운수(運輸)하였다. 이조좌랑(吏曹佐郎)에 천거(薦擧)되어 제배(除拜)되었다.

◇ 정홍적(鄭弘績)의 자(字)는 희지(熙之)요. 호(號)는 충효당(忠孝堂)으로 하동인(河東人)이다. 교리(校理) 정유(鄭需)의 아들로 나이 겨우 8, 9세에 글을 읽다가 충신(忠臣) 효자(孝子)란 말이 나오면 곧 그것을 써서 벽에 걸었다. 그래서 향리(鄉里)의 사람들이 그 당(堂)을 가르켜 충효당(忠孝堂)이라 하였다. 장성(長成)함에 선황(先皇)을 따라 공부하였고 임진(壬辰) 6월에 선생이 호령지방(湖嶺地方)에 신의(信義)하는 격문(檄文)을 띄우고 8월에 금산(錦山)으로 달려가니 공(公)은 즉시 금산(錦山)으로 선생을 쫓아갔다. 선생의 순절(殉節)을 보고 적중에 뛰어 들어 칼을 휘둘러 많은 왜적을 참격(斬馘)하

였다. 가족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전장(戰場)터에 달려가 시체를 수습(收拾)할 때 한 장사(壯士)가 어깨에 화살을 맞고 목에는 쟁상(鎗傷)은 입었는데 칼을 잡고 쓰러져 있었다. 살펴보니 바로 공(公)이라 이들이 지났으나 아직도 기식(氣息)이 있었다. 홀연(忽然)히 백발(白髮)이 성성한 노인이 나타나서 손으로 공(公)을 어루만지며 하는 말이 충의(忠義)와 효성(孝誠)이 하늘에 통(通)하였는데 하늘이 어찌 공(公)을 죽이리요 하고 약물(藥物)로 상처를 씻어 주니 얼마 후에 소생(甦生)하여 93세를 살았다.

◇ 구항(具恒)의 자(字)는 상중(常仲)이요, 호(號)는 아정(芽亭)이다. 능성인(綾城人)으로 문정공(文貞公) 구위(具緯)의 6세손이며 신암(新菴) 수팽(壽彭)의 아들이다. 임진년(壬辰年)에 임금이 서쪽으로 몽진(蒙塵)하였다는 말을 듣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痛哭)하며 재배(再拜)하였다. 선생이 일찍이 공(公)과 더불어 속리산(俗離山)에 간 일이 있었다. 선생이 차령(車嶺)에서 거의(舉義)하니 공(公)이 막하(幕下)에서 참모(參謀)로 군수조달(軍需調達)에 공이 있었고 청주(淸州)싸움에서는 선생과 더불어 날아오는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분전(奮戰)하여 승리를 거두니 조정(朝廷)에서 특별히 절충장군(折衝將軍)을 제수(除授)하였다. 금산(錦山)싸움에서 선생과 함께 순절(殉節)하였다. 원근(遠近)의 유생(儒生)들이 제성상언(齊聲上言)하여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추증(追贈)하였다.

◇ 유걸(庾傑)의 자(字)는 보원(保元)이요, 무송인(茂松人)이라. 아들 명선(明善)이 선생의 문하에서 수업(受業)하였다. 금산(錦山)싸움에서 아들 명지(明智), 명리(明理)와 함께 삼부자(三父子)가 순절(殉節)하였다.

◇ 정주(鄭滢)는 임진년(壬辰年)에 아우 입(翌)과 이충범(李忠範)과 더불어 선생을 따라 창의(倡義)하였다. 황간현감(黃澗縣監)을 제수(除授)하고 이등훈(二等勳)에 녹(錄)하였으며 정입(鄭翌)은 호(號)를 원암(願庵)이라 하였다. 하동인(河東人)으로 등제(登第)하여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냈고 임진년(壬辰年)에 형(兄) 정주(鄭滢)와 더불어 선생을 따라 창의(倡義)하였다.

◇ 육승복(陸承福)은 선조조(宣祖朝) 선무공신절충장군용양위부호군(宣武功臣折衝將軍龍驤衛副護軍)으로 선생(先生)을 따라 기의(起義)하고 금산(錦山)싸움에서 순절(殉節)하였다.

◇ 곽현(郭鉉)의 자(字)는 공거(公擧)요. 호(號)는 삼안당(三安堂)으로 선산인(善山人)이며, 벼슬은 참봉(參奉)이다. 첨정(僉正) 자견(自堅)의 아들이며 곽자방(郭自防)의 6촌이다. 선생을 복사(服事)하여 선생과 같이 창의(倡義)하였다.

◇ 노응탁(盧應喈)의 자(字)는 계회(季晦)요. 호(號)는 국재(菊齋)이며 진사(進士)이다. 만경인(萬頃人)으로 응환(應院)의 아우이다. 선생의 문하(門下)에 수업(受業)하였고 임진년(壬辰年)에 형과 아우로 더불어 의(義)를 부르짖고 선생을 따랐다. 금산(錦山)싸움에서 선봉(先鋒)에 서서 분전(奮戰)하다가 순절(殉節)하였다. 순조(純祖) 31년(1831)에 정려(旌閭)를 세웠고, 후율사(後栗祠)에 종향(從享)되었다.

◇ 노응호(盧應皓)의 자(字)는 시회(時晦)요. 호(號)는 체헌(楸軒)이며 응탁(應喈)의 아우다. 선생을 사사(師事)하였고 선생이 창의(倡義)하니 두 형과 이에 종군(從軍)하여 청주(淸州)싸움에서 이기고 금산(錦山)싸움에서는 독향 관계(督餉關係)로 본진(本陣)에 없었다. 두 형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葬事)지냈다. 조정(朝廷)에서 직장(直長) 벼슬을 제수(除授)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죽기로서 토적(討賊)을 맹서(盟誓)하고 급기야는 진중(陳中)에서 전몰(戰沒)하니 나이 19세였다. 순조(純祖) 32년(1832)에 후율사(後栗祠)에 종향(從享)되고 고종(高宗) 29년(1892)에 증직(贈職)하고 정려(旌閭)를 세웠다.

◇ 김결(金潔), 자(字)를 성흥(聖興), 호(號)를 임한당(任間堂)이라 하였다. 광산인(光山人)으로 광산부원군(光山府院君) 국광(國光)의 후손(後孫)이다. 선생의 문하(門下)에서 수업(受業)하였다. 34세이던 임진년(壬辰年)에 가정(家丁) 17인과 사사(死士) 백여인(百餘人)을 거

느리고 병기(兵器)를 모집(募集)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량(兵糧) 8백석(八百石)을 운송(運送)하였으며 청주(淸州)싸움에서는 계략(計略)을 써서 크게 이겼다. 금산(鎭山)싸움에는 부모님의 병환으로 귀가(歸家)하였다가 선생의 순절(殉節) 소식(消息)을 듣고 통곡(痛哭)하다 지쳐 졸도(卒倒)하였고 3일간 음식을 먹지 않았다. 충효(忠孝)와 학행(學行)으로 봉능참봉(奉陵參奉)에 천거(薦擧)되었다. 뒤에 호조참의(戶曹參議)를 증직(贈職)하였다.

◇ 한호(韓護), 자(字)를 국한(國翰), 호(號)를 방정재(方正齋), 청주인(淸州人)으로 영상(領相) 한상경(韓尙敬)의 후손(後孫)이며 부정(副正) 여임(汝霖)의 아들이다. 선조(宣祖) 24년에 사마시(司馬試)에 급제(及第) 벼슬이 제천 현감(堤川縣監)에 이르렀다. 임진년(壬辰年)에 선생을 따라 금산(鎭山)싸움에 참전(參戰)하니 선생께서 물러 나기를 권(勸)하였으나 불응(不應)하고 끝내 선생과 같은 날 순절(殉節)하였다. 뒤에 선무훈(宣武勳)을 녹(錄)하였다.

◇ 정기룡(鄭奇龍), 자(字)를 이단(異端), 동래인(東萊人)으로 문경공(文景公) 정흠(鄭欽)의 7세손이며 증이참(贈吏參) 인직(仁直)의 아들이다. 임진년(壬辰年) 주부(主簿)로써 선생과 중군하여 금산(鎭山)에서 순국(殉國)하니 당시의 나이가 16세였다. 뒤에 선무훈(宣武勳)을 녹(錄)하고 공신록(功臣錄)을 사(賜)하였으며 정조(正祖) 22년

(1798)에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추증(追贈)하였고 순조 4년(1804)에 병조판서(兵曹判書)를 가증(加贈)하고 절효(節孝)라는 시호(諡號)를 주었다.

◇ 한응성(韓應聖)의 자(字)는 영기(景期), 호(號)를 구와(龜窩)로 청성인(淸城人)이다. 청성군 종손(淸城君宗孫)의 현손(玄孫)이며 대호군(大護軍) 축(軸)의 아들이다. 일찍이 선생을 사사(師事)하였다. 임진년(壬辰年)에 선생이 기의(起義)하였다는 말을 듣고 집안의 남자 종수십인을 거느리고 선생의 군중(軍中)으로 달려 왔다. 금산(鎭山)싸움에서 공(公)은 앞장서서 눈물을 뿌리며 토적(討賊)을 맹서(盟誓)하니 사기(士氣)가 더욱 분려(奮勵) 되었다. 왜적이 잠시(暫時) 퇴각(退却)하자 공(公)은 아군(我軍)의 대오(隊伍)를 정비(整備)하고 적을 대기(待期)할 것을 청하였다. 과연(果然) 왜적은 크게 출격(出擊)하였다. 이때 선생은 일이 그릇된 것을 알고 우군(右軍)들에게 결사(決死)를 선언(宣言)하니 공(公)은 인(仁)을 이룩하고 의(義)로움을 취(取)하려는 것이 본래(本來)의 내 뜻이라 하며 분격(奮擊) 참격(斬馘)하고 칠백의사(義士)와 함께 순절(殉節)하였다. 고종(高宗) 29년(1892)에 이조참의겸시강원보덕(吏曹參議兼侍講院輔德)을 추증(追贈)하고 정여(旌閭)를 표(表)하였다.

◇姜渭龜의 자(字)는 성수(聖叟). 호(號)는 막헌(幕軒)의

로 진주인(晉州人)이다. 원수(元帥) 강이식(姜以式)의 후손(後孫)이며 증승수(贈承首) 참지(參之)의 아들로 중종(中宗) 37년(1542) 8월 10일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영특(英特)하고 준수(俊秀)하였다. 8세에 부친의 병환(病患)이 있었는데 매일(每日) 밤 뜰에서 부모님의 병환이 쾌유(快癒) 되기를 하늘에 빌었다. 점차 장성(長成)함에 강개(慷慨)한 절개가 있었고 근육의 힘이 남보다 뛰어났다. 선생이 유배지에 있을 때 공(公)이 선생을 찾아 봤는데 이때 선생(先生)은 공(公)의 기품(氣稟)을 보고 김헌(金獻)과 더불어 궁마(弓馬)의 무예(武藝)을 닦기를 권(勸)하였었다. 선생의 창의(倡義)하는 격문(檄文)을 보고 가산(家産)을 기우려 장사(壯士)들을 모집(募集)하고 가족(家族)과 결별(訣別)하였다. 때에 공(公)의 아들 봉령(鳳翎)이 말하기를 아버지는 나라를 위하여 죽을 곳을 찾아 가니 자식(子息)도 마땅히 아버지를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가 봉령(鳳翎)의 나이 23세였다. 그리하여 부자(父子)가 금산(錦山)으로 향(向)하였고 중로(中路)에서 김헌(金獻)을 만나 같이 선생 막하(幕下)에 들어갔다. 이 해에 관군(官軍)도 조헌(趙憲)의 의병(義兵)과 합동(合同)하여 왜적을 협공(挾攻)하기로 약속(約束) 하였지만 관군(官軍)은 기일(期日)을 연기(延期)하고 참전(參戰)하지 않았는데 왜적이 선생의 의군(義軍)에 후원병(後援兵)이 없음을 탐지(探知)하고 전군(全軍)이 이 기회(機會)를 포착(捕捉)하여 육박(肉薄)하니 선생(先生)은 말하기를 오늘은 단지(單只) 한 번의 죽음이 있을 뿐이라고 결사(決死)의 뜻을 밝히니 공

(公)도 응하여 아들 봉령(鳳翎)과 힘을 다하여 적을 방어하였다. 그러나 우군(右軍)은 후원병(後援兵)도 없는데다가 화살마저 떨어졌고 왜적은 노도(怒濤)와 같이 밀려드니 칠백의사(七百義士)들은 죽기를 두려워 하지 않고 분전(奮戰)하였다. 이때 선생(先生)은 좌우 군사(左右軍士)들을 둘러보고 강위구(姜渭龜)는 어디 있느냐고 하였다. 공(公)은 큰 소리로 위구(渭龜)의 부자(父子)가 선생을 따라 죽을 것이로되 죽더라도 의(義)에 부끄럼이 없게 하려 한다 하고 부자(父子)가 전투에 힘쓰다가 전사(戰死)하였다. 그 뒤 부인(夫人) 김씨(金氏)와 자부(子婦) 문씨(文氏)가 초혼(招魂)하여 장사(葬事)하고 문씨(文氏)는 공(公)의 부자(父子)의 무덤 앞에서 죽었다. 때마침 무지개가 3일간이나 하늘에 걸쳐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르기를 효(孝), 열(烈)의 소치(所致)라고 말하였다.

◇ 조여관(趙汝寬)의 자(字)는 사홍(士弘)이요. 호(號)는 모충재(慕忠齋)로 옥천인(玉川人)이다.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 원길(元吉)의 7세손(七世孫)이며 선능참봉(宣陵參奉) 응건(應堅)의 아들이다. 공(公)은 천품(天稟)이 충효(忠孝)스러웠다. 임진년(壬辰年)에 금산(錦山)싸움에 참전(參戰)하였고 선생이 순절(殉節)하자 공(公)은 군사(軍士)들에게 영(令)을 내려 주장(主將)은 이미 순절(殉節)하였다. 감히 흠어져 도망가는 자는 내가 참수(斬首)하리라 하고 독전(督戰)타가 적탄(敵彈)에 맞아 전사(戰死)하였다. 선조 38년(1605)에 특별히 근신(近

臣)을 보내어 급복(給復)하였고 순조(純祖) 19년(1819)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추증(追贈)하였다.

◇ 김가권(金可權)은 일찍이 선생에게서 수업(受業)하였다. 임진년(壬辰年) 창의(倡義)할 때 선생이 장재(將才)로서 천거(薦舉)하여 상주군수(尙州郡守)가 되어 적(賊)을 막았고 금산(錦山)싸움에서 선생과 함께 전사(戰死)하였다.

◇ 이언(李彦)의 자(字)는 현중(賢仲)이요. 호(號)는 국재(菊齋)로 중종(中宗) 23년(1528)생이다. 예안인(禮安人)으로 익양공(翼襄公) 천(蒧)의 6세손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용병(癘病)을 무릅쓰고 선생과 이려(李勵), 김성원(金聲遠) 등 제공(諸公)과 누저리(樓底里)에서 창의(倡義)하였는데 선생이 공(公)의 나이가 많아(당시 65세) 귀가(歸家)하기를 권유(勸誘)하였다.

◇ 이성(李城)은 전흥도정(傳興都正) 몽설(夢說)의 둘째 아들이며 선생의 문하생(門下生)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선생과 한날 금산(錦山)에서 전사(戰死)하였다. 공(公)의 아우 주부(主簿) 종모재(終慕齋) 완(琬)이 의복(衣服)과 신을 아버지 전흥도정(傳興都正) 무덤 앞에 장사(葬事)하였다. 뒤에 정려(旌閭)를 명(命)하였다.

◇ 김언경(金彦慶)의 자(字)는 이견(而見), 호(號)는 절재(節齋)로 김해인(金海人)이다. 문민공(文愍公) 일손(駟孫)의 현손(玄孫)으로 병조좌랑(兵曹佐郎)이었다. 강개(慷慨)한 성품(性品)에 대절(大節)이 있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창의(倡義起兵)하여 여러 번의 전공(戰功)을 세웠으며 일찍이 권을(權慄)을 참찬(參贊)하여 군세(軍勢)가 점차 떨치게 되었는데 선생이 금산(錦山)에서 순절(殉節)하였다는 말을 듣고 군대(軍隊)를 금산(錦山)으로 이동(移動)하여 왜적을 토멸(討滅)하려 하였다. 금산군(錦山郡) 동쪽에서 왜적과 조우(遭遇)하여 강상(江上)에까지 전전(轉戰)하니 사졸(士卒)들은 피곤(疲困)하여 흩어지고 왜적은 더욱 창궐(猖獗)하니 공(公)은 분전(奮戰)타가 군중(軍中)에 순국(殉國)하였다. 이 사실이 조정(朝廷)에 알려지자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추증(追贈)하고 금곡사(金谷祠)에 배향(配享)하였다.

◇ 김헌(金獻)의 호(號)는 동애(東崖)로 강릉인(江陵人)이다. 태어나서부터 특이(特異)한 재질(才質)로 사우간(師友間)에 이름이 알려졌다.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의병종사관(義兵從事官)으로 선생을 좇아 참전(參戰)하였다. 이 보다 앞서 선생이 창의(倡義)하는 격문(檄文)을 여러 읍(邑)에 띄우니 휘하(麾下)로 모여드는 군사(軍士)가 구름처럼 모였다. 이때 순찰사(巡察使) 윤선각(尹先覺)의 방해(妨害)를 받아 모였던 의병(義兵)들이 흩어져 가고 단지 7백인만이 남아 있

었다. 8월 16일에 금산(錦山)으로 향해 출발하려 하였는데 한 별장(別將)이 힘써 말하기를 금산(錦山)에 둔취(屯聚)한 왜적은 전번에 권율(權慄)에게 패한 전철(轉轍)을 경계(警戒)하며 정예(精銳) 수만(數萬)이 설옥(雪辱)을 꾀하고 있으니 우리의 고군(孤軍)으로 상대(相對)하기 불가(不可)하니 병사를 어루만지고 세를 불릴 것을 주장(主張)하였다. 선생은 이 말을 듣고 임금께서는 몽진(蒙塵)을 하셨는데 군세(軍勢)의 이·둔(利·鈍)을 어떻게 요량(料量)할 것이며, 또 임금이 옥(辱)을 당하면 그 신하(臣下)는 죽음으로써 설옥(雪辱)함이 의리(義理)에 당연(當然)한 바이다 하고 병사들을 독려하여 진격(進擊)하였다. 이 보다 먼저 호남순찰사(湖南巡素使) 권율(權慄)과 18일에 협공(挾攻)하기를 약속(約束)을 하였는데 권율(權慄)이 편지(片紙)를 띄워 기일(期日)을 연기(延期)하자 하였으나 선생은 이 서신(書信)을 받아 보기도 전(前)에 금산(錦山)으로 진군(進軍)하여 권율군(權慄軍)이 당도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왜적은 우리 군의 후속부대(後續部隊)가 없음을 탐지(探知)하고 우리 군이 포진(布陣)도 하기 전에 전군(全軍)이 출격(出擊)하였다. 이에 선생은 금일(今日)은 단지 한 번의 죽음이 있을 뿐 죽더라도 그 죽을 바를 얻어야 할 것이니 ‘의(義)’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라 당부(當付)하였고 모든 군사(軍士)들은 그렇게 하기를 서약(誓約)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칠백의사(七百義士)가 동시(同時)에 전사(戰死)하였다. 뒤에 선무훈(宣武勳)에 참록(參錄)되고 호조참의(戶曹參議)를 추증(追贈)하였으며 중

용사(從容祠)에 배향(配享)하였다.

◇ 이종언(李宗彦)은 진위인(振威人)으로 선생에게서 수업(受業)하였다. 임진년(壬辰年)에 선생을 따라 청주(淸州)싸움에 참전(參戰)하였고 금산(錦山)싸움에도 참전(參戰)하였으나 모친(母親)의 병환(病患)을 듣고 귀가(歸家)하였다.

◇ 공기우(孔奇禹)는 선생(先生)과 우의(友誼)가 매우 좋은 사이로 임진년(壬辰年)에 집안의 남자 종과 마을의 장정들을 인솔하여 선생의 막하(幕下)로 가다가 금산(錦山) 못 미쳐서 왜적과 만나 분전(奮戰)하다가 전사(戰死)하였다.

◇ 유섭(劉漣)의 자(字)는 일진(日進)이요, 호(號)는 송암(松菴)으로 강릉인(江陵人)이다. 개국원훈(開國元勳) 옥천군(玉川軍) 창(敞)은 공(公)의 6세조이다. 명종(明宗) 4년(1549)생으로 상서(庠筮)에 등제(登第)하여 금오랑(金吾郎)이 되었고 분의(奮義) 병기(炳幾)한 공(功)으로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녹(錄)되어 감찰어사(監察御史)로 승서(陞敍)되었다. 일찍이 선생에게서 공부(工夫)하였고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선생이 순절(殉節)하였다는 소식(消息)을 듣고 남원(南原)에서 거의(學義)하여 권을 장군(權慄將軍)과 일을 같이 하면서 교룡산성(蛟龍山城)을 지키고 있었다. 얼마 뒤에 왜적이 대거(大學) 몰려

오니 권율(權慄)은 저들의 예봉(銳鋒)을 피하려 하였다. 이에 공(公)은 칼을 뽑아 들고 크게 부르짖기를 이곳을 지키지 못하면 영호지방(嶺湖地方)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고 하였고 모든 군사(軍士)들은 눈물을 뿌리고 사수(死守)하기를 서약(誓約)하였다. 때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사방(四方)이 잘 보이지 않는 틈을 타서 아군(我軍)의 정예(精銳)를 선발(選拔)하여 왜적을 격파(擊破)하며 숙령(宿嶺)에까지 추격하였고 송대빈(宋大斌), 낙상지(駱尙志) 등이 후속 지원(後續支援)하여 남원성(南原城)이 피해(被害)를 면하였으나 공(公)은 병(病)을 얻어 이듬해 9월 진중(陣中)에서 사망(死亡)하니 나이 겨우 40이었다. 이 사실이 조정(朝廷)에 알려지자 우승지(右承旨)를 추증(追贈)하였다.

◇ 두정란(杜廷蘭)의 호(號)는 수의당(守義堂)으로 두능인(杜陵人)이다. 비인 현감(庇仁縣監) 사순(思順)의 아들로 임진왜란(壬辰倭亂)에 군병(軍兵)을 불러 모아 선생의 막하(幕下)로 들어가 해남현감(海南縣監) 변응정(邊應井), 조방장(助防將) 백광언(白光彦), 김제군수(金堤郡守) 정담(鄭湛) 등과 한 마음으로 적과 싸워 왜적 수백급(數百級)을 죽였고 칠백의사(七首義士)와 순절(殉節)하였다.

◇ 김응수(金應壽)의 자(字)는 승문(承門)이며 김해인(金海人)으로 진사(進士) 구철(九鐵)의 아들이다. 선조(宣祖) 21년(1588)에 무과(武

科)에 급제(及第)하였고 임진년(壬辰年)에는 선전관(宣傳官)으로 선생을 좇아 금산(錦山)싸움에 참전(參戰)하였다. 이때 선생이 공(公)에게 나가 피할 것을 명(命)하였으나 눈물을 뿌리며 떠나지 않고 분전(奮戰)다가 선생과 함께 전사(戰死)하였다. 뒤에 선무원종훈(宣武原從勳)을 녹(錄)하였다.

◇ 박춘검(朴春儉)은 고성인(固城人)으로 호(號)를 노곡(老谷)이라 하였다. 고려조 철성군(高麗朝鐵城君) 혁충(奕忠)의 후예(後裔)로 품성(稟性)이 건정(堅貞)하였고 금산(錦山)싸움에서 역전(力戰)다가 선생 곁에서 전몰(戰沒)하였다. 뒤에 정려(旌閭)를 표(表)하고 후율사(後栗祠)에 종향(從享)하였다.

◇ 김여철(金汝鐵)은 공주인(公州人)으로 금산(錦山)싸움에서 선생을 따라 같은 날 전사(戰死)하였다. 아들 상진(尙進)이 나이 겨우 12세에 호곡(號哭)하며 아버지의 시체(屍體)를 수습(收拾)하여 장사(葬事)하였다.

◇ 이명백(李命百)은 자(字)가 인로(仁老)로 가평인(加平人)이며 호(號)를 한포재(寒圃齋)라 하였다. 선생에게서 수업(受業)하였고 선조 24년(1591)에 선생이 장재(將才)로써 천거(薦擧)하였다. 임진년(壬辰年)에 청주(淸州)싸움에 참전(參戰)하여 많은 왜적을 무찌르고 금

산(錦山)으로 이동(移動)할 즈음 부모님의 병환 소식(消息)을 듣고 귀가(歸家)하였다. 이듬해 계사년(癸巳年)에 창의(倡義)하여 적암(赤巖)에서 왜적과 싸우다 힘이 다 되어 전사하였다. 뒤에 정려(旌閭)를 세우고 후을사(後栗祠)에 종향(從事)하였다.

◇ 박현령(朴玄齡)은 자(字)를 수지(壽之), 호(號)는 도봉(道峰)으로 함양인(咸陽人)이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性品)이 효성(孝誠)스럽고 우애(友愛)가 있었으며 그의 기국(器局)은 남보다 뛰어난 바 있었다. 선생이 거의(學義)하였다는 말을 듣고 아우 희령(希齡)과 종군(從軍)하였다.

◇ 금응신(琴應信)은 자(字)를 사립(士立), 호(號)를 덕재(德齋)라 하였다. 무과(武科)에 급제(及第)하여 전략장군(宣略將軍)으로 훈련원봉사(訓練院奉事)를 지냈고 선생을 따라 금산(錦山)싸움에서 전사(戰死)하였다. 뒤에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추증(追贈)하였다.

◇ 최희급(崔希伋)은 자(字)를 경사(景思) 호(號)는 청재(淸齋)라 하였다. 수성인(隋城人)으로 중종(中宗) 37년(1542)생이다. 임진년(壬辰年)에 선생 막하(幕下)에 종군(從軍)하였으며 그 뒤에는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막하(幕下)에 종군(從軍)하였으며 이듬해 6월에 진주(晋州)에서 전사(戰死)하였다. 뒤에 선무원종훈(宣武原從勳)

을 녹하고 무숙(武肅)이라 사액(賜額)했다.

◇ 김헌(金憲)의 자(字)는 희경(希慶)으로 광주인(光州人)이며, 대사간(大司諫) 성옥(成玉)의 후손(後孫)이다. 일찍이 유업(儒業)에 종사(從事)하였으나 선조(宣祖) 24년에 무과(武科)에 급제(及第)하였고 임진년(壬辰年)에는 선생의 막하(幕下)에 참여(參與)하여 강위구(姜渭龜) 등으로 금산(錦山)싸움에서 전사(戰死)하였다. 공(公)이 평소에 아끼던 말이 공(公)의 전포(戰袍)를 안장(鞍裝)에 실고 환가(還家)하여 슬피 울었다 한다.

◇ 오대걸(吳大傑)은 자(字)를 수경(秀卿), 보성인(寶城人)으로 현필(賢弼)의 후손이다. 선조 6년(1573)에 무과(武科)에 급제(及第)하였고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전판관(前判官)으로 선생 막하(幕下)에 종군(從軍), 금산(錦山)싸움에서 선생과 함께 순절(殉節)하였다. 뒤에 선무원종훈(宣武原從勳)을 녹(錄)하였다.

◇ 이환(李丸)의 자(字)는 의지(毅之)요, 전주인(全州人)으로 종산백(宗山伯) 자선(子宣)의 후손(後孫)이며 사정(寺正) 억손(億孫)의 아들이다. 지략(智略)이 뛰어났고 근육의 힘은 보통 사람 보다 아주 뛰어났다. 임진년(壬辰年)에 집안의 남자 종과 마을의 장정 백여인(百餘人)을 거느리고 금산(錦山)으로 가다가 사현(沙峴)에서 왜적(倭賊)

만나 힘껏 싸우다 전사하였다.

◇ 조유(趙愈)의 자(字)는 경한(景韓)이요 호(號)는 서파(西坡)로 백천인(白川人)이며 오월당(梧月堂) 우(瑀)의 손자이며 선생의 족제(族弟)이다. 천성(天性)이 독실(篤實)하고 근후(謹厚)하여 선생은 공(公)을 친동기(親同氣)같이 사랑하였다. 임진년(壬辰年) 선생을 따라 거의(舉義)하는 격서(檄書)를 썼고 청주 승첩후(淸州勝捷後) 금산(錦山)으로 이동(移動)할 때 선생은 말하기를 자네는 누대(累代)를 독자(獨子)로 내려오는 데 다만 어린 아들 한 명뿐이니 만약(萬若) 진중(陣中)에서 불행(不幸)하게 된다면 어린 아들도 성명(性命)을 보전(保全)하지 못 할 것이라 하고 귀가(歸家)할 것을 권유(勸誘)하였다. 뒤에 공(公)이 체문인(諸門人)과 순의비(殉義碑)를 세웠다.

◇ 김로(金輅)의 자(字)는 청숙(淸叔), 호(號)는 삼송당(三松堂)이며 개성인(開成人)으로 선생의 사위이다.

◇ 곽숭인(郭崇仁)은 선산인(善山人)으로 선생에게서 수업(受業)하였고 집안 대대로 충효(忠孝)와 문장(文章)으로 세상(世上)에 이름이 알려 졌다. 임진년(壬辰年)에 선생을 따라 창의(倡義)하였다.

◇ 김전(金篆)의 자(字)는 문숙(文叔)이요 호(號)는 취원정(聚梁

亭), 개성인(開城人)으로 증영의정(贈領議政) 남보(南寶)의 후손(後孫)이다. 선생에게서 수업(受業)하였고 금산지역(錦山之役)에 공(公)은 격서(檄書)를 지참(持參)하고 전주(全州)에 갔다가 금산(錦山)싸움에는 참전(參戰)하지 못하였다. 선생(先生) 순절후(殉節後)에 시체를 받들어 장사 지냈다. 뒤에 후율사(後栗祠)에 종향(從享)되었다.

◇ 박정필(朴廷弼)·정양(廷亮)·정노(廷老)·김잠(金箴) 등은 모두 선생의 문인(門人)이며, 곽현(郭賢)은 현풍인(玄風人)으로 선생 막하(幕下)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청주첩서(淸州捷書)를 가지고 용만(龍灣) 행재소(行在所)에 갔었다. 벼슬이 현감(縣監)에 이르렀다.

◇ 남응서(南應瑞)의 자(字)는 사휴(士休)로 선생문하(先生門下)에 출입(出入)하였으며 김성(金誠)은 자(字)를 극부(克孚), 호(號)는 쌍행당(雙杏堂)으로 경주인(慶州人)이다. 임진년(壬辰年)에 선생(先生)을 따라 청주(淸州)싸움에 참전(參戰)하였다. 뒤에 후율사(後栗祠)에 종향(從享)되었고 신격(辛激), 남치리(南致理), 윤광계(尹光啓), 박노(朴輅), 남호덕(南好德), 선생의 매서(妹婿) 박사삼(朴事三), 박연수(朴延壽), 조사안(趙師顔), 김계남(金繼男), 최중용(崔仲龍), 박영수(朴景修), 오중철(吳中喆), 이영백(李齡百), 양천회(梁千會) 등이 있다. 또 김성휘(金成輝)는 자(字)를 입부(立夫) 호(號)를 오강(梧岡), 광산인(光山人)으로 광산부원군(光山府院君) 국광(國光)의 후손(後孫)이다.

임진년(壬辰年)에 선조(宣祖)가 난을 피해 도성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북향(北向) 통곡(痛哭)하고 선생과 고경명(高敬命)이 기의(起義)함에 이르러서는 집안의 재산을 털어 의병(義兵)을 모집(募集)하고 좁은 통로를 거점(據點)으로 수비(守備)하며 육로(陸路)로 군량을 조달(調達)한 공(功)으로 여러 차례의 은전(恩典)의 베품을 받았다. 권율(權慄)의 이현(梨峴)싸움에는 거만(巨萬)의 궁시(弓矢)와 추향(藹餉)을 조달(調達)하여 병조참의(兵曹參議)를 특별히 제수(除授)하였다.

◇ 한일휴(韓日休)는 자(字)를 경일(景逸), 호(號)는 월포(月浦)로 청주인(淸州人)이다. 임진년(壬辰年)에 밤에 의주(義州) 행조(行朝)에 갔었다. 뒤에 집의(執義)를 추증(追贈)하고 청주(淸州) 검엄사(儉嚴祠)에 종향(從享)하였다.

◇ 박연현(朴連賢)은 밀양인(密陽人)이다. 임진년(壬辰年)에 선생(先生)을 따라 창의(倡義)하고 금산(錦山)에서 전사(戰死)하였다. 뒤에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추증(追贈)하였다.

◇ 황진(黃璉)의 자(字)는 형옥(衡玉)이다. 참봉(參奉)으로 임진년(壬辰年)에 대제학(大提學) 윤형(尹炯)과 주문사(奏聞使)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뒤에 무고한 모함을 입어 옥천(沃川)에 귀양 갔었다. 얼마 뒤에 선생을 따라 창의(倡義)하고 금산(錦山)에서 전몰(戰沒)하였다.

◇ 김지(金智)의 자(字)는 명중(明仲)이요 호(號)는 퇴포(退圃)로 연안인(延安人)이다. 천성(天性)이 아주 고결(高潔)하였으며 경술(經術)을 오로지 숭상(崇尚)하였다. 수령(守令)이 되어서는 밝은 정치(政治)를 하여 많은 공(功)을 세웠다. 선생이 연안교수(延安教授)로 있을 때 공(公)은 연령(年齡)에 구애(拘碍)되지 않고 선생을 존경(尊敬)하며 따랐고 선생이 명(明)나라에 질정관(質正官)으로 갈 때 내방(來訪)하여 울곡(栗谷)의 석담 향약(石潭鄉約)을 들고는 이삼동지(二三同志)와 함께 條目(조목)을 설(設)하여 연안(延安)에서 권선징악(勸善懲惡)의 도리(道理)를 가르쳐 한 고을을 교화(教化)시켰다.

◇ 김천일(金千鎰)의 자(字)는 이중(而重)이요 호(號)는 재동(齋洞)으로 연안인(延安人)이다. 성품(性品)이 공손(恭遜)하여 남에게 거스리는 바가 없었다. 선생이 연안교수(延安教授)로 있을 때 사사(師事)하였다. 일찍이 선생께서 우리 문중(門中)에는 김천일(金千鎰)과 노성필(盧成弼)이 비범(非凡)한 인물(人物)이라고 칭찬(稱讚)하였으며 선조(宣祖)가 서행(西幸)할 때 선생은 공(公)에게 용만(龍灣)으로 호성(扈聖)한 것을 명(命)하였다. 선조(宣祖)께서 공조참의(工曹參議)를 특별히 제수(除授)하였다.

◇ 탁억손(卓億孫)은 광산인(光山人)으로 고려조(高麗朝)의 태사(太師)인 광산군(光山君) 지엽(之葉)의 16세손(世孫)이며 태종조(太宗

朝) 문정공(文貞公) 신(愼)의 7세손(世孫)이다. 공(公)은 태어나면서부터 특이(特異)한 재질(才質)은 총명(聰明)하고 기억력(記憶力)이 좋아 경사(經史)를 줄줄이 외웠으며 선생에게서 수업(受業)하였고 선생은 공(公)의 지기(志氣)를 아끼었다. 공(公)의 아들 채포(蔡圃) 용(龍)은 임진년(壬辰年)에 선조(宣祖)께서 서순(西巡)할 때 어가(御駕)를 본제(本第)로 모셔 삼일(三日)을 지숙(止宿)케 하였는데 환도(還都)할 때 임금은 그의 충성을 생각하여 불렀으나 사양(辭讓)하고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고종(考終)한 뒤에 조정(朝廷)에서는 그 충의(忠義)를 가상(嘉尙)히 여겨 벼슬을 누증(累贈)하여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이르렀고 정려(旌闥)를 표(表)하였다.

◇ 김순광(金順光)의 자(字)는 사윤(士潤), 호(號)는 서원(西源)으로 남양인(南陽人)이다. 선생이 정주 훈도(定州訓導)로 있을 때, 기전참봉(箕殿參奉)으로 천거(薦舉)하였다.

◇ 백인환(白仁煥)은 자(字)는 사해(士該), 호(號)를 송담(松潭)이라 하였다.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벼슬이 총관(總管)이 되었다. 늘 선생을 위하여 건원(建院)할 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룩하리라고 하였다. 공(公)의 손자(孫子) 시원(時源)도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지평(持平)이 되어 건원발문(建源發文)에서 중봉(重峰) 조선생(趙先生)을 흠양(欽仰)할 서원(書院)을 아직 세우지 못한 것은 본주(本

州)의 미황(未遑)한 일이라 하였다. 증손(曾孫) 유행(愈行)도 늘 말하기를 중봉(重峰) 선생은 우리 고을 경학(經學)의 조(祖)라 하였다.

◇ 이중덕(李重德)은 한산인(韓山人)으로 목은(牧隱) 색(穉)의 후손(後孫)이다. 선생에게서 수업하였다. 공(公)은 늘 고인(古人)의 입근(立慚)한 사실을 보면 곧 감흥(感興)이 격앙(激昂)되어 사생취의(舍生取義)의 지절(志節)을 가슴속에 간직하였다. 그리하여 선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아무개의 재조(才操)와 용기는 보통 사람과는 달리 뛰어 나서 그와 더불어 큰 일을 할 만하다고 하였다.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선생과 의병(義兵)을 모집(募集)하여 청주(淸州)싸움에서 대첩(大捷)하였고 16일에는 선생을 따라 금산으로 갔다. 이때 적의 세력은 불길처럼 몹시 성하고 아군(我軍)의 고립되고 약한 것을 감안(勘案)하여 안병(按兵) 관세(觀勢)할 것을 선생에 권하였으나 선생의 결사(決死)의 굳은 뜻을 보고는 선생을 따라 전투에 힘쓰다가 순절(殉節)하였다. 선조(宣祖) 29년(1596)에 장예원판결사(掌禮院判決事)를 특증(特贈)하였다고 또 좌승지(左承旨)를 가증(加贈)하였다.

◇ 손승경(孫承暻)의 자(字)는 사오(士梧)요, 밀양인(密陽人)으로 을사명현(乙巳名賢) 대교(待敎) 홍적(弘績)의 아들이다. 인종 원년(仁宗元年 : 1545)에 아버지가 화(禍)를 입은 후 정읍(井邑) 초산(楚山)

아래에 은거(隱居)하며 초은(楚隱)이라 자호(自號)하였다. 뒤에 참봉(參奉) 벼슬을 주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임진년(壬辰年)에 국왕(國王)이 서행(西幸)함에 충의(忠義)가 분격(奮激)하여 의병(義兵)과 가동(家僮) 수십인을 거느리고 선생에게로 달려가던 도중 양성현(陽城縣)에서 왜적에게 포위(包圍)되어 힘써 싸우다가 순절(殉節)하였다.

◇ 김성진(金聲振)의 첫 이름은 성룡(成龍)이며 호(號)는 국재(菊齋)라 하였다. 개성인(開城人)으로 평장사(平章事) 준(峻)의 후손(後孫)이며 판서(判書) 용니(用泥)의 5세손이다. 인종(仁宗) 원년(元年)생으로 천성(天性)이 강직하여 굽힘이 없었고 대의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지키는 절개가 있었다. 선생의 문하(門下)에서 수업(受業)하였는데 8세에 문장(文章)을 지었고 13세에 벌써 무예(武藝)에 능통(能通)하여 백보(百步) 밖에서 버들잎을 맞춰 뚫는 재능(才能)이 있었다. 그리하여 선생은 몹시 사랑하면서 늘 칭찬(稱讚)하기를 한(漢)나라의 수하(隨何)와 육가(陸賈)의 문장(文章)과 한신(韓信)·팽월(彭越)의 무재(武才)를 겸비(兼備)한 사람이 바로 이 아이다 라고 극찬(極讚)하였다. 임진년(壬辰年)에 공(公)은 선생을 따라 창의(倡義)하여 청주(淸州)의 왜적을 진격(進擊)할 때 아군(我軍)은 천 명(千名)도 채 되지 못하는데 공(公)이 홀로 참수하여 획득한 적의 수만 해도 아주 많았고 금산(錦山)에 왜적이 둔취(屯聚)하였다는 말을 듣고 추

격(追擊)하여 성 아래에서 대진(對陣)하고 한 참을 있는데 왜적의 후속부대(後續部隊)가 많이 와서 아군(我軍)을 포위(包圍)하였지만 세 번 싸워 세 번이나 물리쳤다. 그런데 이때 아군(我軍)은 화살이 떨어졌고 왜적은 사면(四面)에서 개미떼 같이 몰려들었다. 그래도 군사(軍士)들을 정돈(整頓) 대기(待期)하고 있던 사람은 오직 공(公)과 김성원(金聲遠), 김향진(金亨進), 김절(金節), 권각(權恪) 등 오·육인뿐이었다. 선생은 의관(衣冠)을 정제(整齊)하고 단정(端正)히 앉아 말하기를 “사나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데 죽으려면 그 죽을 시기(時期)와 장소(場所)를 얻어야 한다” 하였다. 이에 공(公)은 울면서 대답(對答)하기를 “사나이 그 임금이 몽진(蒙塵)하는데 이 때를 당(當)하여 저 더러운 성진(腥塵)을 일소(一掃)하여 대가(大駕)를 보호(保護)하지 못하고 이 몸이 먼저 죽음에 이르렀으니 죽는 것은 두려운 바가 없으나 할 일을 다하지 못함이 한(恨)스럽습니다” 하였다. 이에 선생은 “나는 의병(義兵)을 일으킬 때부터 오늘이 있을 것을 알았다. 담담(淡淡)하게 의(義)에 나아가 죽자” 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순절(殉節)하였으니 곧 8월 18일의 일이다. 이때 권각(權恪)의 종이 거짓 죽은 척 하고 시체(屍體)틈에 누어 있다가 왜적이 몰려 간 뒤에 그 주인(主人)의 시체(屍體)를 메고 돌아왔다. 선조조(宣祖朝)에 의총(義塚) 앞에 칠단(七壇)을 모으고 사액(賜額)하였다.

◇ 명광계(明光啓)의 호(號)는 모암(慕庵)으로 진사(進士) 극점(克

謙)의 아들이다.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양사(兩司)를 거쳐 평택 현감(平澤縣監)이 되었다. 임진년(壬辰年)에 정예(精銳) 수백 명을 거느리고 선생을 따라 청주(淸州)에 왜적을 대파(大破)하고 금산(鎭山)으로 곧바로 달려가 선생과 함께 순절(殉節)하였다. 부인(夫人) 현씨(玄氏)도 주위(周圍)사람들이 피난(避難)할 것을 권유(勸誘)하였으나 오히려 성을 내고 말하기를 신하(臣下)는 임금을 위하여 사절(死節)하고 아내는 남편(男便)을 따라 죽는 것이 각자의 직분(職分)이거늘 어찌 피난(避難)하라 하고 역시(亦是) 순절(殉節)하였다.

◇ 정원복(鄭元福)의 자(字)는 보중(報重), 호(號)를 석봉(石峰)이라 하였다. 진주인(晋州人)으로 벼슬이 충순위(忠順衛)였다. 영조(英祖) 22년(1746) 충장공(忠莊公) 신설시(仲雪時)에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을 추증(追贈)하였다.

◇ 박중립(朴中立)의 자(字)는 보중(報重), 호(號)는 만오재(晩悟齋)로 단종조(端宗朝) 충신(忠臣) 희권(希權)의 5대손이다. 뒤에 금산진(鎭山陣)에 일군순의비(一軍殉義碑)를 세웠다. 공(公)은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과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양선생(兩先生) 문하(門下)에서 수업(受業)하여 학문(學問)이 고명(高明)하며 또 효행(孝行)이 있어 당시인(當時人)들이 공(公)이 생장(生長)한 마을을 가리켜 군자리(君子里)라고 하였다.

◇ 정민수(鄭民秀)는 자(字)를 자준(子俊), 호(號)를 월암(月菴)이라 하였다. 나주인(羅州人)으로 문정공(文靖公) 가신(可臣)의 12세손이며 참봉(參奉) 곤(鵠)의 아들로 선조(宣祖) 2년(1596)생이다. 송제민(宋濟民)과 교유(交遊)하였으며 행의(行誼)로 영능 참봉(英陵參奉)에 제수(除授)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일찍이 김포(金浦)로 선생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때 선생은 공(公)을 매우 기특하게 생각하여 “나라에 장차(將次) 환란(患亂)의 근심이 있는데 자신의 재능(才能)을 보니 반드시 긴급(緊要)하게 잘 쓸 때가 있으니 더욱 충의(忠義)에 힘쓰라”고 권유(勸誘)하였다. 임진년(壬辰年) 공(公)이 상중(喪中)에 임금이 몽진(蒙塵)하였다. 소식을 듣고 북망동곡(北望痛哭)하고 곧 삼종제(三從弟) 증(縉)와 창의(倡義)하여 의병 105인을 모집, 거의(舉義)하였다는 말을 듣고 양남지방(兩南地方) 의사(義士)들에게 격문(檄文)을 띄워 소집(召集)하고 가묘(家廟)에 결별(訣別)을 고(告)하고 공주(公州)에 이르러 김헌(金憲)을 만나 같이 죽기를 서약(誓約)하고 선생의 막하(幕下)로 들어갔다. 이때 선생은 공(公)에게 군무(軍務)를 부탁(付託)하여 군량(軍糧)을 모아 회복(恢復)의 계획(計策)을 꾀하였다. 금산(鎭山)싸움에서 공(公)은 조광윤(趙光倫), 임정식(任廷式), 이려(李礪), 김헌(金獻) 등과 맨 주먹으로 싸우다 칠백의사(七百義士)는 물론 삼종제(三從弟) 증(縉)과 함께 전사(戰死)하였다. 선조(宣祖) 28년(1595)에 김약(金籥)이 금산(鎭山)싸움터에 비(碑)를 세웠으며 동왕(同王) 38년(1605)에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

臣)에 녹훈(錄勳)되었다. 순조(純祖 : 1801)에 사정(司正)을 추증(追贈)하고 오산사(鰲山祠)에 배향(配享)하였다.

◇ 박송휘(朴崇輝)는 함양인(咸陽人)으로 벼슬은 주부(主簿)였고 고려조(高麗朝) 문제공(文齊公) 충좌(忠佐)의 후손이다. 임진년(壬辰年)에 선생을 좇아 청주(淸州)에서 승첩(勝捷)하고 금산전(錦山戰)에서 전사(戰死)하였다.

◇ 장의백(張義柏)의 자(字)는 군직(軍直)이요 호(號)는 백암(柏庵)으로 흥성인(興城人)이다. 고려조(高麗朝) 포음(圃陰) 장길(張吉)의 후손이다. 선조(宣祖) 원년(元年 : 1568) 5월 생으로 선생에게서 수업(受業)하였다. 임진년 7월에 선생의 기의(起義) 격문(檄文)을 보고 탄식(歎息)하기를 부모(父母)의 연세(年歲)가 높으시고 또 다른 형제가 없어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스승의 행동에 참여(參與)하지 못하다 하고 홀로 눈물을 흘렸다. 선조(宣祖) 29년(1596) 윤(閏) 9월에 부친상(父親喪)을 당하였다. 이듬해 8월 16일에 대방성(帶方城)이 함락되어 병사(兵使) 이복남(李福男)과 부사(府使) 임현(任鉉)이 전사(戰死)하니 공(公)은 그들과 함께 죽지 못한 것을 한(恨)으로 여겼었다. 9월에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이 우수영(右水營)에 있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에게 결별(訣別)을 고(告)하기를 사나이 송상(崇尙)하는 바는 충효(忠孝)뿐이다. 임진(壬辰) 계미년(癸未年)에 왜적과

싸움터에 나아가지 못하였음은 늙은 부친(父親)이 계셨기 때문이었다.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 나라를 위하여 왜적과 싸우는 것이 나의 할 일이다 하고 말 한 필에 종 2명만을 거느리고 우수영(右水營)으로 달려갔다. 이때 영암군수(靈岩郡守)李宗성(李宗誠)이 공(公)을 위로(慰勞)하기를 당신은 상복(喪服)을 입고 난(亂)에 뛰어 들었으니 진실로 충효(忠孝)의 선비라고 하였다. 때에 적선(賊船)은 바다를 덮은 듯 크게 밀려들었고 공(公)은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드디어 순절(殉節)하였다.

◇ 박광조(朴光朝), 자(字)는 시영(時榮), 호(號)는 지봉(砥峰)이며 밀양인(密陽人)으로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대손(大孫)의 후손(後孫)이며 경암(敬庵) 번(番)의 아들이다. 선조(宣祖) 3년(1570)에 무과(武科)에 급제(及第)하여 주부(主簿)가 되었고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임금의 수레가 서천(西遷)하였다는 말을 듣고 아우 광종(光宗)과 울부짖기 3일에 하늘을 우러러 북배(北拜)하고 바라건대 황천(皇天)은 우리 나라의 쓰러지는 국운(國運)을 가르쳐 길을 열어 달라고 축원(祝願)하고는 선생을 따라 기의(起義), 금산(錦山)싸움에서 형제가 함께 순절(殉節)하였다.

◇ 현만령(玄萬齡), 자(字)는 대년(大年)이요 연주인(延州人)이다. 학자들은 공(公)을 송암처사(宋庵處士)라 칭하였다. 고려조(高麗朝)

평장사(平章事) 연산군(延山君) 일(鎰), 경헌공(景憲公) 담윤(覃胤)의 후손이요 내섬시봉사(內贍寺奉事) 증판결사(贈判決事) 연수(硯壽)의 아들로 중종(中宗) 39년(1544)생이며 천품(天稟)이 높고 가지런하였다. 선생이 정주(定州) 훈도(訓導) 시에 문하(門下)에게 수업(受業)하였다. 선생은 공(公)에게 많은 기대(期待)를 걸고 성리학(性理學)을 가르쳤고 공(公)도 일절(一切) 학문(學問)에만 전심(專心)하였다. 일찍이 무장 훈도(茂長訓導)로 있을 때 서실(書室)을 지어 여택재(麗澤齋)라 이름 하였으며 원근(遠近)의 학자들이 모여들었다. 허영(許穎)과 허담(許淡)은 공(公)의 고제(高弟)였다. 공(公) 양친상(兩親喪)을 당하여 3년을 움막에 거주하는 동안 본주(本州)의 문묘(文廟)가 왜란으로 인하여 퇴폐(頹廢)하니 공(公)은 가산(家産)을 기우려 거듭 새롭게 하였다. 광무(光武) 9년(1905년)에 본주(本州)의 선비들이 선생을 여택재(麗澤齋)에 타향(妥享)하고 공(公)도 배향(配享)하였다.

◇ 현담(玄淡) 자(字)는 약수(若水)로 선조(宣祖) 7년(1574)생이다. 어려서부터 영특(穎特)하였고 성리학(性理學)을 전공(專攻)하여 문하(門下)에 저명(著名)한 사람이 많았다. 임진왜란에 임금의 행차(幸次)가 정주(定州)에 오니 공(公)은 이때 19세로서 문묘(文廟)에 수임(首任)으로 있었다. 임금에게 말을 헌사하고 자신은 도보(徒步)로 호종(扈從)하다가 중로(中路)에서 발병이 나니 임금은 집으로 돌아가 조리(調理)할 것을 명(命)하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임금은 공

(公)을 불러 후한 상을 내렸고 인조(仁祖) 19년(1741)에 사망하니 조정(朝廷)에서는 임진시(壬辰時)에 호성(扈聖)한 공(功)을 기려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추증(追贈)하였다. 여택재(麗澤齋)에 배향(配享)하였다.

◇ 백호섭(百虎燮)은 호(號)가 갈현(葛峴)으로 수원인(水原人)이며 벼슬이 판관(判官)이었다. 선생이 정주 훈도(定州訓導)로 있을 때 문하(門下)에서 수업(受業)하였고 노경(盧瓊)은 해주인(海州人)으로 역시 선생이 정주(定州) 훈도(訓導) 시에 수업(受業)하였으며 백호섭(百虎燮)은 호(號)는 갈포(葛圃)라 하였고 선생이 조천(朝天)할 때 왕배(往拜)하였었다. 또 장덕개(張德盖), 고경우(高擎宇), 최호(崔虎), 이 유일(李惟一), 김유선(金惟善) 등도 모두 선생을 따라 창의(倡義)하였다.

◇ 의승장(義僧將) 영규(靈圭)의 호(號)는 기허당(騎虛堂)이요 속성(俗姓)은 박씨(朴氏)로 공주(公州) 판치인(板峙人)이다. 계룡산(鷄龍山)에 입산(入山)하여 서산대사(西山大師)의 법학(法學)을 전습(傳襲)<sup>72)</sup>하였고 뒤에 서봉사(瑞鳳寺), 낙가산사(落迦山寺), 갑사(岬寺) 등의 주지(住持)를 지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승려(僧侶) 3백인을 거느리고 선생을 따라 금산(錦山)싸움에서 같은 날 순절(殉節)하

72) 전하여 내려오는 그대로 답습함.

였다. 뒤에 정여(旌閫)를 표(表)하고 증용사(從容祠) 별묘(別廟) 및 서산대사(西山大師) 표충사(表忠祠) 배향(配享)되었다.

### 3. 혈전(血戰)으로 탈환한 청주성

중봉의 의병들이 회덕을 거쳐 형강에 이르렀을 무렵 왜적들은 이미 청주를 점령한 후였고 전라도지방을 치기 위하여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을 때였다. 즉 청주방어사 이옥의 군대가 이미 무너져 버렸고 오로지 승장 영규대사의 군대만이 외로이 적병과 대치해 있는 상황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중봉은 급히 의병을 이끌고 형강을 떠나 청주로 향했다. 도중에 방어사 이옥을 만나 그의 군사 5백 명을 청주로 진군하도록 하는 한편 8월 1일 자신이 이끄는 의병과 영규대사가 이끄는 승병들을 합세시켜 청주성을 공격하기로 하였다.

청주성 주변의 여러 고을 사람들은 모두 산속으로 난리를 피해 숨어 흩어졌고 청주성에는 왜병들이 승전가를 부르며 고기와 술로 배를 채우고 있었다. 이틈에 의병장 중봉의 의병이 1천 1백 명, 승장 영규대사가 이끄는 승병이 1천명, 판군 이옥의 군사가 5백 명, 도합 2천 6백여 명이 청주성 서문 밖에 모여 들었다.

드디어 8월 초하루 아침 8시 정각에 중봉의 부릅 뜬 눈동자와 열굴은 최후의 결전에 임하는 굳은 의지로 가득한 채, 승장 영규대사

와 선봉에 서서 북과 징소리에 맞추어 청주성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무심천을 건너선 우리 군사는 다시 구체적인 작전에 들어가 서문을 중심으로 포위대형으로 군사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우선 30여명의 척후병들을 보내어 정탐하면서 다시 전방에 50여명의 돌격대를 성문 가까이 보내 일제히 화살을 퍼부었다. 그러자 갑자기 서문이 열리고 수백 명의 왜군이 함성과 함께 칼을 휘두르고 조총을 쏘면서 쏟아져 나왔다. 지금의 서문시장과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달려 나온 왜적은 무심천 언덕위에 진을 친 우리 병사들이 일제히 쏘아대는 화살에 일단 진격을 멈추고 총으로 응사해 왔다. 이렇게 서로 쏘아대기 1시간 남짓, 숲 속에서 매복하고 있던 중봉은 갑자기 일어서며 등 - 등 - 등 북을 두들기며 전진을 외치니 죽음을 각오한 의병들이 고함소리와 함께 적진을 향해 돌격해 들어갔다. 비명소리와 함성, 칼과 칼, 창과 창이 맞부딪치는 소리가 뒤섞여 하늘을 진동했고 번뜩이는 칼날아래 시뻘건 선혈이 튀기었다. 이렇게 싸우기 서너 시간, 오후 1시쯤이 되어서 왜군은 많은 사상자를 낸 채 무기를 버리고 성안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우리 측에도 희생자가 많아 전열을 다시 가다듬기 위하여 중봉은 북을 울려 일단 군대를 무심천 너머로 후퇴시켰다.

중봉은 두 번째 공격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지형적으로 가장 유리한 서문을 주공격대상으로 삼아 주력부대를 이곳에 다시 배치하고, 이어 군사 백 명씩을 남문과 북문 쪽으로 보내어 성안의 왜



청주성 전장기적비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92-6.

적들을 분산시키는 위장전술을 폈다. 오후 2시 공격의 북소리와 함께 진격하여 싸움은 점점 치열하게 전개되고 필사적인 청주성 탈환작전은 무르익어 갔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게 별안간 먹구름이 격전지를 뒤덮더니 앞을 분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낙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하는 수 없이 중봉은 애통해 하면서 북을 울려 군사들을 후퇴시켰다. 숙원의 청주성 탈환을 눈앞에 두고 분하게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중봉은 한없이 하늘을 원망하며 깊은 시름에 잠겨있었다.

이때 한 여인이 나타나 이르기를 “지금의 성안의 왜군 참모들은 ‘의병장의 군사는 순찰사나 방어사의 군사에 비할 바가 아니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곧장 달려들어 조금도 꺾이지 아니하니 그 날카로운 기세와 칼날을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다’며 곧 닥칠 야간기습이 두려워 성위의 깃발을 모두 뽑고 성에서 도망하려는 기미가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 의외의 정보에 중봉은 다시금 척후병을 보내어 성안의 동정을 살피게 하니 돌아온 척후병의 말도 그 여인의 말과 같아 왜적들은 밤이 이속해지기를 기다려 북문 쪽으로 달아나려는 계획 같다고 아뢰었다.

중봉은 방어사 이옥에게 성 북문밖에 북병을 숨겨두었다가 달아나는 왜병을 공격하라고 당부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밤 왜적들은 희생자의 시체를 거두어 불태우고 몰래 북문으로 빠져 달아나 버렸다. 그러나 이옥은 왜병이 두려워 중봉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로 인해 왜병들은 쉽게 성을 빠져 나갈 수 있었다.

다음날 새벽 먼동이 트기 직전에 중봉의 군사는 성안으로 진격하여 들어갔다. 그러나 이미 왜병들은 성을 버리고 모두 도망친 뒤여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쉽게 성을 탈환할 수 있었다. 관군조차도 엄두를 못 냈던 청주성 탈환이 드디어 죽음을 각오한 의병과 승병에 의해 이룩된 것이었다. 청주성의 승전소식이 곳곳에 전해지자 충청우도에 퍼져 있던 왜병들은 겁을 잔뜩 집어먹고 청주를 거쳐 다른 곳으로 침략하려던 생각을 아예 버리게 되었다.

청주성 전투는 북행(北行)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충청도(忠淸道) 의병장(義兵將) 전(前) 제독관(提督官) 조헌(趙憲)은 결사대(決死隊) 삼천 명을 소집(召集)하여 팔월(八月) 초(初) 일일(一日) 사시(巳時)에 승장(僧將) 영규(靈圭)<sup>73)</sup>가 인솔(引率)하는 승군(僧軍)과 더불어 합세하여 청주에 주둔(駐屯)하고 있는 왜적을 포위하였다. 한편 방어사(防禦使) 이육(李沃) 등이 인솔하는 연기(燕岐) 문의(文義) 청주(淸州) 등의 곳에서 군병(軍兵)의 지원을 재촉하면서 온종일 힘껏 싸웠다.

왜적의 살상자(殺傷子)는 심히 많았다. 적의 세력은 궁(窮)하고

73) 조선 중기의 승병장(僧兵將). 본관 밀양(密陽). 호 기려(騎廬). 속성 박(朴). 휴정(休靜)대사의 고제(高弟)로 공주(公州) 청면암에서 수도. 선장(禪杖)으로 무예를 익혔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500명의 승병을 모아 의병장 조헌(趙憲)과 함께 청주(淸州)를 수복하고 이어 금산(鎭山)에 이르러 일본군과 격전 끝에 조헌 등 700의사(義士)와 함께 순국하였다.

어려워 죽치고 들어 있었다. 적병(賊兵)은 시체를 쌓아 불태워 버리고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도망쳤다. 나는 군사를 이끌고 연기(燕岐)로 향하였다.

바야흐로 아산(牙山)과 직산(稷山)사이로부터 날짜를 정하여 북쪽으로 정벌함으로써 왜적을 모조리 섬멸(殲滅)하여 단 한 놈도 저의 나라에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한다. 경기와 황해도와 여러 읍(邑)의 관리와 백성들은 적의 세력을 세밀하게 살피고 향병(鄉兵)을 많이 모집해서 공격할만한 것은 공격하여 도로(道路)를 통하고 공격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전략(戰略)을 세웠다. 우리의 군대가 오는 것을 기다려서 힘을 합하여 공격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나는 이 달 안으로 임금께서 옛 서울로 환궁(還宮)하시게 하려는 의도(意圖)를 기약(期約)하여 별도(別途)로 이웃 군(郡)에 알아듣도록 타일렀다. 그리고 각군(各郡)은 군량(軍糧)을 서로 도와서 추위가 오기 전에 일을 잃고 사망으로 도망가 흩어진 우리의 백성을 다시 안전하게 모이게 할 일도 또한 마땅히 알아야 한다.<sup>74)</sup>

즉 청주성 전투는 조헌이 근왕(勤王)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것이다. 원래 그의 북행 계획은 “일찍이 호남의병장 고경명(高敬命)과 약속하기를 형강(荊江)을 건너 왜적을 무찌르고자 하였다”는 것에서 짐작되듯이 고경명(高敬命)과의 연계 속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즉 고경명이 금산에 은거(遁居)한 왜적을 공격하기로 하고 조헌 등은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이 작전은 양군의 합사가 이루어지기도

74) 「勤王時指路文」

전인 7월 9일 금산 전투에서 고경명이 전사함으로써 무산되었다.

당시는 청주 방어사 이옥(李沃) 등의 군대가 잇달아 무너져 버렸고 오로지 승장(僧將) 영규대사(靈圭大師)의 군대만이 홀로 적병과 대치해 있는 상황이었다. 조헌은 급히 군대를 이끌고 청주로 향하였다. 조헌은 도중에 방어사(防禦使) 이옥을 만나 그의 군사 5백 명을 청주로 진군하도록 하는 한편 8월 1일 자신이 이끄는 의병과 영규(靈圭)의 승병(僧兵)과 합세하여 청주성을 공격하자고 말하였다.

관군(官軍)은 다 무너지고 영규가 홀로 대치하고 있는 형편에서 조헌은 영규군(靈圭軍)과의 합세 하에 공격하기로 하고 관군(官軍)의 진군도 촉구하였다. 이로써 관군인 이옥이 연기현에서 진군하고 영규가 이끄는 승병들도 안심사(安心寺)에 집결하였다가 다시 빙고현(氷庫峴)에 진군함으로써 관의병(官義兵)의 합군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조헌이 직접 지휘하게 되었다. 이들 관의병은 8월 1일 청주성 서문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혈전 끝에 수복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청주성 전투는 호서지역의 의병들이 일본군에게 점령당한 청주성을 탈환하여 근왕(勤王)을 이행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따라서 호서의병들이 청주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청주성을 회복한 것은 상당한 전략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주성 전투 결과 얻은 청주성의 회복은 단순히 청주 지역만의 회복이 아니라, 왜군이 호남지역과 충청우도(忠淸右道)로 진출

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빼앗은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침략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반대로 국토회복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데 큰 의미를 들 수 있다.

둘째, 청주성 전투에서는 의병(義兵)과 승병(僧兵) 그리고 관군(官軍)이 연합하여 승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종전까지 관군은 일본군과의 격전에서 패배 내지는 미리 도망쳤고, 의병과는 갈등 관계를 초래하여 합일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였지만 청주성 전투에서는 대규모 연합세력을 구성함으로써 승리하였던 것이다.

셋째, 청주성 전투에서는 이 지역 출신의 의병들이 직접 참여하여 승리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들은 청주성의 익숙한 지형을 이용해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보다 유리했으며 전투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데 용이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주 지역 출신의 의병은 자기 지역에서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친족의 참여와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전라도 유생 양산숙(梁山燾), 곽현(郭賢) 등이 행재소(行在所: 임금이 거동할 때 일시 머물던 곳)에 가서 말하기를 “김천일(金千鎰)이 의병(義兵)을 일으켜 전라병사(全羅兵使) 최원(崔原)으로 군대를 모아서 수원(水原)에 당도하였고, 조헌(趙憲)·고경명(高敬命)도 또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왕은 산숙(山燾) 등을 안으로 들라 이르고 “내 부덕(不德)한 죄로 너희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천 리길의 적중(賊中)을 뚫

고 찾아 왔으니 부끄러워 무슨 말을 하랴.” 고 위로하였다. 이에 산숙(山濤)은 “김천일(金千鎰)이 거느린 군병에 정용(精勇)된 자가 비록 많기는 하나 반 이상이 유생들로 오로지 충성과 의분으로 일어섰을 뿐 성패(成敗)는 천운(天運)에 맡기고 있습니다.”고 아뢰니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충의(忠義)가 물결치는 곳에 무슨 일인들 성공치 못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광현(郭賢)이 또 아뢰기를 “신(臣)은 본래 조헌(趙憲)과 우의(友誼)가 돈독(敦篤)하였습니다. 신(臣)이 거사(舉事)한 뒤에 헌(憲)이 말하기를 근자(近者)에 천문(天文)을 보니 우리나라는 멸망(滅亡)의 비운(悲運)은 없으니 필경에는 왜적이 뜻을 얻지 못하고 물러가리라고 합니다.” 하니 왕은 그게 과연 아무개(趙憲)의 말이었냐고 반문(反問)하였다. 헌(賢)은 또 아뢰기를 “기축년(己丑年 : 선조22년)에 조헌(趙憲)이 북도(北道)에 귀양을 가서 있으면서 역변(逆變 : 정여립 사건)이 일어날 것을 벌써 미리 알았고, 또 신미년(辛未年 : 倭亂前年)에 나라가 큰 변란이 있을 것이니 난을 피하여 살만한 곳을 미리 강구해 두라고 명언(明言)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천문(天文)을 볼 줄 안다는 것을 증거(證據)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그의 말이 이렇듯 사실에 부합(符合)되느냐?” 하시며 기뻐하는 안색을 보이고 드디어 김천일(金千鎰)을 판결사(判決事)로 삼아 창의사(倡義使)라 부르게 하고 고경명(高敬命)도 초토사(招討使)라 칭하게 하며 모두 교서(敎書)를 내리셨고 또 조헌(趙憲)에게 내린 교서(敎書)에 “충신(忠臣)의 충언(忠言)을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날 여기에 이르렀다.”는 후회(後悔)의 말이 있었다.

#### 4. 죽음으로 승리한 금산전투

조현이 근왕(勤王)하기 위해 청주에서 북상길에 오르려던 8월 10일경인 당시 상황은 이미 왜군들의 주력부대가 평안도와 함경도를 손아귀에 넣은 뒤였고, 나머지 서울 이남의 경상, 경기, 충청우도, 전라우도 등지에는 잔여 수비부대가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조현은 청주를 떠나 온양에 이르렀다. 조현이 이 길을 택한 이유는 그때까지 서해안 일대가 왜군의 수중에 들어가 있지 않아 별다른 싸움 없이 진군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략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현이 근왕(勤王) 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접한 순찰사(巡察使) 윤선각은 청주성 전투에서의 자신의 과오(過謬)와 비행(非行)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장덕개란 선비를 시켜 조현의 북상을 저지시키려 하였다. 의병장 고경명이 전사한 뒤로 금산에서 왜적이 더욱 창궐하여 장차 호남과 호서에 침공할 것 같으니, 관군과 힘을 합쳐 금산을 점거한 왜적들을 토벌한 다음에 근왕해도 늦지 않다고 설득하였다. 그 뿐 아니라 조현의 휘하 부장들까지도 수시로 찾아와 금산, 무주 등지의 왜적을 토벌하는 것이 상책(上策)이라고 주

장하였다. 이에 조헌은 순찰사의 제언(提言)이나 여러 부장들의 권고가 일면 타당하여 금산으로 진군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조헌은 공주에 있는 순찰사(巡察使) 윤선각을 만나 금산 토벌 계획을 서로 의논하였으나 그는 관군에게 불리하여 자신의 군대를 내놓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음의 약속을 파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병에 참여한 장정들은 물론 그들의 부모와 처자를 잡아 가두는 등 의병 모집을 방해하였다. 조헌은 순찰사의 비겁한 배반 행위가 몹시 패شم했고 피가 거꾸로 솟도록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으나, 당시의 사정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알고 금산으로 진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순찰사의 지속적(持續的)이고 계획적(計劃的)인 방해로 의병 모집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그를 따르 사람은 고작 7백 명뿐이었다.

금산을 향해 행군해온 조헌은 회덕을 거쳐 유성에 진군하여 영규대사(靈主人師)가 이끄는 승병(僧兵)과 다시 합세하였다. 조헌과 영규 휘하의 군사들은 8월 17일 유성에 이어 복수면을 거쳐 이날 저녁 무렵 금산성 10리 밖에까지 진군하게 되었다. 의병과 승병들은 공주에서부터 2일간의 먼 길을 계속 행군하여 왔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몹시 피로해 있었다. 그러나 금산에 당도한 의병장 조헌과 승장(僧將) 영규는 왜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시각도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곧 진지 구축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권율의 관군이 지원해 오기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조헌은 편지로



금산혈전순절도: 조헌 선생과 영규대사가 이끄는 칠백의사가 1592년 8월 18일 금산 연근평에서 최후의 일인까지 적과 싸우다가 장렬히 순절하는 장면이다. 8월 18일 새벽, 왜적은 아군의 수효가 얼마 되지 않고, 후군이 없는 것을 탐지, 사방으로 포위하고 3대로 나누어 번갈아 가면서 치열한 공격을 해왔다. 이때 왜적은 조총 등으로 무장되어 있었으며 아군은 활과 칼 그리고 창과 농기구 등으로 적과 맞서게 되었다. 세 번 공격해 온 적을 세 번 다 무찔러 금산 별판에는 인마의 신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고, 선혈은 낭자하였다. 의병들은 전상을 입고도 다시 일어나 화살이 다하면 칼과 창을 잡고, 칼과 창이 부러지면 돌로 치는 처참한 육박전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저마다의 능력을 다하여 진중일 분전하였으며 칠백의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도 대열에서 벗어나거나 후퇴함이 없이 적을 무수히 무찌르고 전원이 옥쇄하고 말았다.

권율과 합세하여 8월 18일 금산의 적을 도벌하기로 약속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율은 그 약속 날짜를 바꾸자는 글을 조헌에게 써 보냈으나 이 글이 도달하기 전에 그는 이미 이곳에까지 와 있었던 것이다.

조헌과 영규의 군대는 금산성에서 북쪽 5리쯤 떨어진 연곤평을 끼고 있는 경양산 뒤에 진을 치고 군대를 남북으로 포진하였다. 조헌은 영규대사에게 글을 보내 날이 밝는 아침에 일제히 성을 협공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영규대사와 휘하 부장들은 판군의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약한 우리 군사로 많은 수의 정예부대인 왜군과 대결하는 것은 승산이 없는 일이라고 결전을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였다.

그러나 조헌은 적은 본래 우리와 대적할 만한 상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速戰速決)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격양된 충의(忠義)와 사기에 편승코자 함이니 목숨을 아끼지 말고 끝까지 싸워 살신호국(殺身護國) 할 것을 고집하였다. 그의 확고부동한 충의(忠義)에 찬 결의에 영규와 부장들도 감동되어 필사무퇴(必死無退)의 정신으로 전투에 임하기로 하였다.

다음 날 적들은 우리의 진영(陣營)을 포위하여 선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였다. 여러 곳에서 공격하여 오는 적과 맞서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조헌을 비롯한 부장 이광륜, 임정식, 이려, 곽자방, 박충검, 기절, 박현령 등 7백 의사는 저마다 최후의 일각까지 분전하였으나 전원 장렬한 최후를 마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때 조헌의 나이 48세였다. 비록 우리 전군(全軍)이 불꽃으로 싸우다 모두 순절하였으나 적병의 타격 또한 만만치 않았다. 적병은 죽은 병사(兵士)가 너무도 많았고 기세도 크게 꺾인 채 그

들의 본 진영으로 돌아갔다. 그 뒤 슬피 우는 소리가 벌판을 진동하였다는 것을 보면 의병군(義兵軍)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저항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왜적(倭賊)은 3일 동안이나 병사의 죽은 시체를 자기 진영으로 운반하였으나 다 거두지 못하고 거둔 시체만을 불태운 채 무주에 주둔하고 있는 주력부대와 함께 달아나 버렸던 것이다.

이와 같이 치열한 금산성 싸움이 있은 뒤 호서와 호남 지방은 왜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나라를 회복하는 기틀이 되었으니 이 싸움에서 혈전하다 돌아간 7백 의사의 전공(戰功)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임진왜란 초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헌과 그의 문생들이 강한 결속력으로 의병전쟁(義兵戰爭)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기 양반 사대부들이 지방에 거주하면서 향촌사회를 보존하는 지도자 역할과 나아가 근왕정신(勤王精神)으로 표시되는 유교이념(儒敎理念)에 대한 이해를 당시의 국가의식 즉 충군의식(忠君意識)으로 표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헌의 의병 활동은 불과 한 달 여의 기간이었지만 청주성과 금산전투에서 보인 절의정신(節義精神)은 이후 지속적(持續的)인 의병활동(義兵活動)의 지표가 되었다. 칠백의사(七白義士)의 장렬한 최후의 소식이 각 지방에 전해지자 유족(遺族)은 물론 화(禍)를 면한 사람들도 오랫동안 소식(素食)을 하며 의사(義士)들의 순절을

에도하였다.

이 금산 전투는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봉은 사전에 전황의 불리함을 알았음에도 절의정신(節義精神)을 구현한 싸움이었다. 절의정신의 표방은 당시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격이기는 하지만 충의의 신념을 실천에 옮긴 중봉에게 있어서는 더욱 투철했던 것이다. 따라서 중봉의 금산전투는 곧 사림과 관군·의병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것이며 임진왜란 초기에 적의 세력을 꺾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둘째, 중봉은 호서와 호남지방을 국가의 부고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금산전투로 인해 왜군의 이 지역에 대한 공략을 저지함으로써 우리의 곡창지대를 안전하게 보존하였다. 금산을 교두보로 하여 호서·호남지방을 진출하려던 왜군의 주력부대가 중봉과의 금산전투에서 커다란 손실을 입음으로써 이순신의 남해안 제해권 장악과 더불어 수륙양면에서 차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사들에게 군량의 지속적인 보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데 기반을 제공하였다.

셋째, 금산전투는 중봉 의병부대의 패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것이었다. 고바야가와가 이끄는 일만의 최정예부대가 커다란 손실을 입음으로써 호남 공략을 포기하고 영남지방으로 퇴각하였던 것이다.

넷째, 중봉의 금산전투는 그의 첫 싸움인 차령싸움과 같은 향토

방위의 소극적 전투가 아니라 근왕과 국가수복이라는 거국적 차원의 전투였다.

다섯째, 의병·관군·백성이 합심하여 총력을 다 해야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평상시 외침에 대비한 방어대책이 소홀했던 점과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 관군과 의병간의 공조체제 구축이 실패함으로써 중봉과 칠백의사가 모두 적에게 죽음을 당하는 쓰라린 고통을 남겼던 것이다. 더 나아가 민족의 단결된 힘만이 사전에 외침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전란이 일어난다 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금산 전투가 끝난 후 조현의 동생 범(範)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움터에 들어가 보니 조현은 의자(義字)의 깃발 아래 쓰러져 죽어 있었으며 그 곁에는 장수와 사졸들이 서로 둥글게 모여 베고 죽어 있었다고 한다. 범(範)이 형의 시체를 등에 업고 옥천으로 돌아와 빈소를 차리니 숨진 지 4일이 지났어도 그 얼굴빛이 꼭 살아있는 사람과 같았다고 전해진다. 돌아가신 후에도 애국충절(愛國忠節)의 기개가 도도하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리라.

중봉의 시신은 당시 옥천(沃川) 안읍(安邑) 도리동(道理洞)에 모셔 있었다. 현재 이곳의 행정구역(行政區域)은 옥천군(沃川郡) 안내면(安內面) 도이리(道李里)로 개칭되어 있지만 임진왜란(壬辰倭亂) 전 안내(安內: 지금의 안내면) 밤티(栗峙: 지금의 용촌리(龍村里))에 있던 후율정사(後栗精舍)가 옮겨져 후율당으로 남아 있고 후율당 안에는

중봉의 아들 완기(完基)의 효자각(孝子閣)이, 이곳에 가까운 언덕바지에 완기(完基)의 묘소(墓所: 초혼장[招魂葬])가 있다.

이곳에 모신 중봉의 묘소는 후에 다른 곳으로 옮겨져 지금은 밭으로 변해있지만 그 옛날 묘소 밑에는 표충사(表忠祠)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



중봉 조헌 선생 묘 : 충북 옥천군 안남면 도농리 산63-1 소재. 이 묘역(墓域)은 330㎡(100평) 정도이고 상석(床石), 문인석(文人石), 망주석(望柱石)이 있으며, 묘비(墓碑)는 봉분 앞 좌우에 두 개가 서 있는데 하나는 우암 송시열(右菴 宋時烈) 선생이 현재 이곳으로 이장을 하면서 중봉 선생의 공적을 기록한 것이다. 원래 중봉 선생 묘소는 1592년 선조(宣祖) 25년 8월 18일 금산(錦山) 싸움에서 칠백의사와 함께 순절하시자 그의 아우 조범(趙範)이 시체를 거두어 옥천에 돌아와 8월 23일 옥천군 안읍(安邑 : 安內面) 도리동(道理洞)에 장사를 모셨다가 1636년 인조(仁祖) 14년 10월 20일에 현 위치로 이장하였다.

몇 해 전만 해도 이곳 후율당(後栗堂)은 건물이 낡고 담장도 군데군데 헐리어 있었으나 지난 1977년 옥천군(沃川郡)에서 3천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후율당과 담장 등을 완전 개축, 말끔히 다듬어 놓았다.



후율당 : 충북 옥천군 안내면 도이리에 있는 조선시대 문신 조현의 사당. 충청북도 기념물 제13호. 1588년(선조 21) 조현이 율곡 이이의 후학임을 자처하여 자호(自號)를 후율이라 하고 후율당을 세워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가 죽은 뒤 사당이 되었다. 원래는 옥천군 용촌 밭터에 있던 것을 1854년 안내면 백양리로 이 건하였다가 1864년 현 위치로 이전한 뒤, 1977년 정화사업으로 전면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임진왜란 때에는 조현이 이곳에서 의병을 일으켜 1,700명을 규합, 영규의 승병과 함께 청주를 수복한 공을 세웠던 곳이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목조기와 팔작집으로 공포양식은 익공계이다. 전체규모는 건평 10평이며 겹처마로 되어 있다. 솟을삼문과 막돌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뜰에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목조기와 맞배지붕의 효자각이 있는데 조현의 아들인 완기의 효자 현판이 걸려 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주로 활동한 담정 김려가 쓴 사유악부<sup>75)</sup>에 “중봉 조헌의 사당”이란 시에 보면 중봉 사후 유적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 있다.

### 중봉 조헌의 사당

문노니 너 무엇을 생각하느냐  
북쪽의 바닷가를 생각하노라

임명의 중봉 사당 적막하기 그지없다  
단청 남아 벗어진 채 빈 산속에 놓였구나.  
이곳 사람들 북에 사나 남인들을 숭상하여  
중봉은 낮보면서 미암<sup>76)</sup>만을 내세우네.  
백발머리 검은 유건 사당지기 누구인가  
텅 빈 사당 지키면서 향불을 사르누나.  
나를 보자 그 늙은이 절하고서 가리키네.  
말라죽은 소나무의 이끼 덮인 뜨락들을

공주<sup>77)</sup>고을 동강<sup>78)</sup>사당 부러운 듯 말하누나.  
당집도 화려하고 설비 또한 많더라고

(회령에는 미암 류희춘의 사당이 있고 종성에는 동강 김우용의 사당이 있다.)

75) 오희복 역, 『김려작품집』, 문예출판사, 1990, pp.146~147.

76) 류희춘의 호

77) 종성의 판이름이다.

78) 김우용의 호

금산성(錦山城) 싸움이 끝난 4일 후 중봉의 제자 박정량(朴廷亮)과 전승업(全承業) 등이 순절지(殉節地)인 경양산(景陽山) 양지바른 곳에 7백의사의 시체를 모아 한 무덤에 모시고 칠백의총(七百義塚)이라 이름하였다.

중봉은 비록 만년에 벼슬길에 떠나있는 몸이었지만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울 때 분연히 일어나 의병을 일으키고 규합(糾合)하였으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초개(草芥)와 같이 조국과 민족의 제단(祭壇)앞에 바친 구국의 사표(師表)였다. 중봉이 7백의사와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그를 흠모(欽慕)하고 아끼던 사람들은 서로 다투어 그의 넋을 기리었다. 그의 제자 전승업(全承業)은 제문(祭文)을 지어 이렇게 애통(哀痛)해 하였다.

슬프다! 선생이 어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나와 상별(相別)한 뒤로 열흘도 못 되는 사이에 아버지는 충(忠)을 위하여 죽고 아들은 효(孝)를 위해 죽었으며 7백명 사졸(士卒)은 흩어질 생각 없이 같은 날 함께 죽었습니다.

슬프다! 선생은 두어 달도 못되는 사이에 능히 사람의 마음을 감화하고 감동시켜 선생을 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함이 이와 같았습니까?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만약 하늘이 선생에게 두어 달 동안의 목숨을 연장케 하였더라면 곧 한 나라의 남녀노소들로 하여금 모두 선생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였을 것입니다.

전 전횡(田橫)의 사사(死士) 5백명도 실로 천고(千古)에 드문

일어거늘 누군가 운수(運數)가 비색(否塞)한 세상에 능히 의(義)를 중히 여기고 생(生)을 홍모(鴻毛)와 같이 가볍게 여기는 자가 천명에 이르기를 생각하였으리오!

이는 선생의 충의(忠義)와 의리(義理)의 크나 큰 절개(節概)가 사람의 마음속에 본래가 지니고 있는 철리(哲理)를 격려하는 바 있어 그림자와 소리의 상응(相應)함 보다 빠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의총(義塚) : 사적 제105호. 1592년(선조 25) 8월 18일의 제2차 금산싸움에서 조헌·승장(僧將) 영규(靈圭)·참봉 이광륜(李光輪)·만호 변계(邊繼) 등 700의 사가 장렬한 전사를 하자 조헌의 문인(門人)인 박정량(朴廷亮)과 전승업(金承業)이 이곳에 유골을 모아 큰 무덤을 만들고 '칠백의총'이라 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충의(忠義)로 몽친 조헌 선생과 영규대사가 이끄는 의병들은 1592년 8월 1일 청주성을 탈환하고 온양, 유성을 거쳐 8월 17일 저녁에 금산에 도착, 적과 마주치게 되었다. 다음 날 8월 18일 적은 새벽부터 3대로 나누어 포위 공격해 왔다. 이때에 아군은 이 싸움에서 불리한 것을 깨닫고 일부에서는 일시 후퇴할 것을 논의한 바 있었으나 나라의 위급을 막고 신의(信義)를 지키기 위하여 오직 의롭게 싸우다 죽을 것을 서로 맹세한 의사들은 세 번이나 적을 격퇴시키는 혈전 끝에 마침내 전원이 옥쇄하고 말았다. 이 격전으로 적의 피해도 대단히 컸고 겁이 난 적은 호남 진출의 꿈을 버리고 영남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 슬프다! 사람이 한 세상을 사는데 누가 능히 오래도록 생존(生存)할 수 있으리오. 일찍 죽거나 오래 살더라도 고루 한 번의 죽음은 있는 것이니 죽는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열렬한 대장부의 죽음은 마땅히 이와 같은 것이거늘 내가 또 무엇을 한(恨)하리오……

또 송강(松江) 정철(鄭澈)은 중봉을 잃은 애도의 심정을

나의 친구 여식(汝式)이여-공자(孔子) 안자(顔子:공자의 제자)의 학(學)을 배워 그 행의(行誼)를 사모하고 원래부터 곧게 죽고자 하더니 필경 절의(節義)에 죽었도다. 아-슬프다! 여식(汝式)이여.

라고 탄식(歎息)하였다. 또 석주 권필은 “중봉 조선생의 돌아가심을 슬퍼하여”라는 시에서 조현의 강직한 성품과 충절을 높이 기리고 있다.

몇 번이나 나라에 바른 말을 올렸던고  
어두운 이 세상에 혼자 잠을 깨었었지

이전부터 알았어라 높은 채주 지니고서  
조정에 구차히 용납될 수 없다는 걸

강직한 님의 기상 은 누리에 서려 있고  
거룩한 님의 충절 햇빛처럼 빛나누나.

거룩하고 높은 금산의 낮은  
청사에 길이길이 변함없이 푸르리.

중봉이 순절(殉節)한 지 4개월 만인 1592년 11월 나라에서는 살신호국(殺身護國)한 그의 공을 높이 치하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 동지경연(同知經筵) 춘추관(春秋館) 의금부사(義禁府事)에 증직(贈職)하였다.

11년 후인 1603년(선조36년) 호남(湖南)과 호서(湖西) 지방의 유사(儒士)들이 금산의 순절한 곳에 순의비(殉義碑)를 세웠으니 그 비문은 다음과 같다.

아아! 이곳은 참판(參判)의 관직(官職)을 추증(追贈)받은 조(趙) 선생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곳이며 죽음을 같이한 부하 여러 동지(同志)들의 유체(遺體)가 묻혀 있는 곳이다.

선조(宣祖) 임진(壬辰)년에 왜란(倭亂)이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니 우리 군대는 가는 곳마다 패배(敗北)하여 그들을 대항(對抗)할 사람이 없었다.

왜적(倭賊)은 드디어 승리(勝利)한 기세(氣勢)를 이용하여 바로 치몰아 들어와서 곧장 한강(漢江)을 건너섰다.

서울 개성(開成) 평양(平壤)이 모조리 함락(陷落)되고 임금께서는 의주(義州)까지 후퇴하였으나 아무도 임금을 위하여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선생은 옥천(沃川) 시골집에서 있다가 옷소매를 걷어 부

치고 일어나서 피눈물을 흘리며 격문(檄文)을 써서 돌리어 의병(義兵)을 모집하였다)로 시작하여 [... 순찰사(巡察使)의 방해(妨害)로 선생의 부하 군대들은 모여들었다가 다시 많이들 흩어져 돌아가고 다만 7백명의 의사(義士)만이 선생을 따라 목숨을 비칠 각오를 할 뿐이었다. ... 적(敵)들은 기세가 더욱 험악(險惡)하여 금삼(錦山)을 점령하고 있었으나 아무도 그들 적을 막을 자가 없었다.

선생은 우리의 군대를 격려(激勵)하며 하루 빨리 이들을 섬멸하기 위하여 용감히 적진(敵陣)을 무찔러 들어갔다. 장시간(長時間)에 걸친 피나는 전투 끝에 화살은 없어지고 갈 길은 막혔는데도 북소리는 오히려 최후의 일각을 재촉하였다.

힘에 지치도록 적을 살상(殺傷)하여 임금의 은혜(恩惠)에 보답(報答)하였으니 싸움은 패(敗)하였으나 사실은 이긴 것(勝)이다.

임금을 위하여 죽는데 무엇을 회피(回避)하며 스승을 따라서 싸우는데 무엇을 슬퍼하라. 장렬(壯烈)하도다! 온 진영(陣營)의 순국(殉國)이여! ... 여기에 묻힌 영령(英靈)들이여 영원히 살아 계신 듯 하여라)로 끝나 살신호국(殺身護國)한 중봉과 7백의사(七百義士)의 충절(忠節)과 님을 만세에 기리고 있다.

나라에서는 1604년(선조37년)에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으로 공신록(功臣錄)에 올랐으며 1649년(인조[仁祖]27년) 문열공(文烈公) 시호(諡號)에 이어 1754년 영의정(領議政)을 증직(贈職)하였다.

이렇게 나라에서는 중봉에게 시호(諡號)를 내리고 1등(一等) 공신(功臣)으로까지 추대를 하였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순의비각(殉義碑閣): 이 비는 임진왜란 당시 조헌 선생과 영규대사가 이끄는 칠백의병이 청주성을 수복하고 금산싸움에서 순절하시까지의 사적이 새겨져 있으며 1603년 즉 칠백의사가 돌아가신 11년 후에 그 당시 해평부원군인 윤근수가 글을 짓고 김현성의 명필로 칠백의총 옆에 건립하였던 것인데, 1940년 일제의 항일유적말살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금산 경찰서장 이시카와 미찌오에 의하여 폭파되었다. 이 비가 폭파될 때에 갑자기 하늘에는 먹구름이 뒤덮히고 뇌성벽력이 천지를 진동하여 일본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후 이곳 유림들이 그들의 눈을 피하여 산산조각이 난 비석을 모아 땅 속에 묻어 두었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다시 파내어 보관하여 오던 중, 1971년 이곳을 성역화 할 때에 깨어진 조각을 다시 붙여 복원하고, 순의비각을 건립하여 영구히 보존토록 하였다.

이 비각 좌편에 있는 한글비는 1976년 경역확장 및 재조경 당시 옛 비문을 한글로 풀이하여 일반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비문 가운데 한 구절을 소개하면 “이것은 부서졌을망정 완전한 것이며 죽어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들의 신체는 모두 일그러졌으나 그들의 정신은 완전하며 그들의 님은 하늘로 올라갔도다. 기운을 날리며 소리를 질러서 번개도 되고 우레도 되어 그 소리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저 침략자들을 소탕하고 남방의 지역을 방어하니 국가는 비로소 평화가 깃들었다.”라고 새겨져 있다. 현재 의총 옆에 있는 비는 1963년에 금산군민의 성금으로 다시 세워졌다.

중봉과 7백의사들이 문헌 묘소 관리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중봉이 옥쇄(玉碎)한지 40여년이 흘렀을 즈음 의총(義塚)에는 가시넝쿨이 무성하게 번져 덮여있고 계단도 무너져 평평하여 졌을 뿐 아니라 밭을 일구느라 쟁기의 보습이 미치지 못한 것이 겨우 한 자 가량 남아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날씨가 음산(陰散)하고 비가 오는 밤이면 이 의총(義塚)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울음소리가 그치면 통분해 하는 아우성 소리가 몇 개의 들판을 건너 먼 곳에 까지 이르러 세월이 여러 번 바뀌어도 조곡(弔哭)하고 제사(祭祀)를 지내미 없어 그들의 충성스런 분노가 그때까지도 풀리지 않았다고 전해오고 있다.

마침내 인조(仁祖) 12년(1634년)-당시 금산군수(鎭山郡守)였던 김성발(金聲發)과 제원역찰방(濟原驛察訪) 조평(趙平)이 의총(義塚) 주변 사람들로 부터 이런 사실을 전해 듣고 직접 칠백의총(七百義塚)을 답사한 뒤 호남과 호서의 유생들의 힘을 얻어 순의단(殉義壇)을 설치하여 제향(祭享)을 지내기 시작하였다.

이때가 중봉과 7백의사가 순국한 지 꼭 42년만의 일이었고 그 후 19년이 지난 1653년(효종 4년)부터는 나라에서 해마다 예조(禮曹)의 대신(大臣)들을 의총(義塚)과 종용사(從容祠)에 보내 제사(祭祀)를 지내도록 하였다. 경내(境內)에는 의총(義塚)과 일군순의비(一軍殉義碑) 종용사(從容祠) 기념관 등이 있으며 기념관 안에는 중봉의 문과급제교지(文科及第教旨)와 31세 때 질정관(質正官)이 되어

명(明)나라에 사신(使臣)으로 가고 오며 쓴 조천일기(朝天日記), 화살통, 선조(宣祖)가 의주(義州)에서 중봉이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크게 무찌르고 있다는 소식을 양산숙(梁山燾)과 곽현(郭賢)으로부터 듣고 “힘을 다하여 왜적을 토벌(討伐)하여 나로 하여금 환도(還都)케 하라”라는 내용의 교서(敎書)와 1883년(고종 20년) 유학자의 최고의 영예인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는 교서(敎書), 영조(英祖) 16년(1740년) 7월 18일 발간된 중봉집(重峰集), 중봉의 언행(言行)과 봉사(封事)를 간추려 기술한 항의신편(抗義新編)<sup>79)</sup> 등 유물(遺物)이 보관 보존(保存)되어 오고 있다.

또한 충북(忠北) 옥천군(沃川郡)에서는 중봉의 높은 뜻을 기리는 한편 현재 국가적인 차원(次元)에서 펼치고 있는 충효사상(忠孝思想) 고취에 발맞추어 중봉과 유서(由緒)가 깊은 옥천(沃川)에서 제1회 중봉충렬제(重峰忠烈祭)를 지난 1976년 성대히 베푼 이래 이를 거도(擧道)적인 연례행사(年例行事)로 치르고 있다. 올해까지 33회를 치른 이 행사는 매년 9월 중에 이틀간 진행하여 중봉의 우국충정을 선양하고 있다.

중봉이 순절(殉節)한 지 어언 4백 16여 성상(星霜)이라는 기나 긴

79) 임진왜란 때 순절한 조헌(趙憲)의 유문(遺文) 및 행록(行錄)을 수록한 책으로 4권 2책으로 되어 있다. 1619년(광해군11) 판각(板刻)에 착수, 1621년(광해군13)에 완성. 청절왜사봉사(淸絶倭使封事), 청참왜사봉사(淸斬倭使封事) 등의 여러 글과 궁경양친도(躬耕養親圖) 등 9圖를 책머리에 붙이고 편자의 서발(序跋)이 들어있다.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그의 의(義)와 충(忠) 그리고 나라를 위해 마침내 살신호국(殺身護國)한 높고 높은 푸른 절개(節概)는 오늘에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되살아나 숨결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이 사람에게 착한 마음 점지(占指)하실 적에  
중화(中華)라 하여 풍성하게 주지 않고 오랑캐라 하여 인색(吝嗇)하게 주지 않았도다.

선생이 이를 받으사

효도로써 이들의 법(法)을 삼으시고 충(忠)으로써 신하의 법을 삼으셨다

이 마음을 다 같이 가진 자가

누구인들 감복(感服)하지 않으리요

일이 만 가지로 다르고

이치(理致)가 한 가지가 아니어서

산(山) 머리의 구름은 쉽게 걷히건만

임금님의 총명은 오히려 흐렸었고

사나운 고기도 길들일 수 있건만

간사한 마음들은 고쳐지기 어려웠네.

임진(壬辰) 계사(癸巳) 그 무렵에 천지(天地)가 번복되자

선생의 한 몸으로 지극한 인간상(人間象)을 혼자서 도맡았다

왜사(倭使)를 목 베라고 위태로운 말을 하니

위아래 모두가 얼굴빛을 잃었었고

피나는 울음으로 군중에게 맹세하니

의리 있는 군사가 구름처럼 모여섰다

상당(上黨)<sup>80</sup>에서 전투할 때 왜놈들 뉘 잃었네  
 승리한 보고 듣자 온 조정이 기뻐했네.  
 두 번째로 금산(錦山)싸움 화살처럼 다가갔다  
 군사(軍士)는 용감(勇敢)해서 적을 많이 죽였는데  
 하늘은 어찌하여 악(惡)한 자(者)를 두둔하나  
 구름은 해를 가리고  
 군사는 화살이 떨어졌네.  
 부자(父子)가 크게 고향치니  
 (……)

보라 여기는 민족의 혼(魂)이 깃든 천추(千秋)에 전할 거룩한  
 피의 제단(祭壇)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나라가 온통 도탕(塗  
 蕩)에 빠졌을 때 중봉(重峰) 조헌(趙憲)선생과 영규대사(靈圭大師)  
 가 뜻을 같이한 7백명 의사(義士)들과

금산성(錦山城) 밖 연곤평(筵崑坪) 너른 들에서 왜적에 항전(抗  
 戰) 파나게 싸운 끝에

모두 다 옥쇄(玉碎)하니 8월 18일  
 의골(義骨)을 모아 한 무덤에 모시고  
 칠백의사총(七百義士塚)이라 이름 한 뒤부터  
 대대로 이 땅 거래의 자손들이  
 마음의 예배(禮拜)를 바쳐 왔었다.  
 그러다 일제시대(日帝時代)에 이르러서는  
 분묘사당비(墳墓祠堂碑)들이 모두 헐리어  
 풍우(風雨) 속에 버린 곳이 되었다가  
 해방후 임진(壬辰) 6주갑(六周甲)되는 해에  
 군민(郡民)들의 성력(誠力)으로 재건(再建)했더니

80) 청주(淸州)에 있는 성(城)으로 여기에서는 청주싸움을 말한다.



일군순의탑

다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大統領)의 특지(特旨)로  
묘역(墓域) 전체를 보수정화(補修淨化)함으로써  
마침내 새 면모(面貌)를 갖춘 것이니  
이는 실로 빛나는 큰 업적이라  
만세(萬歲)에 영원히 전(傳)할 것이다라고 추모(追慕)하였다.  
(1971년 4월 칠백의총 증수기념비문 내용)

## V. 다시 증봉 조헌을 위하여

증봉은 그의 뛰어난 식견과 강렬한 애국충정에도 불구하고 불우한 일생을 보냈다. 특히 불의와 타협하지 못하는 강직한 기질로 인하여 그의 주장이 과격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조정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적들의 핍박을 받았다. 그러므로 살아 있을 때, 증봉을 아는 사람도 ‘현실을 모르는 우월한 사람’이거나 ‘의기에 비분강개하는 고지식하고 우직한 사람’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순절한 뒤에도 “이름을 낚기 위한 죽음(釣名而死)”이라는 혹독한 평가까지 있었으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증봉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뒤따르고 존숭자(尊崇者)가 수 없이 이어졌다.

증봉의 민본주의에 기반을 둔 개혁사상은 실학파인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1622~1673),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1731~1783),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1750~1815) 등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담헌은 정조(正祖)에게 “지극히 공변되고 정성되며 오류가 전부 갖추어짐은 천고에 비길 데 없으며, 그 실천함이 이와 같으니 그 학문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특히 박제가는 그의 『북학의(北學議)』 서문에서 어려서부터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 857~?)과 증봉을

사모하여 왔음을 지적하고, 이 글을 지은 것은 중봉이 명나라를 다녀온 뒤 중국의 선진문물을 본받아 조국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지은 『동환봉사』의 뜻을 계승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봉의 실천적 의리사상은 후세에 많은 도학자들에 의하여 선비의 표본과 민족의 사표로 존송되었다.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1570~1652)은 중봉을 평하여 “국가가 이백년 간 인재를 양육한 이래 선조조에 이르러 충효와 절의와 도학을 겸비한 한 사람이다”라고 평하였다. 은봉(隱峯) 안방준(安邦俊:1573~1654)은 생전에 중봉을 만난 일이 없지만 순절한 이후에, 중봉의 도학사상과 의리사상을 흠모하여 그의 호를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1337~1392)의 ‘은’자와 중봉의 ‘봉’자를 합하여 ‘은봉’이라고 하였으며, 항상 그의 사적이 민멸하여 후세에 전해지지 못할 것을 근심하였다. 그리하여 은봉은 여러 해 동안 중봉이 남긴 글과 언행록들을 수집하여 1613년 『항의신편』을 간행하였다. 또한 중봉이 명에서 돌아와 상소한 「팔조소」와 뒤에 작성한 「의상십육조소」를 합쳐 『동환봉사(東還封事)』라는 이름으로 1622년 간행하였다. 이 동환봉사의 발문(跋文)에서 은봉은 “이때 선생의 나이는 겨우 30이었는데 그 견식과 학문은 이미 공명정대한 경지에 이르렀으니 실로 우리나라 역사 이래 수천 년 동안에 있어서 보기 드문 영재이며 뛰어난 진유(眞儒)이다”라고 평하였다. 이와 같은 은봉의 지극한 정성과 노력에 대하여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1556~1618)은 “중봉의 사상과 충절은 은봉

이 아니면 거의 인멸되어 전해지지 않을 뻔 했다”고 논하였다.

또한 중봉의 국가를 위한 충절과 대외적 저항의식은 병자호란을 전후하여 청의 무력적 침략과 굴욕적 화약(和約)에 항거한 청음을 비롯한 척화 삼학사(三學士)들의 의기(義氣), 한말(韓末)에 서양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항하여 척화(斥和)를 주장한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1798~1868)의 위정척사사상(衛正斥邪思想),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국권의 상실에 이르자 항일 의병을 일으켜 국권의 회복과 민족의 자존을 확립하고자 고군분투한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1833~1906)과 의암(毅庵) 유인석(柳麟錫:1842~1915) 등의 의병정신 등에 이르기까지 호국정신과 민족정기의 맥락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갔던 것이다. 항일기 민중들 중심의 3·1운동과 국내외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항일독립운동의 찬연한 역사 역시 중봉의 건위수명 하는 의지가 면면히 이어진 자랑스런 역사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중봉의 사상과 의기 그리고 우국충정과 애민정신은 우리 역사의 숨결로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역사의 참 모범을 몸소 실천한 중봉을 우리가 계승하는 올곧은 길은 오늘날에 그를 끊임없이 환기하는 일이다. 제 아무리는 무질서하고 복잡다단해 보이는 오늘의 사회 속에서도 원칙은 있는 법, 작은 실천 속에서도 중봉을 떠올리는 일이 그를 선양하는 길이며, 중봉을 오늘에 살게 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 여 백

## 年譜

◇ 1544년(中宗 39年 甲辰) 6월 28일

사시(巳時) 김포시(金浦市) 서쪽 감정동(坎井洞)에서 출생하였다.

◇ 1548년(明宗 3年 戊申) 5세

어려서 김포(金浦)의 임정(林亭)에서 글을 읽을 때 큰길로 고관(高官)의 행차가 지나자, 글방 아이들이 모두 구경하려 하였으나 홀로 의연히 앉아 글을 읽었다. 이에 고관이 크게 기특히 여기고 장차 큰 학자(學者)가 될 것을 예언하다.

◇ 1551년(明宗 6年 辛亥) 8세

어려서부터 부모를 섬기는 예(禮)를 알아, 부모의 명(命)이 있으면 반드시 꿇어앉아서 대하고 모든 일을 공경(恭敬)으로 하였으며 집의 발농사를 부지런히 도왔다.

◇ 1553년(明宗 8年 癸丑) 10세

어머니 차씨 부인(車氏夫人)의 상(喪)을 당하여 슬프게 사모하는

모습이 어른과 같았다. 계모(繼母) 김씨(金氏)를 맞아서는 공경(恭敬)과 효성(孝誠)이 지극하였다.

◇ 1555년(明宗 10年 乙卯) 12세

비로소 김황(金滄)에게 시서(詩書)를 수학(受學)하였다.

선생(先生)은 학문(學問)을 좋아하여 한 겨울의 강추위에도 다 떨어진 옷과 신으로 추위를 참고 글방에 다녔다. 밤낮으로 책을 손에서 떼지 않고 발농사 때는 발두렁에 막대를 걸쳐 서가(書架 : 문서나 책 따위를 얹어 두거나 꽂아 두도록 만든 선반)를 만들어 책을 놓아두고 쉴 때에는 글을 읽었다.

◇ 1559년(明宗 14年 己未) 16세

경서(經書)와 시서(詩書)에 몰두하여 침식을 잃다. 참을 알고 실천함에 옛 성현(聖賢)과 같이 하고 늘 격양(激昂 : 기운이나 감정 따위가 격렬히 일어나 높아짐)하여 위우기를 “하늘이 남자(男子)를 낸 뜻이 어찌 우연이리오.”(天生男子之意 豈偶然哉)라 하였다. 요순탕무(堯舜湯武)가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고 공맹정주(孔孟程朱)가 아니면 배우지 아니하였다.

◇ 1561년(明宗 16年 辛酉) 18세

영월 신씨(寧越辛氏) 신세성(辛世誠)의 딸과 혼인(婚姻)하였다.

## ◇ 1563년(明宗 18年 癸亥) 20세

양천강(陽川江, 양화도)을 건널 때 큰바람을 만나 배 안의 사람들은 사색(死色)이 되었으나 선생 홀로 태연하여 웃으며 “죽고 사는 것은 천명(天命)인데 도망치며 울부짖는다 해서 면할 수 있을 것인가”라 하였다. 이때 김후재(金厚載)란 선비가 이 말에 크게 감탄하여, 정중히 인사하고 돌아갔다.

## ◇ 1565년(明宗 20年 乙丑) 22세

성균관(成均館)에 유학(遊學)하였다.

선생이 성균관 유생(儒生)들과 더불어 승(僧) 보우(普雨)의 잘못을 상소하고 여러 달을 대궐문 밖에서 엎드려 기다렸으나 비답(批答 : 임금이 상주문의 말미에 적는 가부의 대답)이 없었다. 이 때 다른 유생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온종일 바르게 앉아 자리를 뜨지 않았다.

## ◇ 1566년(明宗 21年 丙寅) 23세

온성도호부(穩城都護府) 훈도(訓導)에 임명되었다.

## ◇ 1567년(明宗 22年 丁卯) 24세

가을에 감시(監試 : 小科, 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거)와 동당삼장(東堂三場)에 모두 합격(合格)하다.

11월에 병과(丙科) 제구인(第九人)으로 급제(及第)하다. 교서관(校書館) 부정자(副正字)가 되다.

◇ 1568년(宣祖 元年 戊辰) 25세

정주목(定州牧) 교수(教授)에 임명되다. 그곳에서 선생이 교육에 힘을 기울인지 3년 만에 사풍(士風)이 크게 변하였다.

◇ 1570년(宣祖 3年 庚午) 27세

파주목(坡州牧) 교수(教授)로 전근(轉勤) 되다. 우계(牛溪) 성혼(成渾)에게 학문(學問)을 청하다. 우계는 선생을 외우(畏友 : 아끼고 존경하는 벗)라 하였으나 선생은 끝내 스승으로 섬기다.

◇ 1571년(宣祖 4年 辛未) 28세

홍주목(洪州牧) 교수(教授)에 임명되다.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을 찾아 가르침을 청하다. 토정은 선생의 학문(學問)에 크게 놀라고 “그대의 덕기(德器 : 어질고 너그러운 도량과 재능. 또는 그것을 지닌 사람)는 내가 가르칠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양하다. 토정의 권유에 따라 이로부터 성혼(成渾)과 이이(李珣)를 스승으로 섬기고 구봉(龜峰) 송익필(宋翼弼)과 고청(孤靑) 서기(徐起)를 찾아보다.

가을에 이이(李珣)를 파주로 찾아가 뵈고 송도(松都)에 노닐다.

## ◇ 1572년(宣祖 5年 壬申) 29세

교서관(校書館) 정자(正字)에 임명되다.

6월 궁중(宮中) 불사(佛寺) 및 자수궁(慈壽宮) 성숙청(星宿廳)에 향(香)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는 소(疏 : 임금에게 올리던 글)를 올렸다가 삭직(削職)되다.

그 후 이지함(李之菡)과 부여(扶餘)의 강사(江寺)에서 노닐고 두류산(頭流山)으로 서기(徐起)를 찾아 몇 달 동안 학문(學問)을 닦고 돌아와다가 다시 안면도(安眠島)를 구경하다.

## ◇ 1573년(宣祖 6年 癸酉) 30세

교서관(校書館) 저작(著作)에 승임(陞任)되다.

다시 향실(香室)의 직무(職務)를 맡게 되어 또 봉향(封香) 못할 것을 상소(上疏)하니 임금이 진노(震怒)하여 중죄(重罪)로 다스리려 했으나 양사(兩司)와 홍문관(弘文館), 공경대신(公卿大臣)들의 구원(救援)으로 벌을 면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선생의 곧은 말이 세상(世上)에 펼쳐 위로는 조신(朝臣)으로부터 아래는 백성(百姓)에 이르기까지 서로 사귀기를 원하였다.

## ◇ 1574년(宣祖 7年 甲戌) 31세

5월 질정관(質正官)으로서 성절사(聖節使) 박희립(朴希立)과 함께 명(明)에 가다.

5월 10일 서울을 떠나 송경(松京)에 이르러 문충당(文忠堂 : 鄭夢周 祠堂)을 참배하고 박연폭포를 구경하였으며 평양(平壤)에 이르러 기자묘(箕子廟)에 배알(拜謁) : 지위가 높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가 뵈)하다.

6월 26일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요동(遼東)에 이르러 화표주(華表柱)와 정학서원(正學書院)을 찾다.

8월 4일 명나라의 서울에 이르러 9일에 대명전(大明殿)에 들어가 고 17일에 황극전(皇極殿)에서 성절하례식(聖節賀禮式)에 참석하다. 국자감(國子監)에 가서 성묘(聖廟)를 살피고 예부(禮部)에 글을 올려 성묘의 위치(位次: 벼슬의 품계나 벼슬의 차례)를 질문하니 예부 제공(諸公)이 서로 왕복(往復) 논란(論難)하며 감탄하고 칭찬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9월 2일 명경을 떠나 고죽성(孤竹城)에 이르러 백이숙제(伯夷叔齊)의 청성사(淸聖祠)를 찾다.

11월 조정(朝廷)에 돌아와 팔조소(八條疏)를 올린다.

◇ 1575년(宣祖 8年 乙亥) 32세

교서관(校書館) 박사(博士)에 오르고 이어 호조좌랑(戶曹佐郎) 예조좌랑(禮曹佐郎) 및 성균관전직(成均館典籍)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거쳐 12월에 통진현감(通津縣監)에 제수(除授)되다. 주자대전어류(朱子大全語類)를 류희춘(柳希春)과 더불어 교진(校進)하다.

## ◇ 1576년(宣祖 9年 丙子) 33세

이지함(李之藺)이 찾아오다.

## ◇ 1577년(宣祖 10年 丁丑) 34세

겨울 부평(富平)에 도배(徒配 : 徒刑에 처한 뒤에 귀양을 보내던 일)되다. 선생은 통진현감(通津縣監)이 되어 선정(善政)에 힘써 백성을 사랑하고 스스로는 검소하여 옛 폐단을 없애기에 힘쓰니 관리와 백성이 편하게 살게 되었다. 그런데 권세를 믿고 횡행하는 내노(內奴 : 궁노비)의 작폐를 법으로 다스리다가 죽게 되니 간사한 자의 무고로 한 달 동안 구속 후 귀양을 가게 되었다.

## ◇ 1578년(宣祖 11年 戊寅) 35세

정월(正月) 24일 부친상(父親喪)을 당하다. 선생의 본가(本家)는 배소(配所 : 귀양지)에서 몇 십리(十里)밖에 안 되었으나 죄인(罪人)의 몸으로 분상(奔喪 : 먼 곳에서 부모가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돌아감)할 수 없어 아침저녁으로 곡(哭)하니 듣는 이가 모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이지함(李之藺)이 찾아와 조상(弔喪)하다.

## ◇ 1579년(宣祖 12年 己卯) 36세

부평(富平)에서 귀양살이를 하다.

## ◇ 1580년(宣祖 13년 庚辰) 37세

봄에 상복(喪服)을 벗다.

4월에 귀양살이에서 풀리다.

윤(閏) 4월에 보령(保寧)을 찾아 돌아가신 이지함(李之菡)을 제사지내고 명곡서당(鳴谷書堂)에서 수개월 강학(講學)하고 돌아오다.

가을에 해주(海州) 석담(石潭)으로 울곡선생(栗谷先生)을 찾아뵈고 몇 달 동안 강학하다. 돌아올 때 울곡(栗谷)이 호연정(浩然亭)까지 나와 시(詩)를 지어 배웅하였으며 황해도(黃海道) 관찰사(觀察使) 이해수(李海壽)도 전송하러 나왔다.

## ◇ 1581년(宣祖 14年 辛巳) 38세

봄에 공조좌랑(工曹佐郎)에 임명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전라도사(全羅都事)로 부임하다.

소(疏)를 올려 연산조(燕山朝)의 공안(貢案)을 혁파할 것과 이이(李珣)의 외롭고 위태함을 논하니 임금의 비답(批答)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때 송강(松江) 정철(鄭澈)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되어 도(道) 경계에 이르자 선생은 친교(親父)를 맺고 있던 이발(李潑), 김우옹(金宇顛)이 그를 비방하는 말을 듣고 그날로 떠나려 하였다. 정철은 선생에게 머물러 같이 일하기를 간곡히 권하였으나 선생은 듣지 않고 떠났다. 이에 정철은 성혼(成渾)과 이이(李珣)에게 청을

넣어 두 분의 권유로 전주(全州)로 돌아갔다. 그 뒤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정의(情誼 : 서로 사귀어 친하여진 정)가 두터워졌고 선생이 정철에게 “내가 처음에는 타인(他人)으로 인하여 공(公)을 잃을 뻔 했다.”고 하였다. 울곡(栗谷)께 사론(士論 : 선비들의 공론)의 분열(分列)을 한(恨)하는 시(詩)를 지어올린다. 이때부터 선생은 이발, 김우옹 등과 틈이 벌어졌다.

◇ 1582년(宣祖 15年 壬午) 39세

임기가 만료(滿了)되어 종묘령(宗廟令)에 전임되다.

8월 보은현감(報恩縣監)이 되다. 선생이 계모(繼母)를 모시기 위하여 외직(外職)을 청하였기 때문이다.

비언칠사(備言七事)의 소(疏)를 지었으나 올리지 못하다.

부임해서는 상소를 올려 민간(民間)의 절고(疾苦 : 병으로 인한 괴로움) 및 내수외양지책(內修外攘之策)과 노산군(魯山君), 연산군(燕山君)의 후사(後嗣)를 세우고 사육신(死六臣)을 정표(旌表)할 것과 왕자(王子) 제택(第宅 : 살림집과 정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의 사치(奢侈)를 금할 것을 청하다.(이 疏는 전하지 않음)

◇ 1583년(宣祖 16年 癸未) 40세

보은현감(報恩縣監)에 재임.

가을, 경차관(敬差官) 이산보(李山甫)가 호서지방(湖西地方)의 민

정(民情)을 살피고 돌아와 임금의 열읍(列邑 : 여러 고을)에 치적(治績)이 있는 수령(守令)을 물으니 우도(右道)에는 선치자(善治者)가 별로 없고 좌도(左道)에는 보은현감 조헌(趙憲)의 백성 다스림이 제일(第一)이라고 아뢰었다.

겨울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송순(宋諄) 등이 사감(私感)을 품고 선생의 파직을 계청(啓請 : 임금에게 아뢰어 청하던 일)하였으나 왕이 “이와 같은 사람을 쉽게 얻을 수 없다.” 하고 논계(論啓 : 신하가 임금의 잘못을 따져 아뢰) 7일 동안에 끝내 율허(允許)하지 않았다.

◇ 1584년(宣祖 17年 甲申) 41세

정월(正月)에 이이(李珣)의 죽음을 듣고 우위(虞位)를 배풀고 곡(哭)하다.

또 만시(輓詩)를 짓다. 겨울에 또 다시 대간(臺諫)의 모함을 받아 파직(罷職)되다. 서울을 피하여 옥천(沃川)의 안읍(安邑) 밤티[栗峙] 산 속으로 옮겨 후율정사(後栗精舍)를 짓고, 세상을 등지고 강론(講論)하다.

◇ 1585년(宣祖 18年 乙酉) 42세

이발(李潑)과 절교(絶交)하다.

이 때 당론(黨論)이 격심해져 정여립(鄭汝立)이 이이(李珣), 성혼

(成渾)을 모함하고 이발이 이에 동조(同調)하니 선생이 이를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아 교제(交際)를 끊었다.

◇ 1586년(宣祖 19年 丙戌) 43세

공주목교수겸제독속교관(公州牧教授兼提督屬敎官)에 임명되다.

10월에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시폐(時弊)와 성혼(成渾), 이이(李珣)의 충현(忠賢)을 간곡히 진언 하였다.

◇ 1587년(宣祖 20年 丁亥) 44세

여름, 간사한 무리가 나라를 그르침과 정여립(鄭汝立)의 흉패(凶悖) : 험상궂고 패악함을 논박하는 만언소(萬言疏)를 지어 현도상소(縣道上疏 : 道觀察使를 통하여 임금께 올리는 疏) 하였으나 관찰사(觀察使) 권징(權徵)이 받아들이지 않아 다시 짧은 소(疏)를 지어 원래의 상소와 함께 올린다. 6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다섯 차례 올렸으나 모두 받아지지 않았다.

이에 선생은 문묘(文廟)에 글을 지어 고별하고 옥천(沃川)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강학(講學)하며 일생을 마치려 하였다.

11월, 왜국(倭國)이 사신(使臣)을 보내오다. 선생은 왜사(倭使)를 배척하여 끊을 것을 청하는 소(疏)를 올렸으나 관찰사(觀察使)가 이를 올리지 않았다.

12월 다시 소를 지어 도보로 꺾문 앞에 나아가 이전의 소와 함께

이소(二疏)를 지어 올린다. 소에서, 왜국 사신의 척절(斥絶)과 이산해(李山海)의 오국(誤國 : 나라를 그르침)을 논한 바 왕이 크게 노하여 소를 불태워 버리게 하여 선생은 어쩔 수 없이 옥천으로 돌아오다. 돌아오는 길에 서기(徐起)를 방문하니 그는 직소(直疏)는 잘못이라고 선생을 크게 꾸짖었으나 소장(訴狀)을 읽고는 의관(衣冠)을 바로 하고 재배(再拜)한 후 “공(公)의 이 소(疏)에 의지하여 우리나라는 장차 화(禍)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 하였다.

◇ 1588년(宣祖 21年 戊子) 45세

김포(金浦) 선영(先塋)에 성묘(省墓)하고 돌아오다.

◇ 1589년(宣祖 22年 己丑) 46세

4월에 지부상소(持斧上疏)하여 시폐(時弊)를 극론(極論)하다. 이 때문에 함경도(咸鏡道) 길주(吉州) 영동역(嶺東驛)에 정배(定配)되다. 이 때 북방(北方)에는 여역(癘疫 : 전염성 열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유행하여 선생의 아우 전(典)이 유배(流配) 길에 따라 갔다가 병(病)에 걸려 죽다.

귀양 땅에서 소(疏)를 올려 왜국(倭國)에 통신사(通信使)를 보내지 말 것을 청하다.

11월 4일 귀양살이에서 풀리다. 10월에 정여립(鄭汝立) 모반사건(謀叛事件)이 발각되니 호남(湖南) 유생(儒生)들이 계(啓)를 올려 선

생은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다 하여 특명(特命)이 내리다. 또 상소(上疏)하여 통신사의 파견을 중지할 것을 청하였으나 불보(不報)되었다.

선생이 아직 돌아오기 전에 임금이 이조판서(吏曹判書) 홍성민(洪聖民)에게 선생을 특별히 서용(敍用 : 죄를 지어 면관(免官)되었던 사람을 다시 벼슬자리에 등용함)할 것을 명하니 홍 판서가 성균관(成均館) 전적(典籍)에 천거하였다가 퇴짜를 맞고 다시 예조정랑(禮曹正郎)에 천거하니 임금이 노하여 12월 15일 그의 직(職)을 면하게 하였다. 선생은 돌아오는 길에 이 사실을 알고 대궐 앞에서 거적을 깔고 죄(罪)를 기다리며 3일 동안 물러가지 않아 성 안 사람들이 그 충의(忠義)에 감탄하였다.

◇ 1590년(宣祖 23年 庚寅) 47세

봄에 이발(李潑)의 어머니 윤씨(尹氏)를 길에서 만나다. 선생은 처음에 이발과 극진한 사이였으나 그 후 절교하였는데 이발 형제(兄弟)가 역모(逆謀)에 연좌되어 이미 죽었고 그 어머니 윤씨가 잡혀가게 됨에 선생은 옥천(沃川)에서 술과 옷을 가지고 중간에서 윤씨부인(尹氏夫人)을 맞이하고 술잔을 권하며 털옷을 주어 위로한 뒤 서로 통곡하며 이별하고 또 이발의 첩(妾)에게도 옷을 주었다.

고운사(孤雲寺)에 노닐다.

여름에 금천사(琴泉寺)에서 강학(講學)하다.

12월에 영남지방(嶺南地方)을 노닐 때 정몽주(鄭夢周)의 유상(遺像 : 죽은 사람의 초상화)과 박팽년(朴彭年)의 사당(祠堂)에 들러 글을 지어 제사(祭祀)하고 또 관찰사(觀察使) 홍성민(洪聖民)과 수일간 강론(講論)하고 돌아오다.

◇ 1591년(宣祖 24年 辛卯) 48세

정월(正月)에 영남(嶺南)으로부터 돌아오다.

3월에 지부상소(持斧上疏)하여 왜사(倭使)를 참(斬: 목을 뺨)할 것을 청하였으나 비답(批答)이 없었다.

이 때 선생은 승정원(承政院) 문 밖에서 삼일(三日)동안 기다렸으나 비답이 없자 주춧돌에 이마를 받아 피가 얼굴에 흐르니 보는 사람들의 의논이 엇갈렸다. 선생은 그들에게 “명년(明年)에 산곡(山谷)으로 피란(避亂)할 때는 반드시 내 말을 생각하리라.” 하였다.

그리고 다시 명(明)나라에 보낼 글과 유구(琉球), 대마도(對馬島), 일본유민(日本遺民) 등에 보낼 글 및 일본 사신(使臣) 현소(玄蘇) 등을 목 베일 죄목(罪目) 영·호남(嶺·湖南)의 왜적방비책(倭賊防備策)을 지어 올렸으나 불보(不報)되다. 이 뒤에 선생은 나라 일은 가히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통곡하며 도성(都城)의 문(門)을 나와 옥천(沃川) 집으로 돌아와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하였다.

윤(閏) 3월 그믐께 박로(朴魯)·전승업(全承業) 등 문인(門人)과 함께 옥천의 서정(西亭) 하류(下流)에서 노닐다. 이 자리에서 선생은

“내가 왜국 사신을 목 베어 명나라에 아뢰으로써 뒷날의 책망을 면하고자 하였으나 조정(朝廷) 신하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 하였다.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반드시 유구(琉球)의 고변(告變 : 변고를 알림)이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화(禍)도 언제 닥쳐올지 모르니 제군(諸君)은 이런 때에 어찌 피를 짙어 상소(上疏)함으로써 임금을 깨닫게 하지 못하는가?” 하며 눈물을 흘렸다

4월 아들 안도(安堵)를 시켜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 권징(權徵)과 연안부사(延安府使) 신각(申恪)에게 글을 보내어 호(濠 : 성벽 바깥 돌레를 도랑처럼 파서 물이 괴게 한 곳)를 파고 성(城)을 수축하여 수전(守戰)의 방비를 하기를 권하다. 권징은 웃으며 “설사 왜적이 쳐들어온다 하여도 양서(兩西 : 黃海道와 平安道)에까지 미칠 수가 있겠는가.” 하였으나 신각은 선생의 말을 믿고 곧 방어(防禦)의 대책을 세워 뒷날 왜병(倭兵)을 물리칠 수 있었다.

7월 금산(錦山)으로 남창(南窓) 김현성(金玄成)을 방문하다.

이 때 박정로(朴廷老)가 선생을 좇아 영벽루(映碧樓)에 올랐는데 저녁 나절에 갑자기 붉은 기운이 동방(東方)에서 일어나 북(北)·서(西)·서남(西南) 간에 세 갈래로 나누이면서 땅을 비추었다. 선생은 이를 보고 박정로에게 “풍신수길(豐臣秀吉)의 군대(軍隊)가 이미 출동하여 명년(明年)에 크게 침입(侵入)하기를 이 기운(氣運)과 같을 것이다.”라 예언(豫言)하다.

다음날 김현성과 관찰사에게 급히 방어의 계책(計策)을 세우도록

하라 하였으나 관찰사 이황(李滄)은 장계(狀啓)를 올리지 않았다. 겨울에 대둔산(大菴山)에 들어가 독서(讀書)치 않고 산곡(山谷)을 헤매며 높은 산에 올라 먼 데를 보며 나라 일을 탄식하였다. 하루는 네 중과 식사를 같이 하며 “명년에는 반드시 왜란(倭亂)이 있을 것이며 나는 의병(義兵)을 일으켜 임금을 모실 것이니 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은 함께 와서 나라를 돕자.” 고 하였다. 과연 다음 해 선생이 의병을 일으키자 그 중 두 사람은 선생을 따라 죽었고 한 사람은 이미 죽은 뒤였으며 한 사람은 병(病)으로 참전치 못하여 같이 죽지 못함을 한탄하였다.

11월에 공암(孔岩)으로 가서 서기(徐起)를 조상(弔喪)하다.

◇ 1592년(宣祖 25年 壬辰) 49세

2월 28일 부인(夫人) 신씨(辛氏)가 죽다. 아들 완기(完基)가 김포(金浦)로 반장(返葬)하려 하였으나 선생이 “변란(變亂)이 곧 일어날 것이니 시체(屍體)를 길가에 버리게 될 바에야 이곳에 장사지내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3월 김포의 선영(先塋)을 찾아 장차 변란이 일어날 것이므로 영원히 물러간다는 뜻의 제문(祭文)을 지어 고유(告由)하다.

친구(親舊)들의 물음에 “강화도(江華道) 마니산(摩尼山)이 피란(避亂) 땅 같다.”라고 예언하다.

4월 20일 부인 신씨를 집 뒤에 장사지낼 때 선생이 문인(門人)들

에게 “옛 사람의 시(詩)에 ‘사람들은 와서 울지만 나는 와서 노래하노니 그대와 같이 땅에 묻히는 이는 적고 묻히지 못하는 이는 많도다.’ 라 하였는데 그것이 옳은 말이로다.” 라고 하였다. 이날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니 선생이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이것은 천고(天鼓 : 하늘이 울리는 북)이다. 왜적이 틀림없이 바다를 건넌으니 다시 어찌할 수 없도다.” 하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호상(護喪 : 상 치르는 일을 보살핌)하던 친구들에게 “빨리 돌아가 피란할 준비(準備)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이달 20일 왜군(倭軍)이 크게 침입하니 부산(釜山) 동래(東萊)가 함락하여 열읍(列邑)이 와해(瓦解)하니 선생은 어머니를 모시고 청주면(淸州面) 선유동(仙遊洞)으로 피란시키고 돌아오다. 5월 3일 청주에서 격문(檄文)을 띄우고(이 檄文은 전하지 않음) 문인(門人) 김절(金節)·박충검(朴忠儉) 등과 향병(鄉兵) 수백인(數百人)을 모으고 보은(報恩)의 차령(車嶺)에서 왜군(倭軍)을 만나 선생이 선봉(先鋒)으로 싸워 물리치다. 그 후로 왜군은 이 길로 통(通)하지 못하다.

6월에 오랜 승평(昇平 : 나라가 태평함)에 백성은 전쟁을 모르고 장수(將帥)와 고을 수령(守令)이 함께 달아나니 왜군은 상륙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조령(鳥嶺)을 넘고 무인지경(無人之境)을 가듯이 북진(北進)하여 임금은 피란 길에 올랐다. 선생은 이 소식을 듣고 문인(門人) 이우(李瑀)·김경백(金敬伯)·전승업(全承業) 등과 팔로(八路 : 八道)에 격문(檄文)을 보내고 의호(義號)를 세우니 의로운 선비

들이 구름 같이 몰려들었다. 이에 충청도순찰사(忠淸道巡察使) 윤선각(尹先覺)이 관군(官軍)에 불리하다 하여 방해하였으나 선생이 공주(公州)로 그를 찾아 대의(大義)를 역설(力說)하여 그도 협심(協心)하게 되어 의병을 불러 모으니 며칠 사이에 1,000여 명이 모였다. 그러나 안세헌(安世獻)의 작간(作奸 : 간악한 꾀를 부림)으로 순찰사가 의병의 부모·처자를 가두고 또 청양현감(淸陽縣監) 임순(任純)이 군사 100명을 선생에게 보냈다 하여 공주옥(公州獄)에 가두니 모였던 장정(壯丁)들이 흩어지다.

이 때문에 호우(湖右)로 가서 전(前) 참봉(參奉) 이광륜(李光輪), 선비 장덕개(張德蓋)·신란수(申蘭秀)·고경우(高擎宇)·노응탁(盧應卓) 등이 선생을 따라 다시 의병을 모집하니 멀고 가까운 곳에서 모여든 장정이 1,600여 명에 이른다. 선생은 부대(部隊)를 나누어 정산(定山)·온양(溫陽) 등지를 순무(巡撫)하게 하고 위풍(威風)과 기세(氣勢)로 통제하니 인심이 안정되다.

7월 4일 웅진(熊津)에서 제사지내고 5일에 군사를 위로하고 오직 나라의 어려움과 진격(進擊)만을 생각하라는 맹세를 하다.

의병을 이끌고 회덕(懷德)으로 갔는데 일찍이 호남의병장(湖南義兵將) 고경명(高敬命) 등과 약속하기를 형강(荊江)을 건너 왜적을 무찌르자고 하였으나 고경명은 이미 금산(鎭山)에서 전사(戰死)한 뒤였으므로 7월 29일 형강에서 추도시(追悼詩)를 짓다.

8월 1일 청주에서 왜적을 격파(擊破)하다.

이때 왜병은 청주를 점거하고 호우지방(湖右地方)으로 진격하려 하였다. 선생은 급히 청주로 진군하여 승장(僧將) 영규(靈圭)의 군과 연합하여 성서문(城西門)에 이르러 진두지휘로 적을 격파하여 청주성(淸州城)을 회복하다.

청주성의 왜병을 격파한 후 소(疏)를 지어 문인(門人) 김승업(金承業)과 아들 완도(完堵)를 시켜 행재소(行在所)로 보내고 다시 격문을 띄우다. 또 글을 지어 아국인(我國人)으로 왜(倭)의 포로(捕虜)와 일본종행사졸(日本從行上卒) 및 왜승(倭僧) 현소(玄蘇) 등을 통유(通諭)하다.

15일 행조(行朝)에서 선생이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토벌(討伐) : 무력으로 쳐 없앴함을 가상히 여겨 교지(教旨)를 내려 봉상시첨정(奉常寺僉正)의 벼슬을 주다. 선생은 이 교지를 받지도 못하고 18일 금산(錦山) 싸움에서 칠백의사(七白義士)와 함께 순절(殉節)하다.

금산의 왜적은 창궐(猖獗) 일로에 있었고 금산은 전략(戰略)의 요충지(要衝地)였다. 선생은 관군(官軍)의 방해로 흩어지고 남은 칠백의 의사를 거느리고 16일 청주를 떠나 승장(僧將) 영규(靈圭)의 군(軍)과 연합하고 전라도순찰사(全羅道巡察使) 권율(權慄)이 약속한 금산 공격날인 18일을 연장하자는 서한이 있었으나 단독 진군하여 금산에서 십리(十里)까지 진격하였다.

이때 왜군은 우리의 후속부대(後續部隊)가 없음을 알고 삼대(三隊)로 나누어 교대로 공격하여 왔다. 선생은 “오직 한번 죽음이 있

을 뿐이다. 진격(進擊)하고 후퇴(後退)함에 있어 ‘의(義) 자(字)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라.’ 하고 진두지휘하였다. 중과부적(衆寡不敵)인데다, 화살까지 떨어져 맨주먹으로 최후까지 격전하다 선생과 칠백의병은 한곳에서 순절하였다. 싸움이 끝난 다음날 선생의 아우 조범(趙範)이 싸움터에 들어가 선생의 시체를 찾으니 깃발 아래에 장수와 병사들이 등글게 모여 서로 베고 죽어 있었다.

선생의 시체를 거두어 옥천(沃川)에 돌아와 빈소(殯所)를 차리니 사일(四日)동안 선생의 얼굴빛이 산 사람과 같았다.

장례(葬禮)를 옥천군(沃川郡) 안읍(安邑) 도리동(道理洞)에 모시다.

12월에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 겸(兼) 동지경연(同知經筵) 춘추관(春秋館) 의금부사(義禁府事)에 증직(贈職)되다.

◇ 1593년(宣祖 26年 癸巳)

11월에 남행(南行) 길에 오른 왕세자(王世子 : 光海君)가 선생의 아들 완제(完堤)를 불러 쌀과 배를 내리고 종관(從官) 김횡(金橫)·황신(黃愼) 등을 보내어 치제(致祭 : 임금에 제물과 제문을 보내어 죽은 신하를 제사 지내던 일)하였으며 복역(復役)과 감조(減租 : 세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는 일)를 명하다.

◇ 1594년(宣祖 27年 甲午)

5월에 성혼(成渾)의 계(啓)에 따라 선생의 유족에게 월름(月廩 :

月給으로 주는 穀物을 명하다.

◇ 1595년(宣祖 28年 乙未)

비변사가 조현의 유족들에게 관직, 재수 등을 청하다.

◇ 1603년(宣祖 36年 癸卯)

호남(湖南)과 호서(湖西)의 유사(儒士)가 금산(錦山)의 순절(殉節)한 곳에 순의비(殉義碑)를 세우다.

◇ 1604년(宣祖 37年 甲辰)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일등(一等)으로 공신록(功臣錄)에 오르다.

자헌대부(自獻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 겸(兼)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지경연(知經筵) 성균관(成均館) 춘추관(春秋館) 의금부사(義禁府事)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에 증직(贈職)되다.

12월에 예조좌랑(禮曹佐郎) 윤광계(尹光啓)를 보내 치제(致祭)하다. 그리고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성진선(成晉善)을 특별히 보내 어 묘(墓)를 지킬 오가(五家)를 주어 밭 오결(五結)을 감조(減租)케 하고 또 복호(復戶<sup>81</sup>)를 명하였다.

81) 조선 시대에, 충신·효자·군인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하여 주던 일을 가리킨다.

## ◇ 1605년(宣祖 38年 乙巳)

아들 완도(完堵)를 태릉참봉(泰陵參奉)에 임명하였으나 상소(上疏)하여 선신(先臣)의 공열(功烈)을 억누르는 폐단(弊端)을 들어서 벼슬을 받지 아니하였다.

## ◇ 1608년(宣祖 41年 戊申)

여러 선비가 상소(上疏)하여 묘 앞에 사우(祠宇 : 사당, 조상의 神主를 모셔 놓은 집)를 세우고자 청하니 이를 허락하여 사호(賜號 : 임금의 내린 號)를 ‘표충(表忠)’이라 하였다.

## ◇ 1609년(光海君 元年 己酉)

충청도 유생 노응탁(盧應卓) 등의 상소에 의해 조현의 사액(賜額)을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여 표충(表忠)이라 사호하였다.

## ◇ 1613년(光海君 5年 癸丑)

기보(畿輔)의 선비들이 김포(金浦)에 유허비(遺墟碑 : 선인들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를 세우다.

## ◇ 1615년(光海君 7年 乙卯)

아들 완기(完基)의 효자문(孝子門)을 정표(旌表 :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어 널리 알림)하다.

## ◇ 1623년(仁祖 元年 癸亥)

연신(筵臣) 조익(趙翼)의 건의로 아들 완도(完堵)를 내자시(內資寺) 주부(主簿)에 임명(任命)하다.

## ◇ 1624년(仁祖 2年 甲子)

완도(完堵)를 의금부(義禁府) 도사(都事) 강음현감(江陰縣監)에 임명(任命)하다.

## ◇ 1629년(仁祖 7年 丁卯)

병조판서 이귀가 조현의 병술소(丙戌疏)를 책으로 만들어 올렸다.

## ◇ 1636년(仁祖 14年 丙子)

10월 21일에 선생의 묘소(墓所)를 옥천군(沃川郡) 안남(安南) 미산(薇山)에 이장(移葬)하다.

## ◇ 1642년(仁祖 20年 辛巳)

증시(贈諡)하는 것을 의론하다. 공조판서 윤휘(尹暉)가 말하기를 “증시(贈諡)하는 전례는 예로부터 있는 것인데 고경명, 이순신, 조현 등은 아직도 증시를 받지 못했으니, 이는 진실로 흠전(次典)입니다.” 하니 임금이 예조에 품의하여 조치하게 하였다.

◇ 1649년(仁祖 27年 己丑)

시호(諡號)를 내려 문열(文烈)이라 하다.

◇ 1653년(孝宗 4年 癸巳)

7월 17일에 예조좌랑(禮曹佐郎) 정동엽(鄭東燁)을 금산(錦山)에 보내어 종용사(從容祠)와 의단(義壇)에 치제(致祭)하다.

◇ 1656년(孝宗 7年 丙申)

신도비(神道碑)를 세우다.

◇ 1663년(顯宗 4年 癸卯)

예조관리(禮曹官史)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다.

◇ 1665년(顯宗 6年 乙巳)

5월 7일에 예조좌랑(禮曹佐郎) 류송제(柳松齊)를 보내어 묘소(墓所)에 치제(致祭)하다.

◇ 1669년(顯宗 10年 辛亥)

김포 유생 이만춘 등이 상소하여, 조헌의 서원액호(書院額號)를 칭하니 임금이 해조에 내렸는데, 후에 송준길의 말로 인하여 액호를 하사하였다.

◇ 1670년(顯宗 11年 庚戌)

4월 10일에 사인(舍人) 이훤(李憲)을 보내어 의단(義壇)에 치제(致祭)하다.

◇ 1671년(顯宗 12年 辛亥)

5월에 예관(禮官) 김충(金聰)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다.

◇ 1673년(顯宗 14年 癸丑)

완기(完基)에게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을 증직(贈職)하다.

◇ 1684년(肅宗 10年 甲子)

7월 17일에 장령(掌令) 권달(權愷)을 보내어 의단(義壇)에 치제(致祭)하다.

◇ 1699년(肅宗 25年 己卯)

1월 13일에 근신(近臣)을 보내어 의단(義壇)에 치제(致祭)하다.

◇ 1703년(肅宗 29年 癸未)

선생의 증손(曾孫) 광한(匡漢)에게 한성부(漢城府) 참군(參軍)의 벼슬을 주다.

◇ 1710年(肅宗 36年 庚寅)

청주(淸州)의 유생(儒生)들이 청주 싸움터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우다.

◇ 1712년(肅宗 38年 壬辰)

5월 15일에 부사직(副司直) 김시섭(金始燮)을 보내어 의단(義壇)에 치제(致祭)하다.

◇ 1717년(肅宗 43年 丁酉)

3월 16일에 예조정랑(禮曹正郎) 김윤해(金潤海)를 보내어 묘소(墓所)에 치제(致祭)하다. 7월 17일에 다시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다.

◇ 1718년(肅宗 44年 戊戌)

5월 7일에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다.

◇ 1734년(英祖 10年 甲寅)

6월 18일에 선생의 자손은 적손(嫡孫)이나 지손(支孫)을 가리지 않고 녹용(錄用 : 採用)케 하다.

또 『朝天日記』의 간행(刊行)을 명(命)하다.

7월 19일에 부수찬(副修撰) 유건기(兪健基)를 특별히 보내어 종용

사(從容祠) 및 의총(義塚)에 치제(致祭)하다.

9월 25일에 영의정(領議政)을 증직하다.

◇ 1740년(英祖 16年 庚申)

우의정 송인명이 조헌, 송상현, 고경명의 자손을 찾아 녹용할 것을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7월에 선생이 문집 간행(刊行)을 명(命)하다.

◇ 1754년(英祖 30年 己丑)

10월 의정(議政)을 추증하였다.

◇ 1758년(英祖 34年 乙酉)

김재로(金在魯)의 건의가 받아들여 부조지전(不祧之典)을 배풀고 예관(禮官)을 보내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 1772년(英祖 48年 辛未)

예관(禮官)을 보내어 조헌에게 이순신에게 행한 예에 의거하여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 1795년(正祖 19年 乙卯)

사당에 치제(致祭)하였다.

◇ 1796년(正祖 20年 丙辰)

문열(文烈)이라는 시호를 추증하였다.

◇ 1797년(正祖 21年 丁巳)

승지를 보내 우저서원(牛渚書院)에 치제하게 하였다.

◇ 1807(純祖 7年 丁卯)

부조의 은전을 베풀고, 그 후손 조석복(趙錫福)으로 그 제사를 주관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 1857(哲宗 8年 丁巳)

함경도 유생 유학(幼學) 주명훈(朱命欽)의 상소로 함흥서원에 편액을 하사 하였다.

◇ 1874년(高宗 11年 甲戌)

조헌의 사손(祀孫) 중에서 조원식(趙元植)을 휘릉 참봉(徽陵參奉)으로 정하였다.

◇ 1883년(高宗 20年 癸未)

11월 21일에 관학유생(館學儒生) 및 팔도(八道) 유생(儒生)의 상소(上疏)에 따라 문묘(文廟)에 배향(配享)케 되다.

◇ 1908년(純宗 2年 戊申)

묘에 지방관리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도록 지시 하였다.

◇ 1971년 4월 13일

순절지(殉節地) 성역화(聖域化) 되다.

## 李河俊

경기도 金浦에서 출생하여 明知大學校에서 文學博士學位를 받고 世明大學校 교수  
를 거쳐 현재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全國漢字教育推進總聯合會 常  
任執行委員, 月刊『한글+漢字』의 編輯委員으로 활동하며 올바른 언어생활 정립을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社)重峯趙憲先生宣揚會 理事長으로 우리 역사와 학문 세계에  
서 조헌 선생을 정당하게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金浦文化院 부원장 등  
김포에서 여러 역할을 맡아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과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러 활  
동을 전개하고 있다. 『抗日期 國語教育』을 비롯하여 국어운동, 글쓰기, 조헌선생 등과  
관련된 많은 저서와 논문이 있다.

### 重峯 趙憲과 그의時代

인쇄 2010년 9월 10일

발행 2010년 9월 20일

지은이 李河俊

발행인 윤대원

펴낸곳 도서출판 공간미디어

주 소 서울 성북구 안암동 4가 29-2 서정빌딩 302호

등록일 2005.11.9

© 李河俊, 2010

값 15,000원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항일기(抗日期) 국어교육(國語教育)

李河俊 著

이 책은 항일기(抗日期)에 이루어졌던 국어교육(國語教育)의 모습을 일본(日本)의 정책(政策)과 국어의 발달과정을 민족항쟁(民族抗爭)의 객관적 조건으로 다루었다. 이 책의 구성은 사립학교(私立學校)와 국어교육, 야학운동(夜學運動)과 국어교육, 농촌계몽운동(農村啓蒙運動)과 국어교육, 암흑기(暗黒期)의 국어교육으로 이루어졌고 부록에 각종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갖추었다.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5, 15,000원)

## 불멸의 중봉(重峯) 조헌(趙憲) I · II

李河俊 編

이 책은 이하준(李河俊) 교수의 책임 아래 I 권은 중봉전서(重峯全書)를 저본(底本)으로 주해(註解)를 하였는데 전기(傳記), 저술(著述), 포전(褒典), 막좌문생동일순철록(幕佐門生同日殉節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I 권은 중봉 관련 연구자료(研究資料), 월탄 박종화 선생의 소설 칠백의총, 연보(年譜), 가계도(家系圖), 관련 유적지(遺蹟地) 소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끝에 중봉집을 영인하였다.

(김포문화원, 2004)

## 김포인물지(金浦人物誌)

李河俊 編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근·현대(近現代)에 이르기까지 김포(金浦)를 빛낸 인물(人物)을 담은 이 책은 금릉군지, 한국인명대사전, 기타 각종 연감 및 역대 각급기관장 자료 등을 참고하여 김포의 정치 경제(政治 經濟)·법조사회문화(法曹社會文化), 의료(醫療), 예술(藝術), 학문(學問), 군사(軍事), 체육(體育) 등 김포를 빛낸 인물 중 고인(故人)이 된 인물을 선정하였다.

(김포문화원, 2002)



중봉 선생은 우리 역사에서 한 가지 색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분이다.  
학자(學者)로, 정치개혁가(政治改革家)로, 시인(詩人)으로, 의병장(義兵將)으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되도록 이 모든 것을 망라(網羅)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풍부한 일화(逸話)를 통해 그 삶의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도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곧 이 책은 중봉 선생이라는  
거대한 실체(實體)에 대한 하나의 입문서(入門書)에 해당한다.

-머리말에서

